



*The 53rd Session of
International
Statistical Institute,*

**통계올림픽,
서울에서**

열리다

열리다

책머리에

2001년 8월 23일, 통계청은 대규모 국제행사 하나를 치루었다. 통계청 유사이래 최대규모의 국제행사였다. 이른바 통계올림픽이라고 불리는 세계통계대회(ISI)이다. 제 53차 세계통계대회가 2001년 8월 23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코엑스(COEX)에서 열렸다. 외국인 1,500여명 내국인 1,100여명 도합 2,600여명이 모여 일주일 동안 900여편의 논문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대규모 학술대회를 치른 것이다. 아시아권에서는 일본도, 필리핀도, 중국도 이미 치른 대회를 한국은 이제야 치르게 된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세기, 21세기를 시작하는 벽두에 이 대회를 치르게 된 것은 또 다른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겠다.

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통계청뿐만 아니라 통계학회, 통계협회 관계자 등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다. 국가이미지 제고와 한국통계기관의 위상제고를 위해 많은 분들이 밤새워가며 헌신적으로 일했다. 이 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서울 세계통계대회는 큰 성공을 거두었다. 대회 역사상 가장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고 가장 많은 사람이 참가했으며 가장 성공적인 대회라는 평가를 참가자들로부터 받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모델적인 나라라는 인식과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추구하고자 하는 한국통계청이라는 이미지가 확산되게 되었다.

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생각하고 부딪치고 느꼈던 일들은 어찌 보면 하나의 역사적인 한 장면들일 수도 있다. 10년 후가 될지 30년 후가 될지, 언젠가 될지 알 수는 없지만 또 다시 이런 대회를 한국에서 개최하게된다면 2001년의 서울 대회가 하나의 참고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제53차 서울 세계통계대회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하나의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었다. 통계청에서는 대회 관련 각종 자료들을 책자, 비디오, CD, DVD 등의 형태로 남겨놓기로 했다. 그러나 이런 것

들은 모두 공식적인 자료들일 뿐 생생한 현장 이야기는 없다. 대회 주관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고 어떤 고민을 했으며, 문제해결을 위해 어떻게 접근했고 또 어떻게 이루었는가 하는 이야기들은 없다.

이에 서울 세계통계대회 조직위원장이었던 필자는 대회 개최와 관련된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겨놓기로 했다. 서울대회 국내학술프로그램위원장이셨던 이재창 고려대 교수님께서도 같은 생각을 가지셨다. 그래서 본 대회의 집행위원장을 맡으셨던 남변 통계기획국장과 대회 사무국장이었던 최봉호 국제통계과장의 글도 같이 모으기로 했다. 하나의 대회를 놓고 여럿이 보다보니 부분적으로는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각자 서 있는 위치와 맡은 임무에서 대회를 조명해보고 느낀 점을 기술하기로 했다. 당초 생각으로는 상황별로 자세하게 기술하고 싶었지만 시간에 쫓기다 보니 큰 줄거리만 기억나는 대로 적게 되었다. 이 정도로도 큰 줄거리는 잡힐 수 있겠다고 생각하여 더 이상 추가하지 않고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 책은 원래 2001년 내에 발간할 예정이었지만 시간적 제약과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늦어졌다.

이 책을 발간함에 있어서 바쁜 와중에도 끝까지 책임지고 일을 맡아준 손영태 사무관과 국제통계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편집과정에서 어려운 일들을 맡아주신 모아드림의 손정순 사장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특히 본 대회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해주신 안윤기 통계학회장님을 비롯한 통계학회 교수님들과 민태형 통계협회장님을 비롯한 통계협회 관계자들, 그리고 최봉호 국제통계과장을 비롯한 국제통계과 직원 여러분들, 통계청 직원 여러분들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과 드림과 동시에 영광을 돌린다.

2002. 7.

윤영대

목 차

책머리에

I. 서울에서 열린 또 하나의 올림픽

1. ISI가 뭐예요? _14

- 1) ISI가 뭐예요?
- 2) UN ECE 통계기관장회의에 다녀오시지요
- 3) 멋진 서울대회 로고

2. 서울대회를 어떻게 치를 것인가? _24

- 1) 헬싱키대회를 보면서
- 2) 벌거벗고 맺은 인연들
- 3) 2,001명이 목표요!
- 4) 정보화사회와 통계를 주제로
- 5) 서울에서 열리는 통계올림픽
- 6) 한국이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 7) 저 사람들로 ISI대회를 잘 해낼 수 있을까?

3. 서울대회의 준비 _43

- 1) ISI 회장단 방한과 총리 예방
- 2) 2,001명을 확보하라
- 3) 일본을 공략하라
- 4) 중국을 설득하라
- 5) 우다위(武大偉) 대사를 만나서
- 6) 호주, 뉴질랜드도 잡아라
- 7) 외국인 1,000명을 넘어서면서
- 8) 노벨상 수상자 초청
- 9) 북한 중앙통계국장을 초청하려고...

4. 통계올림픽이 열린다_65

- 1) 넥타이는 어디 갔어?
- 2) 새천년의 태동
- 3) Let us begin the New Century with the New Statistics
- 4) 감동을 받아 눈물이 났습니다
- 5) Love me tender
- 6) 웃음이와 우정만찬
- 7) 콜롬비아와 통계협력을 맺다
- 8) 부통령실 경제자문관입니다
- 9) 러시아 통계청장의 안부입니다
- 10) Mr. Joseph Tedou의 부상
- 11) 대통령님의 치하
- 12) Oh! Little Angels!
- 13) OECD 통계자문그룹이 되어 주십시오
- 14) 아시아 통계 포럼(Asia Statistical Forum)
- 15) 길리철(吉理哲)씨

5. 언제 다시..._113

- 1) Invitation to Berlin
- 2) 믿고 맡겼더니 그만
- 3) 대만족한 ISI 사무국
- 4) 만약 IT 기술이 없었더라면
- 5) ISI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 6) 언제 다시 한국에서 ISI가 열릴 수 있을까?

II. 세계통계대회와의 인연

1. ISI에 관해서 처음 들어 본 것은 129
2. ISI 회원가입 130
3. 동경대회 130
4. 파리대회 참석 131
5. 카이로대회 133
6. 본격적 유치활동 134
7. ISI서울대회 공식초청 139
8. 서울대회 준비 143
 - 1) LPC 사무실
 - 2) 실무위원회와 schedule
 - 3) 참석자 2001명 목표
 - 4) 일본인 참석자
 - 5) 논문접수
 - 6) 언론홍보용 해설집
 - 7) 동시통역
 - 8) 대학생 도우미와 당직교수
9. 서울대회기간(2000. 8. 22.~29.) 156
 - 1) 대회는 시작되었다
 - 2) 행정회의

- 3) 사교행사(Social Program)
 - 4) 주말관광
 - 5)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10. 뒤돌아보며_166

Ⅲ. 세계로 가는 통계청

- 1. 한국 통계의 발달과 ISI대회 유치_169
- 2. 전(前) 대회의 준비상황을 파악_170
- 3. 2001년 서울대회의 준비를 위한 인력구성_171
- 4. 참가자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_173
- 5. 각종 물품의 제작_177
- 6. 사전답사_179
- 7. 대회의 시작_180
- 8. 공연과 리셉션_183
- 9. 논문발표와 위성회의_187
- 10. 관광행사_188
- 11. PCO의 도움_191
- 12. 이번 행사의 성과_192
- 13. 대회를 마치고_194

IV. 파리대회부터 서울대회까지

1. 아무 것도 몰랐던 시절_198
2. 배우는 단계_200
3. 본격적인 서울대회 준비_204
4. 준비과정에서 노심초사했던 것들_207
 - 1) 2000년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초청
 - 2) 호텔 예약
 - 3) 참가자 등록수와의 전투
 - 4) 인력 충원
 - 5) 북한통계인사 초청
 - 6) 명예위원회 구성
5. ISI서울대회 행사 후기_211
 - 1) 본대회기간 중 어려웠던 10개 장면
 - 2) 다소 아쉬웠던 몇 가지 사항
 - 3) ISI대회 성공의 첫 번째 공신
6. 맺음말_220

「부록」_224

I. 대회 조직위원회 명단

「부록」_232

II. 외국인 참가자 감사서한

통계올림픽, 서울에서 열리다

통계올림픽, 서울에서 열리다

통계올림픽위원회

통계올림픽위원회는 통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 줄 것을 목표로
통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 줄 것을 목표로 통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 줄 것을 목표로 통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 줄 것을 목표로
통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 줄 것을 목표로 통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 줄 것을 목표로 통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 줄 것을 목표로

통계올림픽위원회

통계올림픽위원회

통계올림픽위원회

통계올림픽위원회

I. 서울에서 열린 또 하나의 올림픽

— **윤영대** ISI 서울대회 조직위원장, 전 통계청장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1. ISI가 뭐예요?

1) ISI가 뭐예요?

1998년 3월 25일 나는 제6대 통계청장으로 부임하였다. 청장으로 부임한 후 각 국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국제통계과 최봉호 과장이 2001년에 한국이 ISI대회를 주최하게 되었다고 보고한다. 2001년 8월 22일부터 29일까지 제53차 ISI대회가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라는 것이다.

“ISI대회가 뭐예요?”

“ISI는 International Statistical Institute의 약자로서 ISI대

회는 '국제통계기구대회'를 말합니다. 이 대회는 2년마다 열리는 국제대회로서 전 세계의 통계인들이 모이는 대규모 학술대회입니다. 1999년에는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리게 되고 2001년에 우리나라에서 열리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1995년에 신청하여 1997년에 승인을 얻었습니다. 통계청, 통계학회, 통계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대회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대회를 왜 하나요? 무슨 효과를 기대하면서 이 대회를 개최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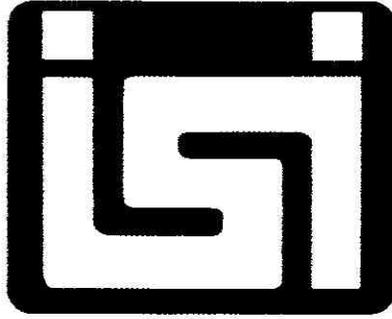
“우리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선진통계기법이나 이론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전 세계 통계인들이 모이기 때문에 우리의 통계활동내용과 수준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새로운 이론이나 기법들이 발표되고 토론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이 대회는 참가자들이 돈을 내고 참가합니다. 그러나 참가비만으로는 대회 경비를 모두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일부 지원받습니다. 총 경비는 약 3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2001년이라... 앞으로 3년 반이나 남아있구먼. 뭐 그리 서두를 일도 아니군 그래. 그리고 ISI대회가 학술대회이고 통계학회, 통계협회와 공동 주관이라면 통계학회가 나서서 하면 되겠군. 우리는 측면지원만 하면 되고...’

나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업무보고를 끝냈다. 그리고 자연 ISI는 내 관심권에서 약간은 멀어져 가고 있었다. 그것을 눈치챘는지 아니면 청장의 국제화 마인드가 염려되어서인지 최과장은



국제통계기구(ISI)의 로고

기회 있을 때마다 ISI 얘기를 해서 나의 관심을 잡아끌곤 했다. “이 친구 ISI로 노래를 부르고 있구면 그래. 아직도 시간이 철철 넘치게 남아 돌아가는데도 말이야.” 하면서 나는 여전히 관심이 적었다.

4월 들어서서 최과장은 통계학회장을 비롯한 통계학회 대표들과 ISI 서울대회 준비관련 간담회를 여는가 하면 대회조직위원회 구성(안)을 국장 간담회에 보고하는 등 계속 간부들과 나의 관심을 ISI대회에 불들어 두려고 노력한다. 나는 이 대회가 학술대회이므로 통계학회가 주관하고 통계청은 측면 지원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일부 했었다. 그러나 실무진들은 이 대회를 통계청이 주도하여 유치하였으므로 우리가 직접 전면에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회가 비록 학술대회이지만 통계학자들만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국 통계기관 관계자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관계자들도 참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한다. 다른 나라도 모두 통계기관에서 주관을 했다고 하면서 결국은 통계청이 해야 할 주요과

제임을 강조했다. 그리고 통계청장이 ISI 서울대회 국가조직위원회(NOC)위원장이 된다고 강조한다. 통계청장이 국가조직위원회 위원장이라면 결국 모든 책임은 통계청이 질 수밖에 없다.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최과장은 ISI대회 참가 경험이 많아 여러 사례를 많이 본 모양이다. 그래서 어느 대회는 성공적이었고 어느 대회는 실패했다는 등 나에게 사전 교양교육(?)을 자주 했다. 말하자면 “실패하면 국제적 망신입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라는 암시를 은근히 주면서 압력(?)을 넣는 것이다.

차기 대회인 헬싱키 대회가 아직 1년이나 남아있고 그로부터 2년이나 지나야 서울대회가 시작되는 상황인데 7월 들어서자 서둘러 서울대회 홍보용 홈페이지(www.nso.go.kr/isi2001)를 개설했다. 그러고는 국내학술프로그램(LPC) 위원장을 선임해야 한다고 한다. 나는 통계학자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누가 적임자인지도 몰랐다. 남편 국장과 최과장은 오랜 경험이 있고 통계학 교수들을 많이 알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을 참고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이 추천한 학자가 고려대 이재창 교수님이였다. 이교수님은 ISI대회를 한국에서 한 번 개최해야 한다고 일찍이 주창하셨고 이를 성사시키신 분이시란다. 국내에 ISI회원이 그다지 많지 않지만 ISI에서 가장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 또한 한국통계학회장도 역임하셨기 때문에 학계에서도 신망이 매우 높으신 분이란다. 결국 이재창 교수님이 가장 적임자이였다. 그래서 10월 19일 국내 ISI회원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이재창 교수님께 국내학술프로그램 위원장을 맡아주실 것을 요청하게 되었다. 이교수께서는 처음에는 약간의 사양도 했으나 서울대회를 유치하

게 된 원죄(?)도 있고 해서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마침내 수락을 하셨다. 이로서 2001 ISI 서울대회를 위한 중요 포스트는 결정된 셈이다. 통계청장이 국가조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이재창 교수께서 국내학술프로그램 위원장을 맡게 되었다. 그 후 몇 번의 준비작업을 거쳐 1999년 6월 25일 대학교수들을 중심으로 25명의 국내 학술프로그램(LPC) 위원들이 선정되었다. 후에 이분들이 각종 학술관련프로그램을 조정하고 운영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2) UN ECE 통계기관장회의에 다녀오시지요

1999년 4월 하순경 어느 날 최과장이 들어와서는 금년 6월 14일부터 17일까지 스위스의 뉴샤텔(Neuchatel)에서 UN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ECE)의 통계기관장회의(Conference of European Statisticians)가 열린다고 하면서 나보고 거기에 참석할 것을 건의한다.

“ECE 통계기관장회의라... 내가 거기에 가야 할 이유가 뭐지요?”

“우선 ECE의 CES 회의에서 유럽국가들의 각종 통계이슈들이 논의되기 때문에 국제적 흐름을 파악할 수 있고, 둘째로 핀란드 통계청장을 만나서 차기 대회를 위해 한국홍보용 부스 면적을 확보하는 것과 설치하는 것을 협의해야 하며, 셋째로 거기에서 유럽통계기관장들을 많이 만나 교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꼭 다녀오셨으면 합니다.”



뉴사텔 유럽통계기관장회의 참석자들과 함께(99.6.16.)

업무상 필요하다면 가야겠지만 멀리 출장을 다니는 것이 그다지 탐탁치는 않았다. 갈까 말까 여러 번 생각을 하다가 최과장의 건의도 있고 해서 결국은 가기로 결정을 했다. 최과장은 바빠서 못하고 이동명 기획과장과 이은수 사무관을 대동했다. ECE 통계기관장 회의에서 나는 많은 유럽통계기관장들을 만났다. 티모 리랜더씨(Mr. Timo Relander), 그가 핀란드 통계청장이다. 그를 거기서 처음 만났다. 티모 리랜더씨는 1999년 8월 10일부터 18일까지 헬싱키에서 제52차 ISI대회를 주관한다. 우리는 헬싱키대회에서 서울대회를 홍보해야 한다. 그를 만나 서울대회 홍보용 부스 면적확충과 시설 설치문제를 협의했더니 그 자리에서 바로 자기 사무실로 핸드폰으로 전화하여 해결해 주었다. 칠척 장신인 그는 시원스럽게 일을 했다. 고마웠다.

대회기간이 얼마 안 남아 준비상황이 궁금해 물어보았다.

“그래, 준비상황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준비는 잘 진행되고 있는데 참가자등록이 부진하여 고민입니다.”

“몇 명 정도 참가할 것으로 기대합니까?”

“약 1,800여명 정도 기대합니다만 아직 등록자가 1,000명도 안 되어 걱정입니다.”

1,800명이라... 꽤 많은 숫자인데... 과거 대회가 그리 많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헬싱키대회는 준비를 잘 하는가 보다 하고 생각했다. 서울대회도 준비를 잘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어렴풋이 해보았다.

3) 멋진 서울대회 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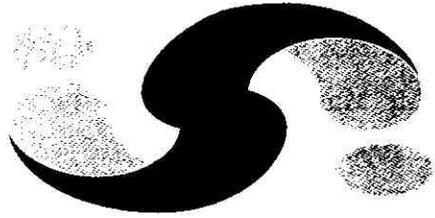
1999년 8월의 헬싱키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각종 홍보물을 만들어야 했다. 우선 서울대회의 로고(Logo)부터 만들어야 한다. 로고는 한눈에 한국임을 알아보고 ISI대회임을 알아봐야 한다. 그래서 한국을 상징하고 ISI를 상징하는 것으로 기본 컨셉트를 잡았다. 그런데 한국을 상징할 만한 것이 무엇일까? 중국은 만리장성으로 표현했고, 핀란드는 자연과 삼림이 많아서인지 삼림으로 표현했다. 우리는? 남극장, 최과장을 위시한 국제과 직원들과 머리를 맞대어도 명쾌한 해답이 안 떠오른다. 석굴암? 태극기? 태권도? 아리랑? 한글? 마땅치 않았다. 여러 가지를 생각해보다가 태극문양이 그래도 가장 한국적이라고 생각했다. 이 문양을 기본개념으로 해서 로

고를 만들기로 했다.

처음에는 우리 직원
들 손으로 과거 대회
로고를 참고하여 만들
어 보았다. 그런데 최과
장이 로고랍시고 들고
들어왔는데 아무래도
어설피다. 그 때 마침
홍익대 미대 김덕룡 교

수가 통계청 로고 만들기 자문교수 역할을 했었다. 김교수는 디자
인·홍보 전문가이다. 그래서 김교수께 한 번 자문을 받아보라고
했다. 김교수께서 우리 실무진이 만든 걸 보시고는 나에게 매우 조
심스럽게 말을 하신다. “좀 어설피네요.” 도안에 문외한인 나에게
도 어설피게 보이는데 전문가의 눈에야 말할 것도 없다. 아무래도
안되겠다 싶어 전문가에게 맡기기로 했다. 역사적 대회이니 로고
를 멋지게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여기 저기 교섭하다가 안되
어 결국은 김덕룡교수께 부탁했다. 김교수팀에서 마지못해 실비로
제작을 해주셨다. 1999년 4월 30일 최종적으로 서울대회 로고와
홍보용 포스터가 완성되었다. 로고는 태극문양이 ISI라는 글자를
나타내면서 밑에는 글씨로 2001 Seoul이라고 쓰인 걸작품을 만들
어 냈다. 태극문양으로 한국도 상징하고 ISI도 상징하면서 예술성
도 갖춘 걸작품이다. 후일 ISI회장단들이 보고는 서울대회의 로고
가 매우 멋지다고 칭찬을 많이 했다.

“처음 딱 보는 순간 이걸 아마추어가 아닌 전문가가 만들었구나



22~29 AUGUST **SEOUL**
2001 INTERNATIONAL STATISTICAL INSTITUTE

서울대회 로고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것 하나만 보고도 한국이 대회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ISI 사무국장 브록씨(Mr. Marcel Van den Broecke)가 후일 한 얘기다.

1999년 1월 18일부터 20일까지 ISI회장단이 처음 한국을 방문했다. 그 때 우리 손으로 만든 로고를 보여 주었더니 잘 만들었다고 했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외교적 발언이었고 내심으로는 그다지 높지 않게 평가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러나 새로 만든 로고에 대해서는 예술적이라고 높게 평가해 주었다. 후에 많은 사람들이 서울대회의 로고가 아름답다는 평가를 해주어서 기분이 흐뭇했다.

한국홍보용 멀티슬라이드 만들기에다 정성을 기울였다. 한국을 매력적인 곳, 가보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야 참가자 수가 늘어날 것이다. 동시에 메시지도 있어야 한다. 키 메시지(key message)를 무엇으로 할까? 서울대회는 2001년 새 천년의 벽두에 열리니까 '뉴 밀레니엄(New Millenium)과 통계'를 키 메시지로 정하고, 한국의 역사, 자연, 사람들을 아름답게 보여주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제작업체가 선정되었다. 기본적으로 돈이 적었기 때문에 새로운 홍보물을 제작하기는 불가능하여 관광공사가 갖고 있는 각종 홍보용 멀티슬라이드를 많이 이용했다. 그러나 관광공사의 것들은 그야말로 관광홍보용이라서 내가 생각했던 키 메시지를 잘 표현하지 못했다. 내레이터가 메시지를 말로서 전달하지만 그림과 말이 서로 어울려야 한다. 적합한 그림들을 찾아내는 것이 쉽지 않았다. 남변 국장, 최과장을 위시한 국제과 실무진들, 제작업체, 국내학술프로그램(LPC) 위원장이신 이재창 교수, 허문열 통계학회장, 김

덕룡 교수 등과 관광공사에서 시사회를 가졌다. 시사회를 하면서 그냥 통과될 줄 알았던 국제과 팀과 제작진들은 내가 그 자리에서 10여 가지를 지적하는 바람에 비상이 걸렸다. 시간은 촉박한데 청장의 주문은 한없이 높고 어렵고... 실무진들은 진땀이 났다. 그러나 수 차례의 수정을 거치면서 멋진 작품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만든 홍보용 멀티슬라이드는 헬싱키에서 대환영을 받았다. 모두들 박수갈채를 보냈다. 끝나고 나왔을 때 모두들 한 마디씩 칭찬을 했다. “멋있었다.” “아름다웠다.” “한국이 그렇게 아름다운 나라인 줄 몰랐다.” 등등. 결국 우리가 땀흘린 만큼 평가를 받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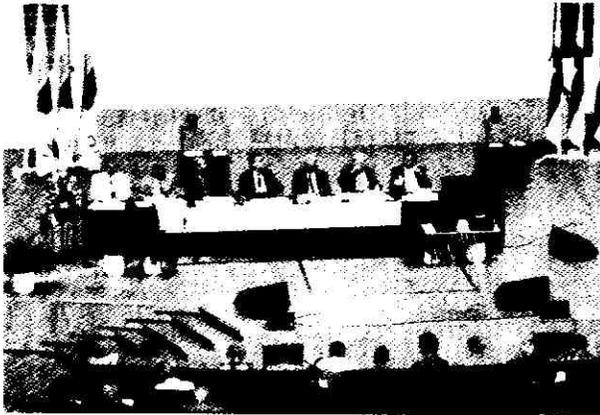
멀티슬라이드 외에도 각종 홍보물을 많이 만들어 갔다. 특히 한국을 소개하는 멀티비전을 만들어 갔다. 버튼을 누르면 한국의 문화, 의상, 음식, 도시 등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것이다. 이것도 처음에는 김덕룡 교수가 추천하여 가볍게 만드는 것으로 시작했다가 내가 이것저것 주문하는 바람에 제작팀이 고생을 많이 했다. 헬싱키에서 이것을 오삼규 서기관이 관리했는데 처음에는 컴퓨터가 말썽을 부려 오서기관이 고생을 많이 했다. 그러나 한국 홍보부스 앞에 설치해 놓은 멀티비전을 여러 사람들이 오며가며 둘러보고 해서 한국 홍보에 많이 기여했다.

2. 서울대회를 어떻게 치를 것인가?

1) 헬싱키대회를 보면서



헬싱키대회시 한국홍보관 앞에서



헬싱키대회 총회 모습

1999년 8월 10일부터 18일까지 핀란드의 헬싱키에서 제52차 ISI대회가 열렸다. 우리는 차기 개최국이기 때문에 대규모 대표단을 구성하였다. 통계학회에서도 이재창 교수, 박성현 교수, 허문열 교수 등 많은 교수님들이 참석하셨다. 통계협회에서도 민태형 회장, 신현균 부회장께서 참석하셨고, 통계청에서도 최봉호 과장, 허진호 과장을 비롯해 홍보부스를 담당한 류종준 사무관, 정인숙 사무관, 오삼규 서기관, 손영태씨, 김희종씨 등 여러분들이 참석하였다. 우리는 서울

대회의 홍보를 위해 각종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많은 정성을 쏟았다.

나는 ISI대회 참가가 이번이 처음이다. 때문에 헬싱키대회는 나의 벤치마킹 대상이었다. 개막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였다. 그 넓은 핀란드야 홀의 오디토리엄이 거의 다 찼다. 얼핏 보아도 1,500여명 이상 되는 것 같았다. 그들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참가한 것이다.

핀란드 통계청장 리랜더씨가 개회사를 하면서 핀란드의 자라는 3S라고 한다. 사우나(Sauna), 시벨리우스(Sibelius) 그리고 시수(Sisu). Sauna와 Sibelius는 알겠는데 Sisu라니? Sisu는 뭘까? 나중에 알고 보니 Sisu는 어려운 환경이나 외압에 결코 굴하지 않는 핀란드인의 강인한 기질을 말하는 것이다. 핀란드도 이웃 러시아, 노르웨이, 스웨덴 등으로부터 침략을 많이 받아온 나라였다. 때문에 자주의 정신과 자존심이 강한 민족이다. 우리와 비슷한 면이 있구나 생각하면서 대회 진행을 지켜보았다. 매우 차분하게 잘 진행되었다. 그러나 웬지 재미가 없었다. 식전행사로 피아노 연주가 있었다. 또 개회식 중간에 두 번의 피아노 연주만 있었을 뿐 연설로 일관해서 지루했다. 처음 피아노 연주를 들었을 때는 격조 있고 멋지다고 생각했는데 두 번째도 피아노, 세 번째도 피아노 연주만 하나까 재미가 떨어졌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 좀 재미있게 만들면 안될까? 개회식을 끝내고 리셉션 때 만난 우리 교수님들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던 모양이다. 몇몇 교수들이 “개회식이 너무 답답하고 지루해요. 우리는 좀 재미있고 신나게 합시다.” 하는 말을 했다. 나도 같은 생각을 했다.



제 52차 ISI헬싱키대회시 초청연설(99.8.13.)

8월 13일 오후 ISI총회를 하는 날이다. 우리는 12분짜리 홍보용 멀티스라이드도 상영하고 초청연설도 해야 했다. 멀티슬라이드는 우리가 정성을 쏟은 덕분에 많은 찬사를 받았다. 실무진들이 흘린 땀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 초청연설 때는 주 핀

란드 한국대사이신 양동철 대사께서도 참석하셨다. 나는 먼저 이번 대회를 완벽하게 준비해준 핀란드 통계청과 대회 관계자들에게 감사와 찬사를 보낸다고 했다. 그랬더니 와— 하는 함성과 함께 박수소리가 요란하게 나왔다. 실로 그들의 노고가 얼마나 컸을까? 당연히 찬사를 보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초청연설에서 나는 2001년 서울대회는 새 천년의 벽두, 21세기의 벽두에 열리는 대회이므로 새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통계를 만들고, 인류 보편적 가치인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통계가 기여하도록 하자는 요지의 연설을 했다. 그리고 서울은 한국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임을 말하고 한국은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여러분들이 서울에 오면 많은 좋은 일들이 있을 것이란 얘기로 끝을 맺었다. 총회를 마치고 나자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의 홍보영상물과 초청연설이 매우 좋았고 매우 인상깊었다(impressive)고 하였다.

최과장을 위시한 우리 팀들은 헬싱키대회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참고하기로 하였다. 손영태씨는 캠코더를 가지고 모든 장면을 비디오 화면에 담기도 하였다. 8월 17일에는 핀란드 통계청, PCO업체, 그리고 사무국장인 일카 멜린씨(Mr. Ilkka Mellin)를 비롯한 관계자들과 회의를 통해서 그들의 노하우를 듣기도 했다.

그들도 역시 참가자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았다. 8월 16일 현재 등록자는 1,959명이고 동반자가 245명이었다. 그들의 예상 참가인원인 1,500명을 훨씬 뛰어 넘는 수준이다. 티모 랜더씨(Mr. Timo Relander)가 싱글벙글 웃고 다니는 이유였다. 그들도 정부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았는데 참가자수가 적으면 어떻게 하나 고민을 많이 한 모양이다.

2) 벌거벗고 맺은 인연들

대회장에서 한번은 티모(Timo)가 지나가다가 나를 슬쩍 잡아당기더니 초청장을 하나 준다. 8월 14일 토요일 저녁인데 사우나 하러 오지 않겠느냐고 묻는다. 보니까 제한된 몇몇 통계청장과 ISI 관계자들을 헬싱키 사우나협회의 전용 사우나로 개인적으로 초청한다는 것이다. 나는 가겠다고 했다. 헬싱키 대회의 모든 것을 보고 배워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거절할 아무런 이유도 없었다.

초청된 사람들은 ISI 현회장 반 주윳씨(Mr. Van Zwet), 차기 회장 보탱씨(Mr. Jean-Louis Bodin), 사무국장 브로크씨(Mr. Van den Broecke), 사무부국장 버즈씨(Mr. Daniel Berze) 등

ISI 전현직 회장단, 할렌(Mr. Johann Hahlen) 독일청장, 홀트(Mr. Tim Holt) 영국청장, 마라구에라(Mr. Carlo Malaguerra) 스위스청장 등 유럽 및 북구라파 통계청장 등등 30여명이었다. 비유럽계 인사로는 폴 청(Mr. Paul Cheung) 싱가포르청장과 나, 둘 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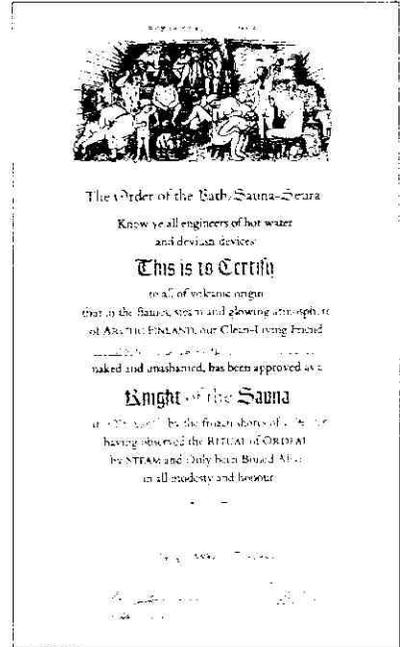
사우나는 라우타사아리의 바스키니에미(Vaskiniemi) 해변에 있는 핀란드 사우나협회 전속인 세우라(Seura) 사우나였다. 이곳은 역사가 매우 깊고 명성이 높은 사우나였다. 바로 해변 언덕에 세워져 있어서 사우나도 하고 수영도 하였다. 사우나는 증기 사우나(Smoked sauna)와 건기 사우나(Non-smoked sauna)로 나누어져 있었다. 각 사우나도 온도별로 저온실과 고온실로 구분되어 4개의 사우나실이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각자 취향에 맞게 사우나실을 고르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우리와 같이 물이 가득 담겨 있는 목욕탕은 없었다. 사우나 안에서는 자작나무로 물통의 물을 축여서 몸을 두들기기도 하고 화로에 물을 뿌려 수증기를 피워 올리기도 하였다. 그들은 고온에서 사우나를 하고는 언덕 아래 바다로 가 수영도 하는 것이다.

우리들은 모두 벌거벗은 상태로 사우나를 오가며 정담들을 나눴다. Timo의 말대로 모두가 직함이나 성이 아닌 첫 이름만 부르는 First name base가 되었다. 그렇게 벌거벗고 몇 시간을 같이 지내다 보니까 모두가 오랜 친구처럼 되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사우나가 끝나고 나니까 증명서를 하나씩 만들어 주었다. Timo는 각자의 이름을 커다랗게 쓰고 “이 사람은 세우라 사우나에서 사우나를 했음을 증명한다”는 커다란 증명서를 만들어 주었다. 증명

서가 얼마나 큰지 신문지 반쪽만 했다. 그들은 여기서 사우나를 했다는 것을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모양이다. 이 증명서를 기념으로 꼭 갖고 있으란다. 실제로 2001년 3월 유엔통계회의 때 Timo는 나에게 그때 준 '세우라 사우나 증명서'를 갖고 있는냐고 확인까지 하였다. 갖고 있다고 했더니 잘 간수하라는 당부를 빼놓지 않는다.

핀란드 사람들은 사우나가 일상생활화되어 있다. 한집에 사우나 하나는 필수적이란다.

따라서 핀란드 인구 수보다 사우나 숫자가 더 많다고 한다. 상담이 잘 진행이 안 된다거나 협상이 잘 안 풀리면 덮어놓고 같이 사우나로 간다. 거기서 별거벗고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누어 해결하는 경우도 있단다. 또 가족끼리도 사우나를 즐긴단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아들, 딸 그리고 며느리가 같이 사우나를 즐긴단다. 우리 풍습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풍속이지만 그들은 그런 것이 더 자연스러운 모양이다. Timo도 자기 사무실에 전용 사우나가 있단다. 일하다 피곤하거나 외빈들이 올 때면 같이 사우나를 한다고 한다. 이토록 사우나는 핀란드 사람들의 아주 독특한 문화인



핀란드사우나협회의 세우라 사우나 증명서

것이다. 이 독특한 문화를 몇몇 친구들에게만 선보인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것을 보여주어야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외국인들에게 한국에 대한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을까? 단순히 보는 것만으로는 안될 것이고 체험을 하도록 해야 할 텐데 무엇이 좋을까? 앞으로의 과제다.

3) 2,001명이 목표요!

헬싱키 대회 기간중 나는 차기 개최국 국가조직위원회(NOC) 위원장으로서 ISI 회장단 및 사무국 관계자들을 오찬에 초청했다. 서로 안면을 익혀두고 원활한 협력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다. 우리



ISI 회장단들과 함께.
서울대회 목표가 2001명임을 최초로 언급함.

측에서는 국내학술프로그램 위원회(LPC) 위원장이신 이재창 교수, ISI이사이신 박성현 교수, 통계학회장이신 허문열 교수, 통계협회장이신 민태형 교수, 최봉호 과장이 참석하였고, Van Zwet 회

장, Jean-Louis Bodin 차기회장, Tim Holt 영국청장등 부회장단, Marcel 사무국장 등과 사무국직원 등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화제는 자연 서울대회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냐 하는 것이었다. 여러 대화 도중 반 덴 브로케 ISI 사무국장이 서울 대회에는 참가자 수를 몇 명 정도 예상하느냐고 물었다. 그 때까지 내 머리 속에는 구체적인 숫자가 없었다. 그래서 그 순간 나는 농담반 진담반으로 2,001명이라고 대답했다. 그 이유는 서울대회가 2001년에 열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모두들 와— 하고 웃으면서도 내 대답이 농담인지 진담인지 아리송해했다. 그러나 헬싱키 대회가 동반자 포함 약 2,200명이 참가했다면 서울대회도 2,001명을 잡는 것이 무리는 아니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 정도는 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했다. 그 후 줄곧 2,001명이 나의 생각을 붙잡았다. 그리고 그것이 서울 대회 참가자의 목표치가 되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목표치였는지는 그 때는 미처 몰랐다. 2,001명이라는 야심 찬(?) 목표치 때문에 나중에 나는 무척 마음 졸임을 해야 했다.

4) 정보화사회와 통계를 주제로

서울대회는 2001년에 열린다. 새 천년의 첫 대회요, 21세기의 첫 대회이다.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가 깊은 대회이다. 무엇을 주제로 할 것인가? 21세기는 역시 정보화의 사회이다. 그러므로 '정보화사회와 통계'를 주제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했다. 국내학

술프로그램(LPC) 위원장이신 이재창 교수께서도 같은 생각이셨다. 그래서 인터넷의 날도 정해서 인터넷과 통계 세션도 만들고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에 관한 교육 세션(Tutorial session)도 만들자고 했다. 이재창 교수는 학술프로그램 위원장이신 리차드 길 박사(Dr. Richard Gill)와 학술논문 세션을 협의해 나갔다. 초청논문(IP) 세션과 기고논문(CP) 세션을 나누어서 초청논문 세션의 주관자와 발표자들을 정리해 나갔다.

IP세션은 헬싱키대회에서 거의 대부분 정해졌다. 그러나 후에 유엔에서 만난 일부 유럽통계기관장들이 한국에 대해 다소 서운해하는 눈치였다. 2001년 3월 유엔통계위원회(UNSC)에서 스노라스(Mr. Snorrason) 아이슬란드 통계청장, 롱바(Mr. Longva) 노르웨이 통계청장을 만나 서울대회 참가를 촉구했더니 이들은 매우 소극적이었다. 그들은 헬싱키의 사우나에서 발가벗고 인연을 맺은 사람들이라 나와서 개인적 친분관계를 보더라도 서울대회에 참가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소극적인 입장이라서 다소 의아해했었다. 처음에는 그 이유를 잘 몰랐는데 나중에 그들이 내비치는 속내를 들여다보니 자기들을 초청논문(IP) 세션에서 초청자로 예우해주어야 하는데도 전혀 그런 예우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서운해했다. 아차— 싶었다. 최봉호 과장에게 이 사람들이 초청논문(IP) 세션에서 초청대상자가 될 수 없느냐고 물었다. 초청논문 세션 초청자라고 우리가 돈 대주는 것도 아닌데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최과장은 초청논문 세션은 이미 헬싱키대회에서 사회자, 발표자, 토론자가 다 정해져서 이제는 어렵다고 한다. 그들에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했지만 스노라센 아이슬란드 청장은 일본의 위성회의시 사회자이기 때문에 서울대회에 참석한다고 했다. 그러나 롱바 노르웨이 청장은 참석치 않았다. 서울 대회에 각국의 통계기관장급들을 많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말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실감했다.

5) 서울에서 열리는 통계올림픽

헬싱키 대회를 다녀와서 국내에 ISI대회를 홍보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매우 중요한 회의이고 큰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ISI대회를 아는 사람이 없다. 또 '국제통계대회'라고 하면 많은 국제회의중의 하나인가 보다 하는 정도로밖에 인식되어지지 않는다. 내가 막상 헬싱키 대회에 가보니 이것은 올림픽이나 마찬가지로였다. 다만 분야만 다를 뿐 전 세계에서 참가한다. 또 운동경기처럼 금메달, 은메달 하면서 등수를 매기는 것이 없을 뿐 경쟁적이지는 마찬가지였다. 자기 논문을 발표하면 토론자나 참석자들이 질문하고 비평한다. 새로운 내용의 논문도 많이 나온다. 또 통계인들의 페스티벌 같은 성격도 있었다. 통계인들끼리 상호 교제도 하고 정보도 교환하며 협력관계도 만들어 간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통계올림픽'이라고 명명하였다. 일반인들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대회를 통계올림픽이라고 명명한 것이다. 마침 서울경제신문에서 기고 요청도 있고 해서 ISI 서울대회에 관하여 글을 쓰면서 정식으로 '통계올림픽'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이

하 서울경제신문 1999년 9월 17일자에 실린 '한국에서 열리는 통계올림픽'이라는 글을 전재한다.

통계올림픽이 있다. 전세계 통계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통계에 관한 이론·실무적인 문제와 향후 발전을 논의하는 자리로 공식명칭은 국제통계대회(ISI)이다. 이 대회는 1885년 영국 런던에서 창설됐다. 국가통계간에 통일된 기준설정과 국제비교성 제고, 통계이론 및 통계기법의 발전을 위해 창설됐다. 1887년 로마에서 창립대회가 열렸으니 금년으로 112년의 역사를 지닌 대회이다.

전세계 체육인들의 잔치인 근대올림픽이 1896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첫 대회가 열렸으니 통계올림픽인 국제통계대회는 이보다 9년이나 먼저 시작된 역사 깊은 대회라 하겠다.

이 대회가 통계올림픽이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2,000여명 정도의 전세계 통계인들이 대거 참석해 통계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발표와 열띤 토론을 벌이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통계학 교수 등 통계학자뿐만 아니라 각국의 통계청장을 비롯한 정부 통계관계자, 여론조사기관과 같은 민간업계의 통계분야 종사자들까지 모두 모여서 분야별로 통계의 제반 문제점을 놓고 발표와 토론을 벌인다.

새로운 이론이나 새로운 기법도 발표되고 기존의 이론이나 기법에 대한 비판이나 개선방안도 논의된다. 또 그동안의 우수 논문발표자나 국제통계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사람에 대해서는 포상도 실시한다.

이 국제통계대회가 2001년 서울에서 열리게 됐다. 지난 8월 10일부터 18일까지 핀란드 수도 헬싱키에서 열린 제52차 대회에서 내려진 결정이다. 2001년 8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 서울의 코엑스(COEX)에서 열린다.

국제통계대회가 서울에서 열리게 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가 깊다.

첫째로 새로운 세기,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벽두에 열린다는 점이다. 새로운 세기에 우리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평화, 번영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통계는 이러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이룩하는 데 기초가 될 것이다. 이러한 가치를 추구, 실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도록 통계분야에서 새로운 기법도 발전돼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새 밀레니엄은 새로운 통계로 시작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우리의 통계수준과 역량을 세계 통계인들이 널리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를 가진다. 동시에 우리나라의 통계역사와 수준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서구 선진국에 비해 우리는 통계작성 역사도 짧고 통계기관의 위상도 약하지만 우리의 것을 세계인들에게 널리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한다.

셋째로 선진통계기법과 이론을 도입, 활용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국내 통계학자뿐만 아니라 경제학자, 사회학자, 기타

이용자들의 입장에서 이 대회에 참가해 많은 새로운 정보와 이론을 흡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한 예로 지난번 헬싱키대회에서는 통계이론과 컴퓨터를 이용한 데이터마이닝(Data Mining)기법에 대한 열띤 토론이 있었고 이것은 통계학 뿐만 아니라 인접 사회과학의 발전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넷째로 참가자 및 관광객 유치를 통한 경제적 효과가 막대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 대회는 내외국인들을 합해 약 2,000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이 뿌리고 가는 외화만도 2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곁들여 한국문화와 역사, 한국상품 등에 대한 홍보효과도 엄청나리라 생각된다.

2001년 서울 국제통계대회를 앞두고 통계청은 16일부터 18일까지 대전에서 국제통계포럼을 마련하고 있다. 이 포럼에는 아시아권의 저명한 통계학자, 통계청장 그리고 정부 통계인들이 참석하고 있다. 인구주택총조사 문제, 시장경제전환국가들에 있어서의 통계교육문제 그리고 아시아권 국가들 사이의 관·학을 포함한 통계인들의 상호협력방안이 논의된다. 2000년에는 센서스를 각 국가들이 시행해야 하니 상호 좋은 의견교환들이 있을 것이다.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북한의 통계자료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시장경제전환국가들의 통계적 처리 및 기법에 대한 논의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리라 본다. 또한 통계환경과 기준이 문화권별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아시아권 통계 학자와 정부통계인들이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이것이 진전되면 아시아권에서 새로운 협력체의 구성도 시도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것이 또한 2001년 서울 국제통계대회에서의 중요한 주제가 될 것이다.

이후에 ISI대회를 우리말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처음에는 '국제통계기구대회'라고 불렀고 후에 다시 '국제통계대회'라고 불렀다. 이 대회의 공식적인 영문 명칭은 'International Statistical Institute Seoul Session' 이니까 영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국제통계기구 서울대회'가 된다. 그러나 이것은 어감이 딱딱하고 일반인들의 감각에 빨리 와 닿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신문 기고에서 '국제통계대회'라고 했다. 그런데 후에 남국장이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국제대회라면 두 세나라만 모여도 국제대회인데 국제통계대회라고 하면 그저 몇 나라가 모여서 무슨 회의하는 것쯤으로 알 것이 아닌가? 우리 대회는 전 세계에서 모이지 않는가? 그러니 이름을 '세계통계대회'라고 하면 어떻겠는가? 가만 생각해보니 그것도 일리가 있었다. 우리 대회야말로 전 세계에서 모여드는데 국제통계대회보다는 세계통계대회라는 이름이 더 합당하였다. 그래서 ISI대회를 우리말로는 '세계통계대회'로 통일시키기로 했다.

6) 한국이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서울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한다. 우선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여는 대회이고 우리는 선진국과 선진국 사이에서 개최한다. 우리 앞이 핀란드 헬싱키대회였고 우리 다음이 독일 베를린대회이다. 헬싱키대회는 이미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를 받았고 우리 다음인 독일 사람들은 또 얼마나 철저한가? 그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 통계인들을 초청해 놓고 대회를 잘 치르지 못하면 얼마나 망신스러운가? 안 그래도 IMF 외환위기를 당해서 세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데 이런 국제대회를 잘 못 치르면 세계통계인들 사이에서 얼마나 우스갯거리가 될까? 생각할수록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온다.

그런데 ISI 회장단이 한국의 준비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1999년 1월 17일부터 20일까지 방한하였다. ISI 회장단으로 Mr. Van Zwet 현회장, Jean-Louis Bodin 차기 회장, Mr. Marcel Van den Broecke 사무국장, Mr. Daniel Berze 사무부국장이 왔다. 우리들은 대회준비상황을 브리핑했고 여러 가지를 논의도 했다. 다만 대회장소인 COEX가 신축중이어서 실물을 보는 대신 도면만 보아야 했다. 대전의 통계청 청사도 방문했다 이들은 우리의 준비상황을 돌아보고는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모습이였다. 그런데 우리의 대회운영능력에 대해서는 자신이 안 섰던 모양이다. 당시 ISI 회장 Dr. Van Zwet과 차기회장 Mr. Bodin이 어느 사석에서 자기들끼리 지나가는 말로 서울대회를 걱정하였다고 한다. “한국이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만약 한국이 ISI대회를 제대로 치르지 못하면 우리들 입장이 곤란한데...” 이들에겐 동양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던 모양이다. 1995년 북경대회가 상당히 기대에 어긋나 세계통계인들 사이에서는 항상 입에 오르내린다. 한국도 중국과 비슷



ISI 회장단 방한사(1999.1.18) 앞줄 좌로부터 허문열 교수, 이재창 교수, 보딩 ISI 차기 회장, 필자, 반주윗 ISI 회장, 브로크 사무국장, 버즈사무부국장, 함만준 통계협회장, 뒷 줄 좌로부터 권춘경씨, 이정진 교수, 남번 국장, 이태림 교수, 정인숙사무관, 최봉호과장.

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긴 것이다. 또 ISI에 한국은 비교적 낯선 얼굴이다. 그 동안 개인적 차원에서 적극 참여하기도 하였지만 역시 한국은 그들에겐 미지의 나라였던 것이다. 이러니 그들도 은근히 걱정이 되는 모양이었다. 1991년도 이집트 카이로대회가 준비 부족으로 기대에 못 미쳤고 1995년도 중국 북경대회가 그랬고 1997년도 터키 이스탄불 대회가 그랬었다는 경험이 있었다. 그러니 이들에게는 한국이 은근히 걱정되었던 모양이다.

후에 그 말을 전해들으니 나도 은근히 걱정되기도 했지만 약간 기분도 상했다. 아무렴 88올림픽도 성공적으로 치른 한국인데 이 까짓 ISI대회 하나를 제대로 못 해낼까? 이 친구들 관한 걱정들을

하고 있구만. 반 주윗 회장, 보탱 회장, 쓸데없는 걱정들 하고 있구만. 아 이까짓 ISI대회 하나 제대로 못하겠소? 성공적인 대회로 만들 테니까 걱정들 마시오.

7) 저 사람들로 ISI대회를 잘 해낼 수 있을까?



제주통계품질세미나 참석자(2000.12.8.)

ISI를 준비하면서 국제과가 걱정되기 시작했다. 과연 10여명에 불과한 적은 인력으로 ISI를 잘 해낼 수 있을까? 인력도 인력이지만 국제회의 주최 경험들이 별로 없지 않은가? 대회진행을 PCO인 인터컴에서 맡아

해 나간다고 하지만 그들은 정해준 대로 진행하는 것이고 대회를 기획하고 총괄하고 운영하는 것은 국제과가 해야 하지 아니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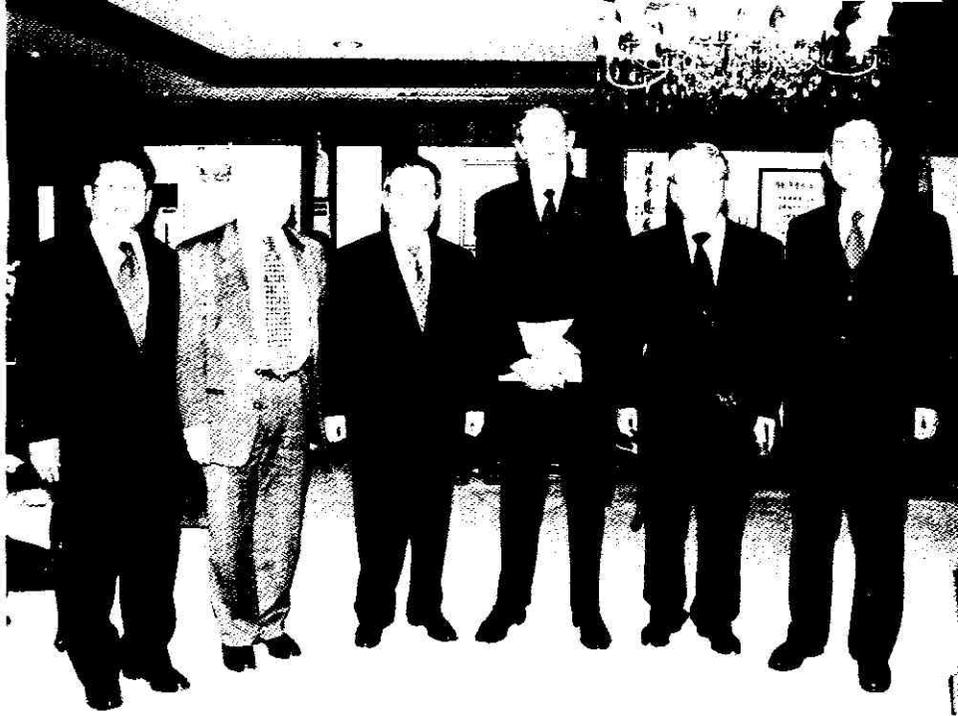
나는 이들의 경험축적을 겸해서 소규모 국제회의를 열기로 했다. 1999년 9월 국제통계포럼을 대전에서 열었다. 통계학자와 정부관계자들이 모이는 소규모 포럼이었다. 남북통일에 대비한 통계

통합도 문제였기 때문에 북한통계에 대한 주제도 넣고 아시아통계 포럼(ASF)을 구성하기 위한 의제도 넣었다. 싱가포르 통계청장 Paul Cheung, SIAP의 Lau, ESCAP의 Andrew Flatt도 참가했다. 이 조그만 대회로 국제대회를 운영하는 경험을 쌓아가기 시작했다.

2000년에도 조그만 세미나를 하나 열었다. 통계품질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주제로 했다. 2000년 3월 UNSC회의에서 싱가포르청장 Paul Cheung과 통계품질세미나 얘기를 했더니 그는 IMF의 Carol Carson 통계국장을 만나보란다. IMF도 통계품질 문제에 관심이 많다는 것이다. Carol Carson 국장을 만나 우리 계획을 설명하고 IMF가 공동 개최할 의향이 없는지를 물었다. 그녀는 기본적으로 좋다고 대답했다. 자기가 사무실로 돌아가서 예산 사정 등을 검토해보고 답변을 주겠다고 했다. Carol은 그 다음 날 바로 답변을 주었다. 공동으로 세미나를 열자는 것이다. 그래서 2000년 12월에 제주 통계품질 세미나를 열었다. 비용은 IMF와 한국이 반반씩 부담하기로 했다. 이 회의에 많은 고위급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영국의 Tim Holt 청장, UNSC의 Willem de Vries 부국장, 홍콩의 Fred Ho 청장, 싱가포르의 Paul Cheung 청장, 뉴질랜드의 John Cornish 국장, ECE의 Paolo Garonna 국장, 영국의 Linacre 여사, 스위스의 Bruengger 국장 등 약 20여명이 모였다. 나중에 이들이 모두 ISI대회를 추진하는 데 음으로 양으로 힘이 돼 주었다. 그들과 나 사이에는 우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친구(Friendship) 관계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친구 관계가 서울 ISI대회를 성공으로 이끄는 한 요인이 되었다.

국제과는 이 세미나를 열심히 준비했다. 결론적으로 이 세미나는 매우 성공적으로 끝났다. IMF의 Carol Carson 국장은 한국통계청과 처음 일을 같이 해보았지만 한국의 신속하고 매끈한 업무 처리에 매료되었다. 그 대회에 참석했던 모든 전문가들이 한국이 ISI대회를 잘 해낼 것이라는 데 대해 믿어 의심치 않았다. 작은 규모의 세미나였지만 짜임새 있고 알차게 잘 해냈다. 국제과뿐만 아니라 타 과에서도 영어를 잘 하는 사람들을 차출하여 일을 처리했다. 이 대회를 매끈하게 잘 소화해내는 것을 보고 나는 국제과가 어느 정도 안심되기 시작했다. 최봉호 과장을 위시한 국제과 직원들이 ISI도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다.

국제과 인력이 모자라서 충원을 좀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과 사정도 만만치 않아서 고민이었다. 집행위원장이신 남변 국장도 인력 때문에 고민하였다. 결국은 기획국 내에서 몇 명을 차출, 파견하기로 하였다. 기획과에서 김태준, 조정과에서 김정섭씨가 파견되었다. 후에 그들은 자기 소속과가 아니면서도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열심히 일해주었다. 그리고 대회운영요원은 청 전체에서 별도로 뽑아 운영하기로 하였다. 영어가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60명 정도 뽑았다. 이들도 모두 너무 열심히 일을 해주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없었으면 대회가 성공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한다.



ISI 회장단의 김종필 국무총리 예방

3. 서울대회의 준비

1) ISI 회장단의 방한과 총리 예방

1999년 1월 ISI 회장단이 방한하여 총리를 예방하고자 한다. 총리 예방? 아니 ISI 회장단이 왜 총리까지 예방한단 말인가? 일국의 총리가 얼마나 바쁘신 분인데 예방을 하려한단 말인가? 꼭 그럴 필요가 있을까? 조직위원장인 나만 만나고 가면 되지 뭘 총리까지 예방하겠다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나나다를까 총리 비서실에서 예방이 꼭 필요한 것이냐면서 소극적 입장을 보인다. 최과장은 ISI 회장단이 꼭 총리를 예방



ISI 회장단의 이한동 국무총리 예방

해야 한다고 한다. 그것이 ISI의 관례라는 것이다. 총리 예방이 ISI대회에 대한 한국정부의 지원 입장을 확인하는 것도 되고 또 그들에 대한 예우도 되지만 우리가 일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절 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총리 예방을 추진하기로 하지.

당시 총리는 김종필 총리님이셨다. 총리 비서실장인 조건호 실 장에게 전화를 하여 ISI 대회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ISI 회장단들 이 방한하여 총리님을 예방하고 싶어하니까 시간을 좀 만들어 달 라고 하였다. 조건호 비서실장이 시간을 만들어 주어서 김종필 총 리님을 예방할 수 있었다. 김종필 총리님께서 한국정부는 ISI대회 에 대해 적극 지원할 것임을 회장단들에게 천명하셨고 이에 ISI 회

장단들은 매우 안도하는 듯했다. 김총리님께서서는 이들의 예방을 받으신 후 대통령님께도 ISI 회장단의 방한과 대회의 준비 상황을 보고 드렸다고 한다.

ISI 회장단이 2차로 방한한 것이 2000년 10월 4일부터 9일까지였다. 이 때도 총리 예방이 있었다. 당시에는 이한동 국무총리님이셨는데 이총리님께서서는 통계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다. 내가 사전에 ISI대회에 대한 사항을 총리께 보고 드리기도 했지만 이재창 교수님과와 개인적 친분관계, 자제분이 학부에서 통계학을 공부한 것 등으로 인해 통계청의 활동과 세계통계대회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셨다. ISI 회장단들에게 당연히 ISI대회에 대한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입장을 표명하셨다. 회장단들이 이 총리님께 깊은 감명을 받은 것은 물론이다. 이후 이총리님께서도 대통령님께 ISI대회 관련 사항을 보고 드렸다고 한다. 또한 ISI대회 명예위원장을 맡으셔서 이 대회를 적극 후원해주셨다. 이 총리님께서서는 ISI대회 개막식날 직접 참석해주셔서 축하까지 해주셨다.

2) 2,001명을 확보하라

이제는 던져진 주사위이다.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 우리는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 형편없는 나라로 평가되어져서는 안 된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선진국만큼 성공한 대회로 평가되어져야 한다. 이래서 나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했다. 질적인 면에서도 성공적이고 동시에 양적인 면에서도 성공적인 대회

로 만들자.

질적인 측면에서는 먼저 좋은 논문들이 많이 발표되도록 해야 한다. 논문발표와 관련해서는 이재창 교수께서 Dr. Richard Gill 과 좋은 토픽들을 선정하고 있으니 걱정할 바 없었다. 다음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참가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노력하기에 달렸다. 질적인 면에서는 어느 정도 자신이 섰다.

그러나 양적인 측면은 그리 간단치가 않았다. 나는 2,001명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먼저 외국인 1,500명, 내국인 501명으로 목표를 설정했다. 외국인 1,500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웃 나라들에서 많이 참가해 주어야 한다. 일본이 약 500명, 중국이 약 300명, 미국이 약 300명, 유럽이 약 300명, 기타 국가에서 약 100명을 잡으면 1,500명이 확보될 수 있다. 이렇게 윤곽을 잡고 참가독려에 나서기로 했다.

지역별로 각개 격파를 하기로 하였다. 우선 미국은 미국통계학회(ASA)가 제일 중요하니 이재창 교수로 하여금 출장 가서 참가를 독려토록 했다. 마침 이 교수는 유엔통계위원회와 연계하여 ISI 사무국과 서울대회 준비상황 협의를 위해 나와 함께 미국 출장을 가야 하기 때문에 이 때 미국통계학회(ASA) 관계자들을 면담토록 했다. 동시에 재미교수 안성극씨를 위시한 재미통계학 교수들을 활용하기도 하고 ASA 저널에 홍보용 광고도 실었다. 동시에 17,000여명의 ASA 회원들의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여 이메일 공세를 펼쳤다. 이러한 대회 준비 과정에서 김경태, 류종준, 김희중, 최한경, 서재호, 김부곤, 최갑락, 박원란, 전광우, 권정아씨를 비롯

한 국제과 직원들의 노
고가 매우 컸다.

3) 일본을 공략하라

2001년 3월 11일 UN
통계위원회에 다녀오면
서 일본을 들르기로 했
다. 아무래도 일본에서
많이 참가해야 한다. 우
선 일본은 경제적으로
넉넉한 나라이고 바로
이웃 한국에서 하니까
많이 참석해야 한다. 그
런데 일본 통계국에 파
견근무중인 윤여문 과장
을 통해서 수집한 정보
로는 그리 많은 사람이
참석할 것 같지 않다는
것이다. 이재창 교수, 최
봉호 과장, 정인숙 사무
관과 나는 귀국길에 일
본에 들렀다. 아키히코 이토 통계협회장이 통계학계, 통계협회 관



▲▲ 일본통계학회, 협회 대표들과 함께. 뒷줄 좌로부터 이토 통계협회장, 이노우에 전 통계국장, 곤도 연합회장, 다케우찌 교수, 필자, 수기야마 교수.

▲ 일본통계국 간부들과 함께. 앞줄 좌로부터 네기 통계센터소장, 필자, 구야마 통계국장.

계자들 10여명을 모아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이노우에 전 통계국장, 중앙대학의 다카카스 수기야마 학장, 메이지 가꾸인 대학의 케이 다케우찌교수, 일본통계연합회의 곤도 회장 등 일본의 쟁쟁한 통계학자들이 모였다. 이 자리에서 나는 일본 대표단의 대규모 참가 필요성을 역설했다. 핀란드 헬싱키대회의 성공 원인은 이웃 유럽국가에서 많이 참가했기 때문이라는 점, 한국과 가장 지근 거리에 있는 나라는 일본이라는 점, 아시아권에서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나라는 일본밖에 없으니 일본대표단이 많이 참가해야 한다는 점, 일본 젊은 학자들이나 학생들이 돈 적게 들고 ISI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는 점들을 역설했다. 그리고 그들의 자존심도 약간은 자극했다. 일본 통계인들의 능력을 이 기회에 가장 값싼 비용으로 전세계에 널리 알리라는 점을 역설했다. 모두 좋은 분들이었다. 그들은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래도 나는 농담반 진담반으로 일본에서 300명 이상은 보내주어야 한다고 췌기를 박았다.

다음날은 일본 문부성 산하의 수리통계연구소, 통계연구회를 방문하였고 일본통계국도 방문하여 적극 협조를 요청하였다. 일본 통계국 간부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같은 논리로 일본을 설득하였다. 그리고 아시아통계포럼에 대해 그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네기를 비롯한 일본 통계국 간부들은 경청하였다. 일본 구야마 신이치 통계국장은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는 내 스타일 때문에 약간 당황하는 듯 하였다. 그도 나처럼 원래 통계맨은 아니었던 모양이다. 통계에 깊은 관심이 적다는 인상을 받았다. 후에 그는 총무성의 인사국장으로 갔다. 일본학계는 이재창 교수가 적극 설득하였다. 중앙대학의 수기야마 학장을 비롯한 인맥을 통해 많은 설득을 하였

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으로 당초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던 일본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4) 중국을 설득하라

3월 초 UNSC회의 때 중국 대표를 만나서 서울대회에 중국 대표단을 몇 명 정도 보내겠느냐고 물었더니 자기들은 회의를 해서 30명 내지 40명 정도 보내기로 했다고 한다. 아니 그래가지고는 안되고 300명은 보내야 한다고 했다. 중국 대표들이 한국에 올 때 마다 300명은 보내라고 했더니 이 친구들은 중국식으로 부풀려서 농담 삼아 말하는 줄로 안 모양이다. 중국을 그냥 두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한번은 싱가포르 통계청장 Paul Cheung이 서울대회 준비상황을 물어 오길래 참가자 수가 적을 것 같아 고민이라고 했더니 중국이 많이 보내지 않겠느냐고 한다. 중국은 돈이 없어서 많이 못 보낼 것 같다고 했더니 그렇지 않단다. 중국이 최근에 국제회의에 많은 대표단을 파견하고 있으니 잘 설득해보란다.

아마도 중국은 돈 문제 때문에 많이 참석 못할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돈을 대주면서 까지 오라고 할 수는 없다. 고민스러웠다.

별도로 중국을 방문하기로 했다. 최봉호 과장을 대동하고 4월 25일부터 28일까지 중국, 홍콩에 갔다. 중국 주지신 통계국장은 작년 UN 통계회의 때 내가 오찬에 초청도 하고 해서 초면은 아니다. 주 국장은 우리 일행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펑 나이린 국제과



중국통계국 방문시 좌로부터 다섯번째부터 중국 통계국장 주지신, 필자(2001.4.25.)

장은 1995년 북경대회를 치러보아서 우리의 애로를 잘 안다.

나는 그들을 설득하기 시작했다. 1995년 북경대회 때 한국은 100여명의 대표단을 보냈다. 인구 4,600만명밖에 안되고 통계인구도 불과 몇 백명에 불과한 한국에서 북경 대회 때 100여명을 보낸 것은 굉장히 많이 보낸 것이다. 그것은 이웃 중국이 개최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중국이 우리를 도울 차례다. 인구수가 12억이고 성 단위만도 30여개가 넘는다. 일개 성이 웬만한 나라보다 더 크지 않느냐. 한 성에서 10명씩만 보내면 300명이다. 최소 300명은 보내줘야 하지 않느냐. 지난 1999년 헬싱키대회가 성공한 이유도 이웃 유럽국가들이 적극 참여했기 때문이다. 우리도 아시아인들끼리 서로 협력해야 하지 않느냐. 특히 한·중·일 삼국은 그야말로 이웃 사촌 아닌가. 통계분야야말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좋은 분야가 아닌가 하고 설득하였다. 그러면서도 중국이 경비지원을 요청하면 어쩌나 걱정하였다. 물론 경비지원을 요청하면 개발

도상국가로 간주하여 일부 지원하는 방안을 갖고는 있었다. 그러나 큰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기대할 일은 못되었다. 그러나 중국이 요구하는 것은 달랐다.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들의 경제력은 남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국제회의에 참가할 정도는 이미 넘어서 있었다. 중국 경제가 엄청나게 발전했다는 것을 10년만에 보는 북경 거리에서 이미 확인했다. 그들의 경제력이 막강해지고 있는 것이다.

잠깐 옆길로 새는 얘기지만 북경을 다녀온 소감을 말하고 싶다. 나는 정확하게 10년 전 1991년 5월에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1992년 8월에 정식 국교가 수교되었으니 미수교인 상태에서 중국을 방문했다. 당시에는 민간인에게는 중국이 비자를 내주어도 공무원에게는 비자를 내주지 않았다. 부득이 민간인 신분으로 위장해야 했다. 당시 나는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에서 제3협력국장을 하면서 북방국가 업무를 담당했다. 자연 중국과의 수교문제가 중요 관심 사항이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중국을 비밀리에 방문하게 되었다. 그 때 본 북경 거리와 10년 뒤인 지금 보는 북경 거리는 너무도 달랐다. 북경공항에서 차를 타고 시내로 들어가면서 나는 너무나 많은 변화를 보게 되었다. 10년 전에는 북경공항이 그다지 크지 않았는데 지금은 현대식 건물이 들어서 있고 규모도 매우 크다. 그 때는 북경 거리에 자전거가 더 많았는데 지금은 자동차가 더 많다. 그 때는 높은 현대식 빌딩들이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현대식 고층건물들이 많이 들어서 있다. 그때는 북경 거리가 정돈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도로가 깨끗이 정돈돼 있다. 그 때는 사람들 복장이 인민복이었는데 지금은 대부분 양복들이다. 그 때는

웃 색깔도 검은색 계열의 우중충한 색깔들이었는데 지금은 밝은 색깔들이다. 그 때는 사람들 얼굴에 웃음기나 기쁨기가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얼굴이 밝아졌고 기쁨기도 흐른다. 좌우지간 상전벽해가 된 느낌이었다. 아! 중국은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착잡했다.

그들은 전혀 다른 요구를 했다. ① 중국어 동시통역을 해달라. 중국 사람들은 영어가 잘 안되기 때문에 외교부에서 관광가는 줄로 생각하고 허가를 잘 안 내준다. 만약 중국어 동시통역을 해준다면 외교부에서도 관광이 아니라 일하러 가는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허가를 내줄 것이다. ② 중국 외교부에 ISI대회의 중요성을 이해시켜 달라. 그들은 ISI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허가를 잘 안 내주기 때문이다. ③ 한국에서 비자 발급을 잘 해달라. 한국정부가 비자 발급을 잘 안 해주어서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아마 몇 백명이 비자 신청을 하면 한국대사관에서 비자를 잘 안 내줄 것이다. ④ 사전등록이 5월말 마감인데 그것을 특별히 연장을 해달라. 이제부터 독려를 하더라도 5월말까지 정부 허가 얻고 조치 취하기는 너무 늦다. 이런 조치만 취해진다면 중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가할 것이다.

나는 좋다고 했다. ① 동시통역은 해주겠다. 그러나 모든 세션에서 할 수는 없지만 개막식 등 중요 세션에는 해주겠다. 단 동시통역사는 중국이 데리고 와라. 한국에서는 중국어 동시통역을 할 만한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 한국은 시설과 장비를 제공하겠다. ② 중국 외교부를 이해시키도록 노력하겠다. 주중 한국대사관을 통해서 외교부를 이해시키도록 노력하고, 동시에 주한 중국대사를 방

문해서 외교부를 이해시키도록 하겠다. ③ 비자발급문제는 주중 한국대사관에 협조를 요청하겠다. 중국정부의 허가서만 있으면 비자를 발급토록 조치하겠다. ④ 사전등록기간을 특별히 연장해 주겠다. 중국측에 불편이 안 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모두가 노력하면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다. 주국장은 지방성 통계관계자들과 통계학 교수들을 불러 모았다. 이들에게도 같은 논리로 설명을 했더니 그들의 주문도 통계국의 주문과 동일했다. 해결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랬더니 산둥성 대표가 그 문제만 해결해 준다면 산둥성에서만 100명을 보낼 수도 있다고 한다. 내가 얼른 받아서 “인천에서 닭이 울면 위해, 청도, 대련 등 산둥성에서 다 들린다고 한다. 그만큼 가깝다. 그러니 이웃집 나들이 오듯이 꼭 100명을 데리고 오라”고 했더니 꼭 100명을 데리고 간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정도로 일을 쉽게 할 수 있다는 말이라고 한다. 모두가 와— 하고 웃었다. 나는 중국어를 모른다. 그들은 영어가 서툴러서 정운양씨(조선족)가 통역을 해주었다. 정운양씨는 조선족으로서 중국 통계국에서 농업통계를 담당하고 있다. 조선족이라 우리말을 잘 이해하고 있어 통역을 매우 잘 하였다. 중국을 방문하기를 잘했다. 아마 중국에서 100명 이상을 보낼 것이다.

나는 홍콩으로 날아갔다. 홍콩청장 Fred Ho와는 서로 잘 아는 사이이다. 그는 우리를 극진히 환대했다. 홍콩에서는 재미중국인 통계학자 회의를 서울대회 직전에 열어서 그들이 바로 서울로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했다. Web site도 우리 ISI 서울대회 Web site와 연결해 놓아 쉽게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해주었다. 뿐만 아니라 저



홍콩 통계청장 Dr. Fred Ho 및 직원들과 함께(2001.4.27.)

녁에 따오옌(桃源)이라는 식당에 홍콩대학교수들을 불러모았다. 나는 그들에게 서울 대회의 의미를 설명하고 홍콩과 서울은 2시간 거리이니 많이 참석해주시고 또 학생들도 많이 참가시키라고 했다. 학생들에게 ISI 관련 리포트를 제출하도록 해라. 학생들에게는 등록비가 감면되니까 큰 부담이 안 된다 라고 설득을 했다. 그들은 한국 통계청장이 직접 와서 ISI대회를 설명하고 참가를 요청하니까 약간은 신기한 모양이다. 화기애애한 가운데 그들은 매우 진지하게 경청하였다. 홍콩도 방문하기를 잘한 것 같다.

5) 우다위(武大偉) 대사를 만나서

중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와서 나는 우리 외교통상부에 협조를 요청했다. 서울 ISI대회의 내용을 설명하고 주중대사관에서 중국

외교부에 ISI 참가를 위해 신청하는 사람들은 모두 허가해줄 것을 협조 요청하도록 했다. 마침 주중대사관 재무관으로 이두호 국장이 있어서 우리를 적극 도와주었다.

5월 16일 주한 중국대사 우다위(武大偉) 대사를 찾아가 그를 설득했다. “국가가 발전하려면 통계가 발전해야 한다. 중국 통계가 많이 발전했지만 세계조류를 파악하고 선진기법을 소화해야 한다. 그러려면 통계올림픽이라고 불리는 서울 ISI대회에 많이 참가해서 보고 배워야 한다. 또 중국에는 젊고 유능한 통계인들이 많다. 앞으로 그들이 세계 통계계에 큰 일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려면 이러한 대회에 많이 참가시켜서 훈련시켜야 한다. 만약 구라파나 다른 나라에서 열린다면 참가비용이 많이 든다. 그러나 한국에서 하니까 적은 비용으로 많은 사람들을 훈련을 시킬 수 있다. 더구나 중요 세션은 중국어로 동시통역한다. 얼마나 좋은 기회인가? 우리는 중국대회 때 어려운 가운데서도 100명을 보냈다. 이번에는 중국에서 300명은 보내줘야 한다. 중국 외교부에서는 각 성(省)이나 대학교수, 공무원들이 ISI대회 참가허가를 신청하거든 무조건 허가해주도록 보고를 해주어라. 그것이 중국을 위해서 투자하는 길이다. 내가 우대사를 찾아온 것도 중국 외교부에 이런 의미를 확실히 전달해서 외교부 허가신청이 안 나와서 못 오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설득했다. 그랬더니 우대사는 본국에 보고하여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300~400명은 모르겠으나 좌우지간 많이 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한다. 이로써 중국과의 약속은 지켜진 셈이다. 이젠 그들이 얼마나 참가하는지 두고볼 일이다.

6) 호주, 뉴질랜드도 잡아라

5월 25일부터 6월 2일까지 호주 브리즈번(Brisbane)에서 정보통신기술과 통계관련 국제회의가 열린다. 호주 통계청장 데니스 트레윈(Mr. Dennis Trewin)이 초청하였다. 나는 가기로 했다. 우선 한국이 IT 관련 통계에 있어서는 국제적으로 선두그룹에 있으니까 우리의 경험을 발표할 필요성도 있고 또 ISI 서울대회에 대한 홍보 활동도 할 필요가 있다. 구정회 과장, 김경태 서기관을 대동하고 호주로 갔다. 마침 싱가포르 청장 Paul Cheung도 참석하였다. 여기서도 2005년에 호주가 ISI 개최국이니 한국의 경험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논리로 서울대회에 많이 참가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다. 호주도 퀸스랜드(Queen's land) 사무실에 여러 사람들을 불러모았다. 그들에게 서울대회의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많이 참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호주는 학계와 정부가 우리처럼 긴밀한 것 같지는 않았다. Dennis Trewin 청장은 서울대회 홍보를 적극 지원하였다.

다음으로 김경태 서기관과 나는 뉴질랜드로 날아갔다. 뉴질랜드는 호주와 매우 밀접해서 호주 통계국의 국장출신 브라이언 핑크(Mr. Brian Pink)씨가 뉴질랜드 통계청장을 하고 있었다. 그와는 초면이었지만 Dennis가 사전에 연락을 하여서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또 존 코니쉬(Mr. John Cornish) 국장은 제주 통계품질 세미나에 참석한 바 있어 그와는 구면이었다. 마침 우리 통계청에 근무했던 송순관씨가 뉴질랜드 통계청에 근무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고 ISI대회에 관한 얘기를 경청



호주 Brisbane에서의 IT&T 회의 참석자들과 함께(2001.5.29.). 앞줄 우로부터 5번째가 필자, 다음이 호주 청장 Dennis Trewin, 그 다음이 싱가포르 청장 Paul Cheung.

해 주었다. 6월 1일에는 Victory 대학교에 가서 설명회를 가졌다. 청중은 교수들과 통계학과 학생들이었다. 그들도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 방문을 한 결과 ISI 서울대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뉴질랜드 통계청에서도 적극 도와주었다.

뉴질랜드 대사이신 문봉주 대사께서 오찬 초청을 하셨다. 나는 국외출장을 갈 경우 대사관이 꼭 끼이지 않아도 되는 사안이면 가끔씩 현지대사관의 신세를 안 지려고 노력한다. 대사관에 연락도 안 한다. 대사관의 경우 본국에서 오신 손님들 뒤치다꺼리하느라 본업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사관에 안 들리고 지나가고 나면 나중에야 대사관에 들르지 않는다는 항의(?)를 받곤 하였다. 이번에도 뉴질랜드 대사관에 일체 연락을 안 하고 뉴질랜드 통계청과 직접 연락을 했는데 문 대사께서 어떻게 알고 연락을 주셨다.



뉴질랜드 통계청 방문(2001.5.31.)
뒷줄 오른쪽 두번째가 필자, 중앙이 뉴질랜드청장 Mr. Brian Pink.

대사관저에서 오찬을 같이 하면서 여러 얘기를 하는 중에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다. 문 대사께서는 통계분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어느 국제 세미나에서 아주 인상적인 얘기를 들어 한국통계청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졌다고 한다. 문 대사의 설명에 의하면 홍콩의 어느 영국 언론인 출신 컨설턴트가 한국통계를 인용하여 한국의 인구구조와 변동상황, 구매력의 변화 등을 분석하면서 향후 완구산업의 전망에 대해서 발표하더라는 것이다. 그의 발표가 하도 인상적이어서 세미나가 끝난 후 그를 만나 당신은 한국에 살지도 않으면서 한국사회를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분석하느냐고 물으니 자기는 한국통계청의 통계자료를 잘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답변하더라는 것이다. 한국통계청의 통계자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니까 자기는 한국통계청 자료를 매우 신뢰하고 있고 최근에 좋은 자료들이 많이 발표되어 더욱 좋다고 하면서 한국통계청에 대해 많은 칭찬을 하더라는 것이다. 문대사

께서는 한국통계의 수준에 대해서 사실 잘 몰랐는데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한국통계청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했다는 것이다. 마침 통계청장께서 오셨으니까 그 얘기가 생각난다면서 들려주셨다. 인상적이었다. 물론 과거에 통계신뢰성에 대해서 논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근년에 들어 통계의 신뢰성이 크게 향상된 것도 또한 사실이다. 또 공표 되는 통계도 매우 다양해졌다. 1998년 3월 말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가 35종이었는데 2001년 말 현재 55종이나 된다. 그 사이 20종이나 늘어난 것이다. 이것은 새로운 수요를 반영하여 통계를 적극 개발한 때문이다. 문 대사의 얘기는 국제사회에서 한국통계청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는 하나의 작은 사례로 받아들이고 싶다. 우리가 세계통계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면 또한 외국의 인식이 크게 달라질 것이다. 이번 ISI대회를 성공적인 대회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한층 강해진다.

7) 외국인 1,000명을 넘어서면서

사전등록 마감이 5월 말이었지만 중국과의 약속 때문에 6월 10일까지로 연장했다. 사전등록이 저조하여 실무진들은 계속 스트레스를 받았다. 나는 2,001명을 확보하라고 조이고 등록자는 늘어나지 않고 답답한 상황이었다. 2,000여명의 참가자를 전제로 개막식장을 결정했는데 참가자가 적어 썰렁해서야 되겠는가? 참가자 확보를 조이지 않을 수 없었다. 시간은 가는데 참가자 숫자는 늘지 않고 답답해지자 외국인 목표를 하향 조정할 생각을 했다. 나중에

는 나도 실무진들에게 외국인 1,500명을 1,000명으로 하향 조정하고 대신 내국인을 500명에서 1,000명으로 상향 조정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외국인이 1,000명만 넘어서 주면 될 것 같았다.

7월 중순, 대회가 약 한 달을 남겨놓고 있다. 등록자가 계속 늘어나고는 있지만 얼마나 될까 숨죽이며 등록 프로그램을 들여다보고 있다. 7월 18일 100개 국가에서 1,645명이 등록했다. 외국인이 1,070명, 내국인이 575명이었다. 드디어 외국인 등록자가 1,000명을 넘어섰다. 최과장을 위시한 실무진들의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했다. 앞으로 외국인이 전체 몇 명 정도 등록할 것 같으냐고 하니 1,200~1,300명은 될 것 같다고 한다. 그렇다면 내국인 700~800명만 확보하면 2,001명은 넘어설 것 같았다. 나는 다음날 즉시 ISI 회장 Mr. Bodin에게 외국인 등록자가 1,000명을 넘어섰다고 이메일을 보냈다. 2,001명의 목표가 그다지 어렵지 않게 달성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도 우리 등록현황을 Web을 통해서 보고 있었다. 즉시 축하한다는 메시지가 날아왔다. 그러면서 한국통계청 직원들이 너무도 열심히 일한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사실 그들도 한국이 참가자 목표를 너무 과도하게 잡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 지난 3월 UN통계회의시 ISI 회장단에게 대회 진행상황을 설명하였다. 그 때 그들은 지금 상황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 무엇이냐고 묻기에 참가자 2,001명 목표달성이 상당히 어렵다고 했다. 그랬더니 영국의 Tim Holt는 나보고

이렇게 말했다.

“Don't you think your target is too ambitious?”

“I know my target is too ambitious but I think it's achievable.”

대답은 그렇게 했지만 내심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섰다. 논문도 800여 편을 예상했는데 이날 현재로 883편이 들어왔다. 참가자도, 논문도 당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들면서 직원들의 사기는 한층 고조되었다.

8) 노벨상 수상자 초청

이번 서울대회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2000년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의 초청특강이다. 2000년도 노벨 경제학상은 미국 버클리 대학의 다니엘 맥파든(Mr. Daniel McFadden) 교수와 시카고 대학의 제임스 헉크만(Mr. James Heckman) 교수가 받았다. 그런데 이 두 분은 ISI 회원은 아니지만 미국통계협회(ASA) 회원이라 통계학과 인연이 많았던 모양이다. 노벨상 수상자 발표가 있고 난 다음에 ISI 회장이던 보탱(Mr. Jean Louis Bodin)씨가 이들에게 편지를 냈다. ISI대회를 설명하고 2001년 8월에 서울에서 ISI대회를 하는데 와서 특강을 해줄 수 없겠느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둘 다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2001년 초에 보탱(Bodin)씨가 나에게 편지를 보냈다. McFadden 교수와 Heckman 교수가 서울대



▲▲ 2000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McFadden 박사와 함께(2000.8.26.)

▲ 2000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Heckman 박사와 함께(2000.8.27.)

회에 참가할 의사를 보였으니 한국이 직접 접촉해서 초청하란다.

처음에는 조금 의아해했다. 왜냐하면 노벨상을 수상하면 여기 저기서 특강 초청이 많이 들어온다. 웬만해서는 이들은 안 움직인다. 그런데 Bodin씨의 편지 한 장에, 그것도 한 명도 아닌 두 명 모두 한국에 오겠다니 얼른 수공이 안 갔다. 노벨상 수상자가 그냥 ISI대회에 온단 말인가? 그들이 ISI 회원인가 보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그것도 아니었다. Bodin씨의 친구가 그들과 잘 아는 사이여서 그 친구를 통해 운을 떼 다음

에 직접 편지를 띄워 보았더니 그들이 수락한 것이라고 한다. 어쨌든 Bodin씨의 섭외력이 탁월하다. 약간은 미심쩍어 하면서도 그들과 접촉해 보기로 했다. 정인숙 사무관이 이 일을 맡았다. 수 차례 이메일을 보냈으나 그들과 접촉이 원활치 않아 정사무관이 속

을 태웠다. 워낙 바쁜 분들이라 대학 사무실에 붙어 있지 아니하였다. 몇 가지 실무적인 문제들도 있고 해서 빨리 그들의 의견을 들어야 했다. 시간은 자꾸 가는데 그들의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그러던 것이 7월 중순 들어서면서 확실히 참가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그들이 온다는 것이 확정되고 나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마침 McFadden 교수의 제자들이 한국에 있었다. 서울대의 이지순 교수 등이었다. 또 Heckman 교수의 제자도 있었다. KDI의 최경수 박사 등이 있었다. 이 제자 분들이 두 분 수상자들을 한국에 계시는 동안 돌보기로 했다. McFadden 교수는 한국 은행과 서울대에서, Heckman 교수는 KDI와 고려대에서 특강도 하고 간담회도 갖는 등 다른 일정도 잡았다.

이들은 8월 27일(월) 오전 ISI 회장단과 함께 대통령을 예방하였고 오후에는 13:00~15:15까지 특강을 하였다. 그리고 기자회견도 하였다. 기자회견은 통역을 통해서 했다. 기자들 질문이 너무 한국문제에 국한되다 보니 한국에 정통하지 않은 이들의 답변이 원론적일 수밖에 없었다. 거기다 통역까지 부실하여 상호간에 의사전달이 잘못되어 소동을 부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 분들 덕분에 서울대회가 한층 더 빛이 났다. 과거 어느 대회에서도 노벨상 수상자가 특강을 한 예가 없었다. Bodin 회장의 노력에 감사한다. Bodin 회장도 후에 추진과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실토하였다.

9) 북한 중앙통계국장을 초청하려고...

나는 이번 대회에 북한 중앙통계국장을 초청하고 싶었다. 사전에 관계기관에 보고도 하고 동의도 얻었다. 그래서 기회만 닿으면 접촉을 시도했다. 북한 통계인사가 방콕 FAO회의에 참석한다는 정보를 듣고 우리 직원을 파견하여 접촉하게 했다. 두 번씩이나 그들이 참석한다는 국제회의에 대표단을 보내서 초청을 했으나 그들은 묵묵부답이었다. ISI 사무국에서 초청편지를 내기도 했으나 역시 묵묵부답이었다. UNDP를 통해서 초청을 했어도 역시 묵묵부답이었다. 내가 중국 방문시 중국 통계국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그들 역시 방법이 없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 있었으니 그들도 전보다는 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생각했으나 역시 허사였다.

북한 중앙통계국장을 초청하고 싶었던 것은 그들의 통계제도와 통계조사방법, 그리고 통계자료에 대한 현황을 알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들과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북한은 통계가 우리처럼 자료(Data) 수준이 아니라 정보(Intelligence) 수준이다. 그러므로 자료가 공개되지도 않아 북한의 실상을 아는 것이 무척 어렵다. 어느 날 갑자기 남북이 통일된다면 우선 가장 기초적인 통계부터 알아야 할 터인데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 독일의 경험을 보면 통독되었을 때 동독의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가 없어서 무척 애를 먹었다고 한다. 우리도 그럴지 모른다. 그런 면에서 보면 남북간의 통계협력이 매우 중요한데 현실적으로는 무척 어려운 문제이다. 이번 대회에서 다른 것은 계획대로 다 이루었지만 북한 중앙통계국장의 초청만은 이루지 못해

못내 아쉽다.

4. 통계올림픽이 열린다

1) 벵타이는 어디 갔어?

오늘은 8월 21일. D-100일 전광판을 단 것이 었그제 같은 데 벌써 D-1 일이다. 우리 청 운영요원들은 모두 대회장에서 각자 맡은 바 임무에 바빴다. 우리 청 직원들은 인터넷 카페의 준비, 홍보 부스준비, 외국인들 안내, 개막식장 준비 등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우리는 청 직원들

만으로는 인력이 부족하여 영어 시험을 거쳐서 깔끔한 대학생들을 운영요원으로 특별 채용했다. 이들에게는 공항에서의 안내에서부터 등록창구에서의 등록지원, 회의장에서의 안내등 다양한 임무가 주어졌다. 실로 이들의 하는 일들이 참가자들에게 서울대회의 인



원활한 회의 진행을 도와 준 그린셔츠들

상을 결정하는 일들인 셈이다. 그래서 뽑을 때도 신경을 많이 썼고 뽑고 나서도 이들을 교육시키는 데 신경을 많이 썼다. 나는 이들을 교육할 때 인사말에서 여러분들이 서울대회의 인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은 깔끔하고 단정하고 친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들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린 셔츠에 검색 넥타이를 매도록 했다. 셔츠도 바지 안으로 넣어 단정히 보이도록 했다.

21일 오후 5시경 등록상황을 알아볼 겸 등록장소로 갔다. 그런데 대학생 운영요원들이 시간이 끝났다고 막 귀가를 하는 중이었다. 그 모습들이 너무도 기가 막혔다. 그린 셔츠는 단추를 거의 다 풀어헤친 채로 너덜너덜하고, 단정하게 매라고 준 넥타이는 온데 간데 없고, 목에 걸도록 한 이름표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있더라도 마치 남이 보면 큰 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이름도 잘 보이지 않게 늘어뜨려 놓고... 이걸 운영요원이 아니라 마치 전쟁에서 폭격 맞고 도망가는 패잔병들의 후줄그레한 모습을 연상시켰다. 아니 이 친구들 운영요원들 교육시킬 때 복장에절교육도 안 시켰단 말인가? 등록장에서 막 나가는 일단의 여학생들을 붙잡고 물었다.

“넥타이는 어디 갔어요?”

“가방 속에 있는데요.”

“왜 가방 속에 있지요?”

“귀찮아서요.”

“셔츠 단추는 왜 다 풀어헤쳤어요?”

“더워서요”

“셔츠 깃의 단추는 왜 풀었어요?”

“? ? ?...”

이 학생들은 내가 누군지를 잘 모른다. 어떤 사람이길래 남의 복장 갖고 시비하나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러면서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훑 나가버린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대학생만 그런 패잔병 모습이 아니다. 우리 청 직원들도 모두 그런 패잔병 모습이다. 깨끗하거나 단정한 인상은 온데 간데 없고 시장 바닥에서 아무렇게나 옷을 입고 물건 지고 나르는 사람들 형상이다. 여기 책임자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손영태씨란다. 당장 불러오라 했다. 헐레벌떡 달려온 손영태씨도 똑같은 패잔병 모습이다. 화가 치밀어 올라 기합을 한방 넣었다.

“복장이 이개 뭐야?”

“? ? ? ?”

“복장예절교육도 안 받았어?”

“안 받았는데요.”

“이건 상식이잖아?”

“국제과에서 복장 고를 때 얼마나 고심을 했어? 모양하며 색상 하며 말이야. 그건 쉽게 알아보고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한 것이었잖아. 그런데 그 좋은 복장을 갖고 왜 이렇게 패잔병처럼 만들어 놓았단 말이야? 응?”

“당장 전 직원뿐만 아니라 운영요원들에게도 복장예절 교육을 시켜. 깨끗하고 단정한 모습을 보이란 말이야. 셔츠 단추는 다 잠 그고 넥타이는 반드시 매고 셔츠는 바지 속으로 넣고 이름표는 가슴 중앙에 오도록 달고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줄을 조이고

말이야. 알았지?”

손영태씨가 날벼락을 맞았다.

그런데 여기가 이 모양이면 공항 영접팀도 똑같은 것 아닌가? 공항 책임자를 전화로 불렀다. 오삼규 서기관이었다. 거기는 복장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니까 예상대로 여기하고 똑같다. 아차 싶었다. 저기가 첫인상을 지어주는 관문인데 복장이 저 모양이라니, 또 호령을 쳤다. 당장 복장 교육을 시켜서 깨끗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바꾸라고. 누군가 세심하게 챙겼어야 하는데 모두들 바쁘니까 놓친 것이다. 내가 지침을 미리 줄걸. 그 정도는 상식인데... 하는 아쉬움과 함께 후회가 되었다.

그 다음 날 아침에 나가 보니 모두들 복장이 잘 정돈되어 있었다. 단정하고 깨끗한 모습이었다. 그 후로 그런 가이드(green guider)들은 정말 깨끗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참가자들을 친절하게 안내했다. 대회를 마치고 떠나는 외국인들이 칭찬하는 말 중에 그런 가이드(green guider)에 대한 감사가 있었다. 그들은 정말 단정하고 친절하여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초록 셔츠(green shirts)들에 감사한다.

2) 새천년의 태동

개막식날 상영할 8분짜리 한국 홍보용 영화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한국 홍보용 영화를 만드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관광공사의 영화들은 관광홍보용이라 우리 대회와는 잘 안 맞는

다. 결국 전문업체를 선정하기로 했다. 허쉬 엔터테인먼트(Hershey Entertainment)라는 회사가 선정되었다. 우선 전달하는 메시지가 중요하다. 한국을 잘 모르는 외국인들이 대부분일 테니까 한국의 역사, 문화, 자연, 사람들을 알게 하고, IMF로 인해 훼손된 한국의 이미지를 바로 잡아주고, 또 한국의 통계역사, 통계 활동에 대해서도 알리는 것을 골자로 삼았다. 사실 짧은 시간에 이 많은 메시지를 거부감 안 느끼게 전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통계 얘기가 들어가면 더욱 딱딱해진다. 또 청중이 영어로 듣기 때문에 한글로 대사를 아무리 미끈하게 만들어봐도 아무 소용이 없다. 영어로 미끈하게 만들어야 한다. 정인숙 사무관을 위시한 실무팀들이 영어대사를 다듬고 정리하느라 고생했다.

다음으로 화면 그림이 문제다. 그것은 감독의 몫이다. 다행히도 감독은 외국에서 영화공부를 하고 온 젊은 감독이다. 영화인 변창호 감독의 자제분이 대를 이어 영화인이 되었다. 그가 바로 변정욱 감독이다. 그는 우리 직원들로부터 청장이 요구하는 수준이 높다는 사실을 이미 익히 들었던 터이라 나름대로 고심을 한 모양이었다. 나 또한 그의 능력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다소간 불안감도 있었다. 대본을 놓고 변 감독과 우리는 5월 21일 검토회의를 가졌다. 그는 감성이 예민하여 내가 무엇을 주문하는지 금방 파악하였다. 그리고는 최선을 다해 잘 만들겠다고 했다.

그로부터 약 두 달 뒤인 7월 21일 1차 시사회를 했다. 남번 국장, 최봉호 과장을 위시한 국제과 직원들, 홍익대 김덕룡 교수, 이재창 교수, 최태영 인터컴 사장을 위시한 인터컴 관계자 등이 시사회에 참석했다. 우리의 역사, 문화, 자연, 사람들을 매우 밝고 역동

적으로 표현했다. 수준급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헬싱키 때도 그랬던 것처럼 지적사항들이 많이 나왔다. 사실 비전문가들이 앉아서 전문가가 만들어 놓은 작품을 보고 이러쿵저러쿵 비평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고 웃기는 일이다. 그러나 그러한 지적사항들이 보완되고 나니 훨씬 좋은 작품이 되었다. 2차, 3차 시사회를 거치면서 수정되고 보완되어 탄생한 것이 「새천년의 태동(Korea Embracing the New Millenium)」이다. 8분짜리의 이 짧은 영화는 한국을 잘 모르던 참석자들에게 한국을 잘 알려 주었고 많은 참석자들을 감동시켰다.

3) Let us begin the New Century with the New Statistics

8월 22일 오후 4시 드디어 개막식이다. 최태영 사장을 위시한 인터넷 관계자들이 전날 저녁 밤을 새다시피 하면서 준비를 했는데도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국제대회를 하나 한다는 것이 정말 힘든 일들이 많았다. 4시가 다 되어 가는데도 최태영 사장은 리허설을 하고 있었고 권영돈 부장, 임연주 과장 등은 분주히 움직였다. 아직도 뭔가 정리가 덜 된 듯했다. 이 친구들이 개막식 때 정말 실수 없이 잘 해낼까? 은근히 걱정도 되었다.

오후 4시 정각, 역사적인 제53차 ISI 서울대회가 막을 올렸다. 대북 타고로 대회는 시작되었다. 한경림 사회자의 유창한 영어로 대회는 막을 올렸다. 국가조직위원장으로서는 나는 개회사를 했다.



서울세계통계대회 개최시 운영대 조직위원장의 개회사(2001.8.22.)

나는 21세기의 초입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여러 가지로 역사적 의미가 깊다는 점을 얘기하고, 우리 통계인들은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통계를 개발하고,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방법으로 조사하고, 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도록 새로운 방법으로 통계를 제공하자고 하였다. 한마디로 Let us begin the New Century with the New Statistics 라고 주창하였다.

당초 대통령님께서 직접 참석하실 예정이었으나 마침 베트남 국가주석 방문으로 인해 아쉽지만 직접 참석은 못하시고 영상 축사를 보내주셨다. 특히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통계가 매우 중요하고 근간이 된다는 대통령님의 말씀에 참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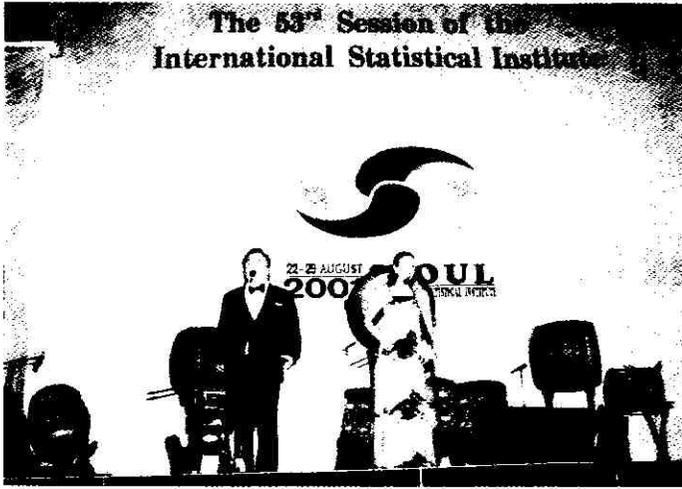
자들은 많은 박수를 보냈고 감동을 받았다. Jean-Louis Bodin ISI 회장의 축사에 이어 이한동 국무총리님께서 축사를 해주셔서 대회를 더욱 빛내주셨다. 이한동 국무총리님께서서는 본대회 명예위원장 맡으셔서 그동안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셨다. 진념 부총리님께서도 평소 통계에 대한 지대한 관심으로 ISI대회를 적극 성원해 주셨다. 특히 진념 장관님은 기조연설에서 명언을 하셨다. "The old saying has it that pen is mightier than the sword. Well I propose a variation-Statistics is mightier than words. Well-placed statistics are far more persuasive than any lengthy report". 즉 "펜은 칼보다 강하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통계는 말보다 강하다고 바꾸어 말하고 싶습니다. 긴 보고서보다 잘 정리된 통계가 훨씬 더 설득력이 있기 때문입니다."라는 말이다. 멋진 말이었다. 정책결정자들은 긴 수식어보다는 간단한 통계를 읽고 판단한다. 그러니 하나의 통계는 백 마디 말보다도 낫다는 말씀이다. 개막식에서 대통령님, 국무총리님, 부총리님의 축사가 이어지자 참석자들은 ISI에 대한 한국정부의 깊은 관심에 많은 감명을 받은 모습들이었다. 두 분의 외교적 일정 관계로 축사 진행순서가 당초보다 앞당겨지는 바람에 시간 맞추기에 힘이 들었고 대회진행순서가 다소 틀어지는 바람에 실무진들이 고생을 했지만 총리님, 부총리님의 축사로 대회는 매우 빛났었다.

후에 이한동 총리님을 뵈고 참가, 격려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렸다. "아— ISI대회 대단했어요.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정말 수고하셨어요. 대단한 대회를 성공적으로 잘 치루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나는 분에 넘

치는 찬사를 총리님으로부터 들었다. 이 모든 것이 LPC위원장, Task Force 팀들, 인터컴을 비롯한 관계자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흘린 땀과 노력의 결실이다.

4) 감동을 받아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헬싱키대회가 약간 지루하고 밋밋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서울대회는 좀 더 재미있고 축제 같은 분위기이면서도 예술적이고 문화적으로 격조 높은 대회로 만들 것을 요구했다. 개막식, 환영리셉션, VIP초청만찬, 우정만찬(Friendship dinner), 관광, 한국의 밤(Korean night), 환송파티 등 모든 행사를 짜임새 있게, 한국문화를 잘 알릴 수 있게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요구했다. 매우 힘든 요구였으나 최태영 인터컴 사장께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상당부분 잘 소화해 냈다. 개막식은 식전행사로 8분짜리 영화 「새천년의 태동」을 상영하고 본 행사는 대북 타고로 시작을 알리고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서막을 올리고 축사 사이사이에 성악을 넣어 지루하지 않게 하고 무용공연으로 마무리하기로 했다. 성악은 한국예술대학의 임용균 교수와 전효신 교수가 출연하기로 했고 공연은 김중자 무용단의 '합(合)'이라는 공연으로 마무리 짓기로 했다. 욕심으로는 조수미나 김영옥을 불러오고 싶었으나 그들의 일정이 잡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비용도 만만치 않아 포기했다. 개막식 전날 챌리스트 장한나가 방한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출연요청을 섭외토록 했으나 장한나양의 바쁜 일정으로 성사되지 못했다. 또 통계



임웅균 교수와 전효신 교수의 개막식 공연

청 합창단을 무대에 세우려고 했으나 준비기간이 너무 짧아 포기했다. 오병태 과장, 안정임 서기관, 안병건 사무관, 신혜옥씨 등 합창단원들이 열심히 준비했으나 개막식 무대에 서지는 못했다. 나는 우리 합창단을 세계통계인들 앞에

내세워 한국통계청의 문화수준을 선보이고 싶었다. 그러나 워낙 준비기간이 짧아 포기했다.

축사가 끝나고 임웅균 교수와 전효신 교수의 노래가 이어졌다. 우리가곡 목련화(임웅균), Titanic 주제가(전효신), Love is many splended thing(임웅균), 그리고 Brindisi(임웅균, 전효신)를 불렀다. 전효신교수의 아름다운 소프라노에 청중들은 넋을 잃었고 임웅균 교수의 힘차고 박진감 넘치는 테너에 청중들은 감동했다. 임교수의 목소리가 얼마나 우렁차고 힘이 있던지 그 넓은 개막식장이 모두가 떨리는 것 같았다. 마지막 축배의 노래(Brindisi)를 부를 때에 청중들의 감동은 절정에 달했다. “리비아 ~ 트릴리 모렐리아~” 하고 노래가 울려 퍼질 때 온 장내는 임 교수의 노래에 완전히 압도되었다. 임 교수는 쇼맨쉽도 뛰어나서 노

래 사이에 “Viva ISI”를 외치기도 했다. 청중들은 압도되고 전율하였다. 아마 일반 음악회 같았으면 앵콜 요청이 봇물처럼 쏟아졌을 텐데 음악회가 아니라서인지 모두들 가슴 벅찬 감동으로 우렁차게 박수만 치고 있었다.

김중자 무용단이 ‘합(合)’을 공연했다. 둥~둥~둥~ 북소리를 시작으로 큰북, 작은북 소리와 팽과리 소리가 무용수들의 현란한 춤과 울동에 어우러져 역동적이고 아름다운 장면을 만들어 나갔다. 정적인 한국의 고전무용이 아니라 발랄하고 역동적이며 진취적인 것이었다. 나는 우리나라를 ‘조용한 아침의 나라(the country of morning calm)’라고 부르는 것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정적인 나라로 생각되어지는 것이 싫다. 우리는 역동적이며 진취적인 기상을 갖고 있으므로 이를 나타내고 싶었다. ‘합(合)’은 이런 면에서 내가 생각하던 것과 방향이 같은 공연이었다. 북소리가 가슴을 울렸고 딱딱이 소리가 박자를 맞추며 흥을 돋우었고 울동이 생동감을 불러일으켰다. 모두들 공연에 넋을 빼앗겼다.

개막식이 끝났을 때 우렁찬 박수와 함께 여기



김중자 무용단의 ‘합(合)’ 공연

저기서 찬사가 터져 나왔다. Wonderful, Beautiful, Exciting, Fantastic, The best one in the ISI history 등등 갖가지 찬사가 쏟아져 나왔다. 일단 개막식은 성공적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흐뭇해했다. 많은 외국의 통계청장들이 리셉션 때 내게로 다가와 successful을 연발하면서 축하를 해주었다. 정말 다행이다. 역시 정성을 쏟은 만큼 평가를 받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리셉션 때 어느 신사 한 분이 나에게 다가왔다. 그는 개막식을 보면서 감동되어 눈물을 흘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ISI대회에 여러 번 참가해 봤지만 이런 ISI대회는 처음 본다는 것이다. 대통령님의 개막축사, 총리 축사, 부총리 축사 등 한국정부의 깊은 관심과 감미로우면서도 우렁찬 노래와 심금을 울리는 듯한 북소리 그리고 현란하고 역동적인 춤에 감동을 받아 눈물이 나오더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깊은 감동에 젖어 있는 모습이었다. 그는 자메이카 중앙은행에서 온 할살(Mr. Myrtle Halsall)씨였다. 그는 정말 감동 받은 모습으로 개막식의 성공적 완수를 축하해 주었다. 그의 이런 말에 오히려 내가 감동을 받고 말았다.

5) Love me tender

23일부터는 학술회의가 진행된다. 각 회의장마다 안내요원들이 배치되어 있고 학술프로그램은 각 주제마다 주관자(Organizer)들이 있으니 별 문제 없이 잘 진행될 것이다. 24일 저녁에는 VIP 만찬이다. 이 VIP 만찬은 한강 유람선상에서 서울 야경을 보면서 한

강을 유람하는 것으로 하였다. 마침 세모 유람선에서 약 250여명 정도 들어가는 큰 배가 있다고 하여 그 배를 이용하기로 했다. 그런데 물위라 안전사고가 가장 걱정스러웠다. 물론 다들 지성인인데다가 나이들이 있으니 별일이야 없겠지만 그래도 술이 한잔 들어가면 실수할 수도 있다. 또 만약에 배가 운행 중에 침수사고라도 나면 큰 일이다. 각국의 기관장, 교수, 국제기구 대표들이 타고 있는데, 그야말로 주요인사(VIP)들인데 사고가 나면 이걸 국제적인 문제가 된다. 한강 유람선이 좋긴 한데 안전사고 염려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였다. 심지어는 배의 가장 자리에 사람이 안 떨어지도록 가드를 설치해 놓았는데 그것을 높이라고까지 할 정도로 나는 걱정이 되었다. 거기다가 8월이 되다보니까 날씨까지 걱정이다. 폭우라도 쏟아지고 홍수라도 나면 행사가 불가능하다. 그럴 경우에 대비해 예비계획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 그러나 달리 방법은 없고 비가 안 오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다. 또 배 위에서 행사하다 보니까 식사도 문제였다.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라 식성이 다르고 또 여름이라 자칫 잘못하면 음식이 상할 수도 있다. 호텔 음식을 조달하도록 하라니까 세모유람선 회사와의 관계 때문에 안 된다. 자기네들이 제공하는 음식을 먹어야 한단다. 여러 가지 궁리를 해보았으나 마땅치 않아 결국 세모가 제공하는 음식을 먹기로 하였다.

24일 금요일 저녁 6시 20분 한강 유람선 선착장으로 갔다. 약 150여명의 VIP들이 초청되어 왔다. 우리 버스가 도착하자 영광여상 고적대들이 연주를 하였다. 처음에는 고적대가 누구를 위해 연주하는지 모르다가 ISI 대표단들은 자기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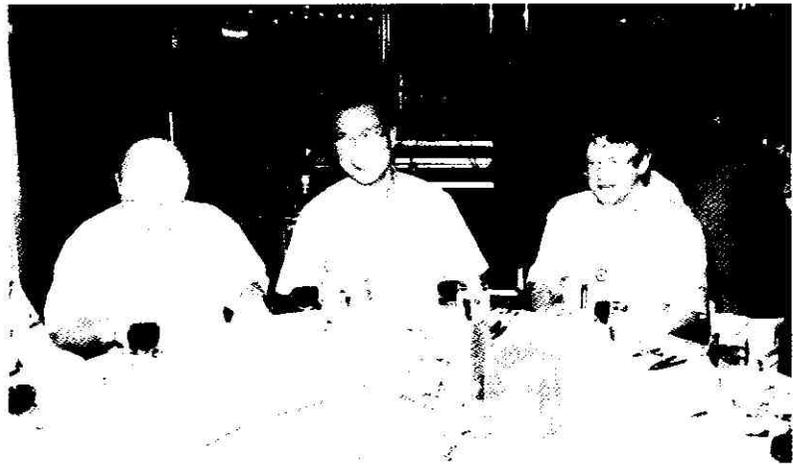
VIP dinner에서 윤영대 조직위원장(위쪽),
스위스 통계청장 Carlo Marraguella의 가창

알고는 모두 즐거워하며 연신 카메라를 터트렸다. 여름밤의 한강 유람선 여행은 바람이 상쾌하고 야경도 좋아 모두들 가벼운 마음으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밴드 연주가 시작되고 식사도 하고 술도 한 잔씩 하며 분위기가 한껏 무르익어 가자 한경림 씨가 나와서 사회를 보았다. 나는 이렇게 참석 해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말을 하고 나서 참석자들의 테이블을 돌면서 인사도 하고 건배도 하는데 한경림 씨가 갑자기 나를 무대 앞으로 불러낸다. 그러더니 느닷없이 이번 대회 조직위원장인 윤영대 청장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래를 한 곡조 부르겠다고 선언한다. 그러자 참가자들이 와— 하면서 박수를 치고 좋아한다. 줄지에 노래를 부르게 되어버렸다.

‘아니 이 친구들 시나리오에도 없는 것을 막 집어넣어도 되나? 아니면 사전에 귀땀이라도 할 것이지...’

그러나 그 자리에서 “나는 노래 못합니다” 하고 뺄 수도 없는 일. 할 수 없이 노래를 불러야 했다. 갑자기 시킨 일이라 준비가 안

되어 있었으나 외국인들이 모두 알 수 있는 노래를 불러야 한다. 대개 참석자들이 50대 이상들이고 그들이 젊었을 때 많이 들던 노래가 엘비스 프레슬리(Elvis Presley)의 노래일 것 같았다. 나도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를 좋아해 때로는 부르곤 했기 때문에 그의 「Love me tender」를 불렀다. 대회 때문에 긴장하고 피곤하기도 해서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끝까지 노래를 불렀다. 내가 나가서 노래를 부르니까 서양 사람들은 재미있고 신기한 모양이다. 카메라를 연신 터트린다. 나의 노래에 대한 답사로 스위스 마라구에라 청장 (Mr. Carlo Malaguerra)이 노래를 불렀다. 나의 노래 솜씨가 초등학교 1~2학년 수준이라면 그는 대학생 수준이었다. 참 잘 불렀다. 성악가의 수준으로 노래를 불렀다. 덕분에 분위기가 아주 우호적이고 흥겨워졌다. 내가 각 테이블을 돌면서 건배를 할 때마다 사람들은 “You are very good



VIP dinner : ISI회장 Jean Louis Bodin(왼쪽), Tim Holt 전임영국청장(오른쪽)

entertainer.” “You are Elvis Yoon.”이라고 한다. ISI대회를 잘 치르려다 보니 여러 사람 앞에서 별일을 다해본다는 생각이 들었다. 배가 어느듯 여의도를 돌아서 잠실 선착장으로 돌아왔다. 선착장으로 돌아오니 불꽃놀이가 시작되었다. 여름 밤하늘을 수놓은 불꽃놀이는 참으로 아름다웠다. 참석자들은 매우 흡족하고 기분 좋은 모습이었다. 몇몇 친구들이 작별인사를 하면서 기억에 남을 매우 좋은 밤이었다고 한다.

이렇게 VIP dinner는 모든 것이 잘 진행되었는데 마지막에 문제가 하나 생겼다. UN통계국장 하만(Mr.Hermann)씨가 음식 때문에 탈이 났다. 그만큼 위생에 신경 쓰라고 했는데도 탈이 난 것이다. 식중독으로 배탈이 나서 그는 다음날 DMZ 관광에도 참석을 못하고 우정만찬(Friendship dinner)에도 참석을 못했다. 미안하기 그지없었다. 한국이 아직도 후진국처럼 식중독이 일어날 정도로 위생관리에 철저하지 못하단 말인가? 창피하고 민망하기 짝이 없었다. 다음날 전화로 미안하다고 하면서 병세가 어떠냐고 물어 보았더니 그리 심하지는 않다고 하면서 오히려 나를 안심시키려 했다. 여하튼 많은 사람들이 탈이 안 나기 천만다행이었다.

6) 윗놀이와 우정만찬

8월 25일 저녁 6시 50분. 우정만찬(Friendship dinner)이 있었다. 나는 헬싱키대회 때 Timo가 초청한 Sauna 모임에 갔었다. 무척 인상적이었다. 그야말로 핀란드의 독특한 문화를 체험한 셈

이다. 나도 그 동안 음으로 양으로 서울 대회를 지원해준 외국친구들을 초청하여 한국 문화를 체험하게 해주고 싶었다.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마땅치 않았다. 인터컴의 최태영 사장이 두 가지 아이디어를 갖고 왔다. 첫째는 우리의 전통 한옥인 안동사랑(安東舍廊: 윤보선 전 대통령의 생가)에서 전통공연과 전통한식을 즐기는 방안이고, 두 번째는 웨라톤 워커힐 호텔의 애스톤 하우스(Aston House)에서 한강의 야경도 보면서 사물놀이 같은 우리 가락을 즐기는 방안이었다. 나의 친구들을 초청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신경이 쓰여 현장을 내가 직접 점검하기로 했다. 안동사랑은 한국 전통가옥이고 한국적 분위기가 풍겨서 좋긴 한데 강남에서 강북까지 가는 교통편이 불편하고 장소도 협소하다. 약간은 답답할 것 같았다. 웨라톤 워커힐 호텔의 애스톤 하우스(Aston House)는 여름밤에 한강의 야경을 즐기면서 잔디밭에서 놀 수는 있으나 비가 오면 문제다. 또 교통도 약간 멀고 차가 밀리면 시간 맞추기가 어렵다. 더구나 이날 각자 관광프로그램에 참여했을 텐데 숙소와 너무 멀면 불편하다. 두 가지 모두 비용문제도 만만치 않았다. 막판까지 결정을 못 내리고 고민하다가 결국은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하기로 했다. 지하 1층의 「알레그로 룸」에서 하기로 했다.

당초 의도와는 약간 거리가 있지만 프로그램을 재미있게 만들기로 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구상해보았다. 한국에 대해 잊지 못할 정도로 인상깊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각자에게 한국식 이름을 하나씩 지어주면 어떨까? 예를 들어 내가 헬싱키 갔을 때 Timo가 당신의 핀란드식 이름은 이렇소 하고 만들어주었

다면 아마 난 Timo와 핀란드를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에게 한국 이름을 하나씩 지어주면 그들은 한국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 아닌가? 생각할수록 그럴듯한 아이디어였다. 한국 이름을 하나씩 지어서 액자에 근사하게 인쇄하여 하나씩 주면 좋아할 것이다. 상당히 근사해 보였다. 그러나 남변 국장이 옆에서 한마디 했다. “글쎄요, 서양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일본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은 과연 좋아할까요? 내가 보기에는 일본 사람들은 오히려 기분 나빠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서양사람들만 이름을 지어주고 일본 사람들은 뺄 수도 없고… 또 발음이 비슷하면 좋은 데 발음이 안 맞으면 곤란하지 않을까요?” 가만 생각해보니 그도 그럴 것 같았다. 우선 Jean-Louis Bodin은 어떻게 할까? ‘장 루이’로 할까? ‘장 보댕’으로 할까? 우리 성씨에 장씨는 있는데 그러면 성씨가 바뀌는데 보댕씨는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Dennis Trewin은 어떻게 지어야 될까? ‘추 라인’이라고 할까? 작명하는 일이 간단치 않았다. 그렇다고 작명가를 찾아다닐 수도 없고… 그렇다면 한국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무엇이 있을까? 여러 가지로 고민해 보아도 마땅치 않았다.

한때는 민속놀이인 윷놀이는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이 놀이를 잘 소화해 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접어두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난 어느 날 과장들과 점심을 먹고 오면서 아이디어를 구해보았다. 신승우 과장이 “윷놀이는 어떨까요?” 하면서 얘기를 한다. 한참 전에 생각했었다가 접어두었던 아이디어인데 그가 다시 되살린다.

“외국인들이 재미있어 할까?”

“우리 과원들과 단합대회를 하러 가서 한번 했는데요, 모두들 재미있어 하던데요. 외국인들도 재미있어 할 것 같은데요.”

“웃놀이라... 재미있어 할거란 말이지. 그래 어찌 보면 가장 한국적인 놀이이다. 약간은 확률적이고 통계적이랄 수도 있고.”

그래서 접어두었던 아이디어인 웃놀이를 하기로 했다. 그리고 웃에다가 'ISI Seoul Session' 이라고 새겨서 선물로 주기로 했다. 또 말판에다가 게임요령을 영어로 적어 안내하기로 했다.

친구들이 모이자 나는 초대인 인사말을 했다. “여러분들의 우정과 성원에 감사한다. 여러분들의 성원으로 서울대회가 매우 성공적이 되는 것 같다. 이 자리는 그야말로 우정을 돈독히 하는 자리이니까 모두가 퍼스트 네임 베이스(first name base)가 되었으면 좋겠다.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 이름 부르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내 이름을 굳이 어려운 Young-dae라고 부르려고 하지 말고 간단하게 이니셜로 YD라고 불러라. 그것이 부르기 쉽고 부담이 없을 것이다. 오늘 저녁은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운 친구집에 놀러온 기분으로 편안하고 즐겁게 지내기 바란다”라고 인사말을 했다. 그래서 나는 세계 통계인들중 가까운 친구들에게는 YD로 불러진다.

저녁식사 후 마술을 보았다. 마술은 누구나 다 재미있어 한다. 마술사가 청중의 한 사람을 직접 불러내어 마술에 참여시키는 것이 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하필이면 날카로운 작두 칼날 아래에 손목을 놓고 그 손목 아래 무를 놓으면 칼날이 내려와 손목은 하나도 상하지 않은 채 그대로 이고 무만 잘리는 마술이다. 거기에 영국청장 렌 쿡(Mr. Len Cook)이 지명되어 나왔다. 나는 이 마술이 영마음에 걸렸다. 저러다가 실수로 정말 손을 다치면 어쩌나. 노파심

에서 걱정이 되었다. 렌 쿡(Len Cook)도 마술사가 지명하니 할 수 없이 나오기는 했지만 썩 안심되는 표정은 아니다. 은근히 걱정 되어 마술사보고 한마디했다.

“그 사람은 매우 중요한 사람인데 잘못되는 일은 없겠지요?”

마술사는 나를 힐끔 쳐다 보더니 한마디한다.

“나는 마술사입니다.”

태연스런 그의 태도에 안도를 하면서도 막상 마술시연을 할 때는 조마조마했다. 작두 칼날 아래에 손목을 넣고 있는 Len은 고개를 돌리고 참석자들도 모두 호기심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순간 작두칼날이 내려왔다. 손목 아래 있던 무는 두 동강으로 잘려나갔지만 Len의 손목은 그대로 있었다. 모두들 재미있어 하면서도 Len의 손목을 잡고 “이것 정말 당신 손목 맞는 거요?” 하고 흔들며 보며 농담도 하곤 했다.

이어서 윗놀이가 시작되었다. 먼저 윗놀이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운영요원으로 청장비서를 하는 지아란양이 설명을 했다. 그리고 편을 갈라서 윗놀이를 했다. 그들은 윗놀이 룰에 대해 금방 이해를 했고 재미있게 놀았다. 윗을 던져서 윗이 매트 밖으로 나가면 무효란 것을 알자 자기 팀이 던진 윗이 밖으로 나갈라 치면 얼른 발로 차서 매트 안으로 집어넣는 순발력도 보였다. 또 말 하나가 여러 말을 엮고 가는 룰도 금방 익혀서 행보를 단축하였다. 또 이들은 자리의 유리, 불리도 따질 줄 알고 윗을 던질 때 얼마나 높이 던지면 모나 윗이 잘 나오는지도 눈치챌 정도로 순발력이 높았다. 이태리 청장 비제리(Mr. Biggeri)는 마치 한국 사람처럼 말판을 쓸 때 억지도 부리고 소리도 지르고 하면서 즐기고 있었다. 더

구나 'Back 도'를 알고 나서는 무척 재미있어 했다. 우리는 팀을 넷으로 나누어 두 팀씩 예선전을 거쳐서 이긴 두 팀끼리 다시 결선을 하고 진 두 팀은 패자전을 하여 3, 4위를 결정하였다. 우승팀에는 푸짐한 상품이 걸렸다고 하니 모두들 우승하기 위해 열심이였다. 특히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더 적극적이였다. 모두들 윗놀이를



Friendship dinner 후 윗놀이를 즐기는 모습

를 즐겼다. 우선 룰도 간단하고 약간은 익사이팅한 놀이라서 재미있어 했다. 상품 속에는 윗이 한 쌍씩 들어 있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놀아본 대로 각자 집에 가서 가족들과 윗놀이를 한번 해보라고 했다.

9월경에 호주 청장 Dennis Trewin이 편지를 보내왔다. ISI 서울대회 후에 터키에서 친구 여섯 가족과 휴가를 보내고 있는데 저

덕마다 웃놀이를 한다고 했다. 다들 무척 재미있어 하고 좋아한다고 했다. 또 연말에는 아이슬란드 청장 Mr. Snorrason이 편지를 보내왔다. 자기도 지금 웃놀이를 즐기고 있다고 한다. 웃을 각자에게 선물로 주었더니 그걸 가지고 자기 나라에서도 즐기고 있는 모양이다. 흐뭇했다. 우리나라 민속놀이를 다른 나라 사람들도 즐길 수 있게 되다니.

7) 콜롬비아와 통계협력을 맺다

2001년 3월 6일부터 9일까지 UN에서 UN통계위원회가 열렸다. 하루는 젊은 사람이 나에게 다가오더니 인사를 한다. 자기는 콜롬비아 통계청 국제과장 Mr. Alberto Arroyave라고 한다. 끝나는 날 자기 청장하고 잠깐 얘기를 나누자고 한다. 좋다고 했다. 9일 UN통계회의가 끝난 다음 콜롬비아 통계청장과 만났다. 여자 청장 마리아(Ms. Maria Eulalia Arteta Manrique)이다. 무슨 일이나니까 콜롬비아 통계청은 한국 통계청과 협력관계를 맺고 싶다는 것이다. 한국이 여러 면에서 자기들 보다 앞서가는 것 같으니 그 경험을 배우고 싶단다. 남미 나라와 아시아권 국가가 상호 통계 협력을 맺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나는 “기본적으로 좋다”고 했다. 그러나 상호 협력을 맺으려면 여러 가지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많을 테니까 각자 본국에 돌아가서 실무적인 검토를 거쳐서 협력관계를 맺자고 했다. 아마도 UN통계회의에서 ISI Seoul Session의 소개, 한국의 시간활용조사경험, IT통계작성경험, 환경

계정관련 발언 등을 한 것이 그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어 협력관계를 맺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다. 특히 한국에서 ISI대회를 개최한다는 것이 큰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것 같다.

돌아와서 실무적인 검토를 거쳐본 결과 나쁜 것은 전혀 없고 오히려 맺는 것이 좋다는 결

론을 얻었다. 아시아권에서는 일본과 중국, 유럽권에서는 독일, 남미권에서는 콜롬비아, 이렇게 협력관계를 맺으면 아프리카를 제외하고 전 세계적인 협력관계의 네트워크가 형성된다. 우리도 남미권의 통계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알 필요도 있다. 그래서 협력관계를 맺기로 결론을 냈다. 그 후 콜롬비아에서는 외교채널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요청해왔다. 콜롬비아 통계청은 대통령실 소속인 모양이다. 대통령에게까지 보고, 승인을 받아 주 콜롬비아 한국대사관을 통해서 공식 요청해왔다. 이 공문을 받고 실무검토를 거친 결과 형식은 외교부간의 협정서 체결보다는 통계청간의 협정서를 만드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그래서 통계청간의 협정서를 체결하기로 했다. 그리고 서명식은 서울 ISI 대회 때 하기로 했다.



콜롬비아통계청장 Maria Eulalia와 양국간 통계협력협정 체결(2001.8.24.)

그런데 조그만 문제가 발생했다. 콜롬비아 청장이 ISI대회에 참가하려했는데 예산문제로 참가가 불투명하니 방법이 없겠느냐는 것이다. 마침 아시아권 개발도상국가들의 기관장들이 ISI대회 참가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세션 하나를 조직했다. Census Round Table Forum이다. 여기에 초청을 하고 경비 일부를 지원해주어서 쉽게 올 수 있었다. 사실 콜롬비아에서 서울까지는 멀고도 멀다. 여행경비하며 비용이 많이 들 것이다. 어쨌든 Maria Eulalia는 이렇게 해서 ISI대회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다.

8월 23일 오후 2시 30분, 콜롬비아 통계청장이 내 사무실을 방문했다. 양국간의 통계협력협의를 위해서다. 우리는 많은 의견을 교환한 후에 다음과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① 회합은 1년에 한 번씩 갖되 한해는 콜롬비아가 한국에 오고 다음해는 한국이 콜롬비아에 간다. ② 경비문제는 여행경비는 방문국이 부담하고 회의경비, 체재경비는 주최국이 부담하기로 한다. ③ 2년을 한 term으로 하되 두 term(4년)을 기본으로 하고 필요시 상호합의하에 연장하기로 한다. ④ 2001년은 콜롬비아가 한국을 방문한 것으로 하고 2002년은 한국이 콜롬비아를 방문하기로 한다. ⑤ 회합의 주제는 양국의 관심사항을 반영하되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8월 24일 오후 3시 양국 통계청장은 실무진들의 배석하에 협정서를 체결했다. 우리측은 남변 국장, 최봉호 과장, 김경태 서기관이 참석하고 콜롬비아는 Arteta Manrique 청장, Arroyave 국제과장이 참석했다. 이로써 양국간의 통계협력관계가 정립된 것이다. 생각지도 않던 콜롬비아와 통계협력관계를 맺음으로써 한국통계청의 지평이 멀리 남미에까지 열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8) 부통령실 경제자문관입니다

ISI 서울대회가 한창이던 어느 날 나이지리아 대표단이 나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약 10분 정도면 된다고 한다. 8월 28일 오후에 면담을 했으면 한다고 했다. 그날은 독일과 working luncheon이 있고 3시 45분부터는 내가 사회하는 E-commerce session이 있어서 긴 시간 여유는 없었다. 그러나 면담요청을 받아들여 2시에 만나기로 했다.

8월 28일 오후, 일단의 아프리카 인사들이 내 집무실을 찾아왔다.

“우리들은 나이지리아에서 온 통계인들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지요.”

“나는 나이지리아 부통령 경제자문관 라왈(Mr. Babatunde Lawal)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나이지리아 통계청장 이모레힌(Mr. Adetoun Imolehin)씨입니다. 우리들은 한국에는 처음 왔습니다만 한국 통계청이 상당히 선진화되었다고 느꼈습니다. 통계에 관한 한국의 많은 경험을 듣고 싶습니다.”

“양국간의 협력관계 같은 것을 원하시는 겁니까?”

“말하자면 그렇지요. 그러나 여기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듣고 싶습니다.”

“제일 먼저 궁금한 것이 무엇입니까?”

“통계제도입니다. 한국은 분산형 제도를 취하고 있다고 하던데 분산형으로 하면서 역할 분담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국가의 기본적 통계에 대해서는 한국 통계청이 만들고, GDP



나이지리아 통계인들과 함께(2001.8.26.)

와 금융통계는 한국 은행이 만들고, 기타 각 부처가 자기가 필요로 하는 통계를 만듭니다. 그리고 통계청이 중앙통계기관이기 때문에 각 기관들의 통계를 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통계와 채감과의 차이 때문에 논란은 없습니까? 우리는 물가통계를 정치인들이 믿지 않아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우리도 논란이 많았지요. 특히 실업통계와 물가통계가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보조지표를 많이 만들어서 발표하면서 논란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보조지표라는 것이 어떤 것들입니까?”

나는 물가보조지표로서 기본생활품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물가지수, 야채류, 어패류를 대상으로 하는 신선식품지수, 구입빈도별 지수 등을 자세히 설명해줬다. 또 실업통계지표로서 ILO지표를 주지표로 하지만 OECD실업률, 불안전취업자, 구직단념자, 장단기 실업자, 청년층 실업자 등 여러 가지 지표들을 발표한다고 설명했다. 그들은 매우 흥미 있게 경청하고 메모도 했다. 그리고 질문도 많이 했다. 가급적 자세히 설명해주었지만 보다 더 심층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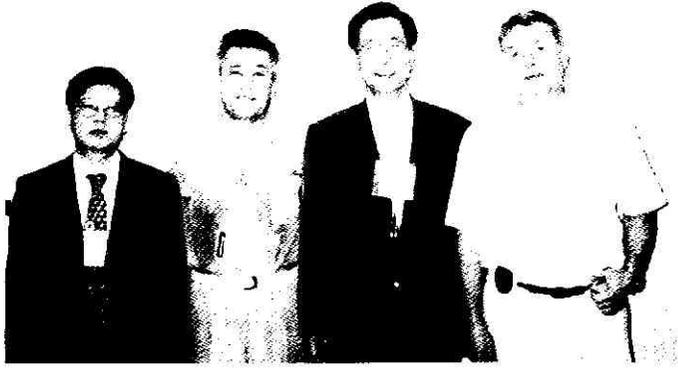
것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야기하자고 했다.

“정치인들이 통계발표에 대해 신뢰하며 이해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나이지리아에서는 정치인들의 통계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높고 비판이 많은 모양이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는 일이지요. 우리는 정확하고 신뢰성 높은 통계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또 통계품질관리제도 같은 것을 도입해서 품질관리를 합니다.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각종 보조지표를 만들어서 주지표를 보완하지요. 복잡한 경제사회현상을 단일 지표만으로 다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국회가 열릴 때마다 우리들의 업무에 대해 충실히 설명하지요. 또한 토론을 통해서 그들의 이해를 돕습니다. 우리는 통계교육기관이 있는데 가끔 국회의원 보좌관들을 위해 통계 강좌를 엽니다. 보좌관들이 이해를 하고 있으면 의원들의 이해도가 빨라지니까요.”

그들은 그것이 신기한 모양이다. 열심히 메모한다. Mr. Lawal은 부통령 경제자문관이다 보니 통계기술적인 문제보다 정책수립을 위한 통계자료수집, 정치인들의 설득 등에 관심이 많았다. 약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매우 유익한 면담이었으며 한국과 협력관계를 맺고 싶다고 하였다. 나는 좋다고 대답하였다. 그들은 본국에 돌아가서 상부에 보고하고 협력관계수립을 추진하겠노라고 했다. 아프리카 대륙에도 양자협력국가가 생길 것 같다. 새삼 한국 통계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음을 실감하였다.



러시아 통계인들과 함께

9) 러시아 통계청장의 안부입니다

8월 23일 10시
러시아 대표단이 면담을 요청해왔다. 2명의 러시아 통계인

이 내 집무실로 들어왔다. 러시아 통계연구소의 바실리 심체라(Mr. Vassili Simtchera)씨와 알렉세이 셰비야코프(Mr. Alexei Shevyakov)씨이다. 이 분들은 러시아 통계청장의 편지를 들고 찾아왔다. 한국에서의 ISI대회 개최를 축하하며 향후 한국과 러시아가 상호 협력관계를 잘 유지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심체라(Mr. Vassili Simtchera)씨는 러시아 통계청장이 안부를 전한다고 하면서 양국간의 협력관계를 발전시켰으면 하는 희망을 전달해왔다. 나도 즉시 감사하다는 인사말과 함께 양국간의 협력관계가 잘 발전되기를 바란다는 인사말을 전했다. 러시아는 내가 각국 통계청장들에게 ISI 서울대회에 꼭 참석해주기 바란다는 서한을 보냈더니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왔는데 막상 대회에는 직접 참석을 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서신을 보낸 모양이다. Mr. Simtchera는 자기가 쓴 논문을 발표할 수 있도록 주선해 달라는 것이다. 역대 노벨상 수상자들이 어떤 주제를 갖고 노벨상을 받게 되었는지를 통계를 낸 것이란다. 마침 노벨상 수상자가 이 대회에 참가하고 있으니 노벨상 수상자들의 학문에 대한 통계가 매우 의미가 깊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고논문 발

표가 모두 일정이 잡혀 있어서 이제 와서 별도로 일정을 잡기는 어렵다는 말을 해 주었다. 그러나 혹시 비어있는 세션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주선해주겠다고 했다. 너무 황당했다. 발표논문은 지난 6월에 이미 확정이 다 되었는데 이제 와서 발표하도록 해달라니 이해가 안 된다. 마지막 날 빈 세션시간에 그들은 결국 발표를 했지만 큰 관심은 끌지 못했다.

10) Mr. Joseph Tedou의 부상

이번 대회기간 동안 참석자들 모두에게 아무 탈 없기를 많이 기도했다. 날씨도 그렇고 참석자들도 무사히 끝내고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주최국으로서 참석자들이 사고라도 나면 여간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니다. 특히 8월 25~26일 관광 때에 아무 일 없기를 바랐다. 원체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1,300여명에 달하는 많은 사람들이 각각 관광프로그램에 참석했기 때문에 신경이 쓰였다. 나는 강화도 관광 길에 동행했다. 버스 5대가 움직였다. 강화도 역사상 병인양요 이래로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오기는 이번이 처음이란다. 외국인 약 200여명이 강화도에 갔으니 그도 그럴만 하다. 우리 팀은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돌아오는 길이었다. 그런데 다른 곳에 나간 우리 직원한테서 연락이 왔다. 태권도 프로그램에 참가한 외국인이 다쳤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고 병원으로 갔다는 전갈만 받았다는 것이다. 다음날 최과장으로부터 상황을 파악해보니 국기원

태권도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한 외국인이 다리를 다쳤다는 것이다. 카메룬 통계청장 테두(Mr. Joseph Tedou)씨가 다친 것이다. 혹시 책임문제가 일어날까 싶어 누구 책임이냐고 물었더니 본인 책임이란다. 본인도 그것을 인정하는가? 하고 물었더니 그런 것 같다고 한다. 어디에 입원했느냐니까 청량리 위생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것이다.

8월 29일 대회 마지막날 3시 반경 나는 위생병원 323호실로 Mr. Tedou의 문병을 갔다. 말도 잘 안 통하는 외국에서 병원에 입원해있으면 얼마나 불편할까? 또 외국인은 의료보험도 안 될 테고, 선진국에서 온 것도 아니고 아프리카 후진국에서 왔는데 치료 비용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걱정되었다. 환자를 만나기 전에 병세부터 확인하고 만나려고 담당의사를 찾으니 이미 퇴근하고 없었다. 간신히 수소문하여 담당의사와 통화했다. 아킬레스건이 끊어져서 봉합수술을 했고 약 3개월 정도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한다. 약간 다친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심각하다. 아킬레스건이 끊어졌으면 다리를 못 쓰게 되는 것은 아닐까? 의사는 그렇지 않고 몇 달간 잘 치료하고 요양하면 아킬레스건이 붙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병실에 들어갔더니 까만 신사 한 분이 한쪽 다리를 기브스한 채 누워있다. 내가 한국 통계청장이라고 소개를 하자 반갑게 맞이하며 일어나 앉으려고 한다. 일어나실 필요는 없고 그래 얼마나 아프고 불편하시느냐고 물었더니 괜찮다고 한다. 우리 직원이 옆에서 너무나 극진히 돌봐주기 때문에 고맙다고 인사를 한다. 국제과 김진기씨와 인사계 문승태씨가 간병인 노릇을 하고 있었다. 아! 우리 직원들이 여기까지 배려하고 있구나



태권도체험투어에서 시범을 보이고 있는 Joseph Tedou 카메룬 통계청장

하는 생각이 들면서 역시 우리 직원들에 대한 든든한 믿음과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태권도 대련 시범을 하다가 실수로 다쳤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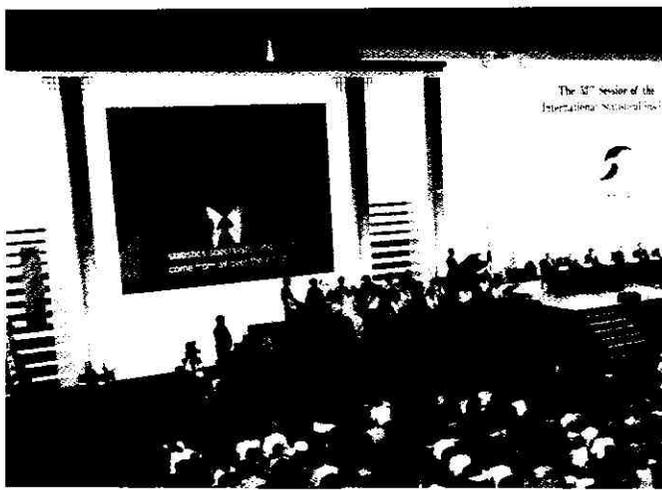
Mr. Tedou는 운동을 좋아하고 또 잘 하는 사람이다. 아직 40대의 젊은 나이인 데다 평소 무술을 많이 했단다. 태권도, 합기도와 같은 무술을 많이 했고 블랙 벨트라고 한다. 태권도장에서 사범이 시범을 보인 후 누구 나와서 시범 연습하실 분이 없느냐고 지원자를 찾자 Mr. Tedou가 선뜻 나선 것이다. 그는 평소 운동을 많이 했고 태권도에 관심도 많고 유단자이고 하니 시범연습에 자원할 만하다. 그래서 자원했단다. 처음에는 아무 탈 없이 잘 했다고 한다. 그렇게 한 번으로 끝냈으면 좋았을 것을 한번 더 할 수 있느냐고 요청하여 두 번째로 하게 되었단다. 누구와 대련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혼자서 폼세를 잡아가며 시범 연습하는 것이었다. 앞발차기를 하는 순간 날카로운 통증을 발목에서 느끼면서 넘어졌단다.

그러자 발을 움직일 수도 없고 디딜 수도 없었던다. 급히 근처에 있는 위생병원에 와보니 아킬레스건이 끊어진 것이다.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안되어서 다른 곳으로 옮기지도 못하고 수술을 받은 것이다. 다행히 의사선생님을 잘 만나서 수술을 잘 한 모양이다. 그는 몹시 미안해했다. 자기 실수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다. 혹시 태권도장과 또는 관광회사와 다툼이라도 있으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는데 스스로 자기 실수라고 인정하니 다행이었다. 분쟁의 소지는 없는 셈이다. 그는 그런 상황에서도 얼굴이 밝았다. 옆에서 간병하는 문승태, 김진기씨에게 무척 고맙다는 인사를 나에게 여러 번 한다.

그는 카메룬 통계청장을 약 4년간 맡고 있다고 한다. 가족들이 보고 싶지 않으나니까 보고 싶지만 괜찮다고 한다. 애들이 몇이냐니까 4명이라고 한다. 병원비용이 많이 나올 텐데 조달 방법이 있느냐니까 얼굴이 약간 어두워진다. 그도 그럴 것이 약 2,000불 이상 되는 치료비를 어떻게 조달한단 말인가? 병문안을 가기 전에 나는 남국장, 최과장과 논의를 했다. 비록 자기 실수라고는 하나 우리 손님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이 어떨까? 우리는 같은 의견이었다. 그러나 일부는 본인부담을 시키기로 하고 병원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는 입장을 갖고 병문안을 갔다. 사정을 들어보니 지원 안 해주고는 안되었다. 자기 나라 의료보험이 외국에서 사고를 보전해주지 못하는 모양이다. 그렇다고 국가에서 지원해주느냐니까 그것도 안 된단다. 그렇다면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느냐고 했더니 여유는 없지만 어떻게든 마련해야 하지 않느냐고 풀이 죽어 말한다. 그래서 내

가 전액을 지원할 수는 없지만 일부는 지원해주겠다. 나머지는 당신이 알아서 처리하라고 했더니 매우 고맙다고 한다. 며칠 뒤 Mr. Tedou는 에어 프랑스 편으로 불란서를 경유 귀국하였다. 다리를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비행기를 탈 수 있을까 걱정을 했다. 다행히도 항공사에서 좌석배정에 특별배려를 해 준 모양이다.

ISI대회가 끝나고 9월 5일 보댕(Mr. Jean-Louis Bodin)씨로부터 이메일이 날아왔다. 자기는 몰랐는데 대회기간 중에 우리의 친구 Mr. Tedou가 부상을 당했고 윤청장이 병문안을 갔으며 지원까지 해주었다니 대단히 고맙다는 얘기였다. Mr. Tedou는 처가집이 파리에 있어 거기 들렀다가 본국으로 갔다고 한다. Mr. Tedou가 자기에게 이 사실을 알려와 알았노라고 했다. Mr. Tedou는 윤청장의 따뜻한 배려와 지원에 너무나 감격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우리나라에 온 손님이 부상을 당해서 참으로 안되었고 빨리 완쾌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Mr. Tedou의 이메일을 몰라서 안부를 묻지 못하니 Jean-Louis 당신이 이 소식을 전해달라고 했다. 그로부터 약 한 달 뒤 10월 21일 Mr. Tedou로부터 이메일이 왔다. 본국에 돌아와서 잘 치료받고 있으며 한국의 배려에 깊이 감사한다는 것이다. 어쨌던 사고가 일어난 것은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뒷마무리가 별 분쟁없이 잘 마무리되어 정말 다행이었다. 이것이 이번 대회를 통해서 일어난 유일한 사고였다.



김대중 대통령 축하메시지

11) 대통령님의 치하

나는 ISI대회 때 대통령님을 모시고 싶었다. 한국통계청이 통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있는 것에

대해 걱려를 듣고 싶었다. 음지에서 고생하는 우리나라 전 통계인들을 이 기회에 한번 격려해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다. 또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신 우리 대통령께 외국인들의 관심이 매우 높으니 이 기회에 전세계 통계인들에게 걱려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개막식 때 주최국 국가수반이 축하를 해 주는 것이 ISI의 관례였다고 한다. 우리도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래 전부터 청와대 경제비서실에 요청을 해 두었다. 그러나 8월 초에 가서야 참석 여부를 알 수 있단다. 나는 7월 10일 청와대를 방문했다. 한광옥 비서실장님, 이기호 경제수석님, 박지원 정책수석님, 남궁진 정무수석님, 신광옥 민정수석님을 모두 찾아뵙고 ISI대회를 설명하고 대통령님의 개막식 참석 축하사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를 비롯한 ISI 회장단의 접견을 건의 드렸다. 그러나 부득이 개막식 참석이 불가할 경우에는 영상 축하사라도 해주실 것을 건의 드렸다. 모두들 대회의 성격과 의의를 이해하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겠다고 하셨다. 2,000명 이상 모이는 이렇게 큰 대회라면 개막식에 참석하실 것이라고 하셨다. 나는 상당

히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그러나 대통령님께서서는 개막식에 참석하시지 못하시고 대신 영상축사를 보내주셨다. 아쉬웠다. 나중에 알고 보니 베트남 국가주석이 하필 8월 22일 세계통계대회 개막식 날 오후에 방한하셨다. 그리고 이 날 저녁에는 한국이 IMF를 졸업하는 축하리셉션이 청와대에서 있었다. 대통령께서 ISI 총회에 참석하시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 무리였다. 이 때문에 직접 참석하시려던 계획이 무산되고 말았다. 그러나 영상 축사를 보내주셔서 참석자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사실 참석자들은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신 대통령님을 개막식 단상에서나마 뵈고 싶어했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는 8월 27일 오전 ISI 회장단과 노벨 수상자들을 접견해 주셨다. 나는 Mr. Bodin, Mr. Trewin, Mr. Van den Broecke, Dr. MaFadden, Dr. Heckman을 인솔하고 청와대 로가 대통령님을 예방하였다. Dr. MaFadden과 Dr. Heckman은 2000년 노벨상 수상동기라서 이미 구면이셨다. 방문단을 반갑게 맞아주시고 여러 가지 환담을 하셨다. 대통령께서는 나에게 서울세계통계대회(ISI)가 역대 대회사상 가장 성공적인 대회로 평가받는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하시면서 끝까지 대회를 잘 치러 좋은 성과를 거두라고 하셨다. 그리고 그 동안의 수고에 대하여 많은 치하를 해주셨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치하를 해주시니 그 동안의 모든 피로가 싹 가셨다.

ISI대회가 끝나고 나서 대통령께서는 9월 1일 통계의 날을 기해 전국 400여명의 통계인들에게 격려 친서를 보내주셨다. 음지에서 고생하는 모든 통계인들의 노력과 헌신에 대해 격려와 치하를 보

내주신 것이다. 이러한 치하와 격려로 인해 국제과를 비롯한 통계청 직원들은 물론 모든 통계인들의 사기가 충천했다.

12) Oh! Little Ange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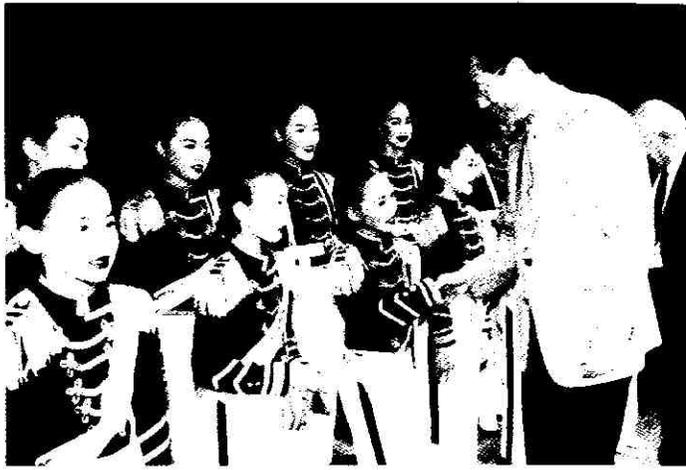
8월 27일 오늘은 무척 바쁜 날이다. 아침 7시 30분 노벨상 수상자들과의 조찬이 있었고 오전11시에는 회장단의 대통령예방이 있었다. 오후에는 1시 15분부터 노벨상 수상자들의 특강이 있었고, 3시 45분에는 ISI총회가 있었다. 또 저녁 8시에는 '한국의 밤' 행사가 있었다. 리틀 에인절스 회관에서 있었다. 이리 저리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 시간이 촉박했다. 부랴부랴 달려갔지만 교통이 밀려서 간신히 공연 시작 전에 도착할 수 있었다. 1,000여명이 들어가는 리틀 에인절스 공연장의 1층, 2층 모두 꽉 찼다.

우리는 한국의 문화와 예술을 참가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가 Little Angels 공연이 팬찬을 것 같아 이 프로그램으로 '한국의 밤' 행사를 하기로 했다. 리틀 에인절스는 민간 사절단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공연을 했고 또 많은 호평을 받았기 때문에 선택에 그다지 큰 고민을 하지는 않았다. 시작 전 이재창 교수님께서 LPC 위원장 자격으로 인사말을 했다. 매우 유창한 영어에다 유머감각까지 갖추셔서 멋진 인사말을 하셨다.

청장 비서요원으로 일하던 지아란씨가 사회를 맡았다. 어린 천사들의 공연은 그야말로 환상적이었다. 그들은 이름 그대로 어린

천사들이었다. 깜찍하고 발랄하고 귀엽고 아름다웠다. 춤과 노래로 엮어진 그들의 공연은 참석자들을 매료시켰다. 부채춤, 북춤, 농가율령가, 꼬마신랑 장가는 날 등등 공연 하나 하나가 끝날 때마다 요란한 박수소리가 터져 나왔다. 나도 오랜만에 보는 리틀 에인절스 공연이었으므로 아주 재미있게 보았다. 그러나 나의 관심은 참석자들의 반응이었다.

그러나 박수소리가 요란하고 카메라 플래시가 여기저기서 터지고 하는 것을 보면서 참석자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 공연이 끝나고 나서 리틀 에인절스 측에서 장 보딩 씨와 나에게 기념메달을 걸어주었다. 나는 Little Angels들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감사 인사말을 하려고 내가 연단에 서니까 청중



한국의 밤 문화행사 : 리틀 에인절스 공연

들이 와— 하고 웃는다. 처음에는 왜 그런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 까 꼬마 천사들과 가벼운 불 인사를 했을 때 이 천사들이 내 불에 루즈를 묻혀놓아 뺨에 선명한 입술자국이 찍혔다. 그래도 좋았다. 공연이 끝나고 헤어질 때 영국의 전청장 Tim Holt, 스위스청장 Malaguerra, ISI 회장 Jean Louis Bodin, 호주청장 Dennis Trewin, 홍콩청장 Fred Ho, 싱가포르청장 Paul Cheung, 영국청장 Len Cook, 뉴질랜드청장 Brian Pink 등 많은 외국 기관장들이 나에게 다가와 하나같이 wonderful을 연발했다. 장 보탱씨의 부인 아나크 여사, 테니스 트레윈씨의 부인 아네트 여사, 나나데시칸씨의 부인, IMF 통계국장 Carol Carson 등 많은 사람들이 내 손을 잡고 "Oh! Little Angels, It's really wonderful"을 연발했다. 단순히 의례적이고 외교적인 발언이 아니라 그들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을 했다. 특히 부채춤은 fantastic하다는 것이다. 영국의 어떤 분이 노래도 좋았지만 그들의 춤은 정말 환상적이었다고 나에게 슬쩍 말해주었다. 참석자들이 '한국의 밤'을 아주 즐겁게 보낸 것 같아 무척 기분이 좋았다.

13) OECD 통계자문그룹이 되어 주십시오

OECD 통계국장 지오바니니(Mr. Enrico Giovannini)씨와 8월 29일 아침 조찬을 하기로 하였다. Enrico는 이태리 통계청장을 마치고 킨캐넌(Mr. Louis Kincannon)씨의 후임으로 OECD 통계국장이 되었다. 그와 나는 2001년 3월 유엔통계위원회에서 처음

만나 ISI 후원과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 적이 있다. 유럽쪽 통계기관장들의 보다 많은 참석을 유도하기 위해 OECD 관련 회의나 OECD가 주관하는 세션을 하나 만들고자 했다. 원칙적으로는 동의했는데 나중에 여의치 못해 별도의 세션은 만들지 못했다. 그러나 양자간 협력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어 조찬 회동을 가졌다.

나는 Enrico에게 OECD에서 한국 통계청의 과장급 한 명을 파견 받을 것을 요청했다. 우리가 Eurostat에 과장급 한 명을 파견하고 있는데 유로스타트가 더 이상 받기가 어렵다는 연락이 왔다. 국외훈련차원에서 보내는데 OECD는 통계분야에서 매우 앞서고 있고 또 많은 좋은 분석들을 하고 있으며 한국이 OECD 회원국이니 받아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다. 그는 선뜻 한국에서 보낸다면 받겠다고 했다. 이번에 한국에 와서 한국통계청의 활동과 수준을 보니 오히려 우리가 요청하고 싶은 정도라면서 기꺼이 수락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 이태리 통계청장 비제리(Mr. Luigi Biggeri)씨로부터 비난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 통계연감을 비롯한 한국의 많은 통계자료들과 활동상황을 살펴본 모양이다. 그리고는 IT분야를 비롯한 많은 부문에서 한국통계가 자기들보다 더 발전되었다고 느낀 모양이다. 그래서 전임자인 Enrico에게 한국을 보니 통계수준이 매우 발전되어있는데 당신은 이태리 청장으로 있으면서 그동안 뭐했느냐고 비난하더라는 것이다. 얘기가 매우 구체적이라 단순한 의례적, 외교적 발언은 아니었다. 매우 기분이 좋았다. 외국인들이 그 동안 한국통계청과 한국통계수준에 대

해서 잘 몰랐다가 이번 대회를 통해서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면서 많이 놀라는 것 같다. 아, 한국이 국제통계사회에서 위상이 굉장히 높아지는구나 하고 생각되었다.

그러면서 그는 한 가지 요청을 했다. 자기가 OECD 통계국장으로 부임해서 여러 가지 혁신을 좀 하려고 한다. OECD 통계활동에 대한 새로운 목표와 전략을 설정하려고 한다. 이런 것을 위해서 OECD 통계자문그룹(Statistical Advisory Group, SAG)을 구성하려고 하니 윤청장 당신이 자문그룹 멤버가 되어주십시오 라고 요청한다. 자문그룹의 하는 역할이 무엇이나고 하니까 그야말로 자문그룹으로서 OECD 통계활동에 대한 방향과 사업을 논의하고 자문하는 것이란다. 회의는 일 년에 두 번 정도 갖고 3월 UNSD 회의와 연계해서 한 번 하고, 나중에 8~9월경 ECE회의나 기타 다른 회의와 연계해서 가질 예정이란다. 몇 개국 정도로 구성하느냐니까 약 9~10개 국가로 구성할 계획이란다. 나는 좋다고 수락했다. OECD가 서구 중심으로만 움직이는 것보다 동양적, 비서구적 견해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었고 한국에 대한 대우가 달라졌다는 생각에서 수락했다. 이리하여 한국이 OECD의 통계자문그룹이 되었다.

14) 아시아 통계 포럼(Asia Statistical Forum)

8월 28일 오전 9시 15분 기고논문회의(IPM) 3번으로 아시아통계포럼 세션이 열렸다. 회의 주관자는 이재창 교수였고 사회자는

싱가폴 청장 Paul Cheung이다. 발표자는 OECD의 홍은표 박사
와 Guy Schuller, 중국 통계청장 주지신, 호주청장 Dennis
Trewin, 필리핀 출신의 SIAP소장 Tomas Africa, 그리고 일본의
유키 미우라 교수였다. 토론자로는 후에 일본통계국장이 된 타카
노부 네기와 성균관대학교의 허문열 교수였다.

이 아시아 통계포럼은 1999년 9월 대전에서 국제통계포럼을 할
때에 내가 주창해서 발전시키기로 했었다. 통계분야를 보면 유럽
과 미국, 캐나다 등을 중심으로 하는 선진국들이 주도하고 있다.
물론 그들이 선진국이니까 여러 면에서 앞서 있는 것은 사실이고
세계통계계를 선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아시아
권은 유교, 불교문화를 바탕으로 비슷한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고
인구도 제일 많으며 경제도 계속 발전해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아시아권이 상호 협력하여 자기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이
런 차원에서 관, 학이 상호 협력하여 아시아지역 통계를 발전시킨
다면 모두에게 유익할 것이다. 이렇게 주창하여 대전 회의시 참석
했던 많은 참석자들의 동의를 얻어 발족시키기로 했다. 그래서 제
1회 대회를 일본 고텐바에서 동아시아 기관장 회의와 연계하여 개
최한 바 있다. 당시 일본 통계국장 이노우에씨가 대전회의에 참석
했는데 이 분이 차기 회의를 일본에서 개최하겠다고 하여 2000년
7월 고텐바에서 열렸었다. 이번 대회에서는 ASF의 출범을 국제적
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다. 국제기구 관계자들도 한국
이 ASF를 주창하고 나서는 것을 지지하면서도 어떤 방향으로 나
갈지 예의 주시하는 것 같다. ESCAP 통계국장 프래트(Mr.

Andrew Flatt)씨는 혹시 ASF가 ESCAP의 역할과 중복되어 자
기들의 입지가 좁아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눈치였다. 그러나 ASF
는 학계와 공동으로 모인다는 점에서 국제기구들과의 활동에 차이
가 있다. 말하자면 ISI의 아시아 버전이라고나 할까.

이번 대회에서 발표자들이나 토론자들이 모두 설립필요성에 대
해서는 공감했으나 구체적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별 아이디어들이
없었다. 특히 학계와 관계가 같이 한다는 점에 대해서 나라별로 차
이가 있었다. 우리같이 학계와 관계가 유대관계가 좋은 나라는 별
문제 없는데 호주나 다른 나라들은 학계와의 관계가 그다지 긴밀
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이번 대회에서 국제적으로 논의되었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했다는 점이 소득이다. 다만 구체적인 추
진방안에 대해서는 한국이 계속 주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ASF를 통해서 한국은 아시아권에서의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일본이 아시아권에서 주도적 역할을 많이 했는데
일본이 적극적으로 나서면 중국이 싫어하고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
서면 일본이 싫어한다. 그런 역학관계에서 보더라도 한국이 주도
적으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음의 글은 내가 ISI대회 직전 모 일간지에 실으려고 했다가
일정이 맞지 아니하여 실지 못한 글이다. 여기에 전재한다.

아시아지역 통계협력체의 설립이 필요하다.

세계경제는 이미 글로벌화되어 가고 있는 한편 지역화되어
가고 있다. 개방경제체제하에서 자본, 기술 등이 국경 없이 자

유롭게 이동하고 있고 국가경제 운영에 있어서도 자국만의 기준이 아닌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세계 각국은 지역협력체를 구성하고 있다. 형태와 정도는 달라도 각 지역별로 지역협력체들이 구성되어 운용되고 있다.

통계분야에 있어서도 지역 협력체와 같은 것이 있다. 유럽에는 유럽통계국(Euro Stat)이 있고 미주지역에는 미국통계학회(ASA)와 같은 것이 있다. 유럽통계국은 처음에는 유럽 석탄, 철강공동체의 통계부문으로 1953년에 출발하였다. 그 후 1958년에 EC의 통계조직으로 되었다가 1993년 암스테르담 조약에 의해 유럽연합(EU)의 통계작성기관으로 확립되었다. 이 기구는 정부의 공식통계에 관한 사항들을 다룬다. 이 기구에서는 매년 20여개의 작업단이 80여회의 회의를 가지면서 회원국들의 상호 관심사항을 논의하고 국제적인 주요 이슈에 대해서도 의견을 조율한다.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가와 동구권의 체제전환국가들에 대한 통계기술도 지원하고 있다.

미국통계학회(ASA)는 미국 내 통계학자들의 모임이다. 따라서 학문적이고 이론적인 주제들이 발표되고 토론된다. 이것은 매우 학술적인 모임이다. 이론적이든 실무적이든 세계 통계계를 이끌어 가는 것은 이러한 그룹들이다. 국제적으로 어떤 통계적 이슈가 떠올라 그에 대한 개념정립과 기준설정이 필요할 때 사실상이들 선진국 그룹들의 의견에 좌우된다.

그러나 아직 아시아 지역에는 통계협력체가 없다. 아시아 지역내의 통계협력체 설립이 필요하다. 아시아 지역에는 인구도

많고 지역도 광활하며 매우 다양한 국가들이 있다. 선진국도 있고 개발도상국가도 있다. 각국의 통계수준과 활동도 매우 다양하고 차이가 많다. 그러나 동아시아권 국가들은 동양권 문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들 국가 사이에는 공통성도 있고 상이성도 있기 때문에 공동목표 추구하고 상호협력 가능성이 있다.

통계분야는 다른 분야와는 달리 상호 이해대립이 적다. 상호 대립적이고 경쟁적이라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이고 협력적이다. 아시아 지역 내에서 상호협력 증진과 발전을 위해서도 통계협력체가 필요하다. 국가통계 작성 자원뿐만 아니라 학문적 이론적인 차원에서 협력체의 설립이 필요하다.

세계통계대회(ISI)라는 것이 있다. 이 대회는 114년의 오랜 역사와 전세계 통계인들이 참석한다는 빛나는 전통을 가지고 있다. 정부 및 국제기구 통계관계자뿐만 아니라 통계학자들까지도 모두 한자리에 모여 통계문제 전반에 대해 발표하고 논의하는 자리이다. 실무적이기도 하고 학술적이기도 한 대회이다.

이 유서 깊은 세계통계대회가 한국에서 열린다. 8월 22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서울 코엑스(COEX)에서 열린다. 이번 제53차 서울 세계통계대회에는 전세계 110여개 국가에서 약 2,300여명이 참가하고 발표논문만 해도 190여개 주제에 930여편에 이른다.

이 서울 세계통계대회에서 아시아통계포럼(Asia Statistical Forum)이 논의된다. 아시아 통계포럼(ASF)은 동아시아 지역 내의 통계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협력체이다. 중국, 일본, 한국

을 위시한 동북아 국가와 홍콩, 싱가포르, 태국등 동남아 국가뿐만 아니라 호주, 뉴질랜드 등 대양주 국가도 포괄하는 협력체이다. 이 포럼은 지역 내의 통계발전과 상호협력을 위해서 통계학자와 정부통계관계자들이 같이 모여서 논의하는 모임이다.

나는 이러한 지역협력체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이의 설립을 제창, 추진하고 있다. 1999년 8월 대전에서 다수의 아시아권 국가들이 참가한 국제통계포럼이 열렸을 때 아시아 통계포럼(ASF)을 발의하여 참가자들의 전폭적인 공감과 지지를 얻은 바 있다. 이러한 공감과 지지를 바탕으로 통계청에서는 통계학회와 더불어 이 포럼의 정식 출범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출범까지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번 서울 세계통계대회에서 아시아 통계포럼이 정식출범이 되기를 기대한다. 지역 내의 통계발전을 위해서.

15) 길리철(吉理哲)씨

ISI 서울대회의 학술프로그램 위원장으로 리차드 길(Richard Gill) 박사가 선임되었다. 네덜란드 울브레히트(Ulbrecht) 대학 교수이다. 1999년 8월 헬싱키대회에서 선임되었다. 내가 그를 처음 만난 것은 물론 1999년 8월 헬싱키대회에서이다. 그는 매우 밝고 서민적인 사람이다. 우리는 헬싱키대회 때 홍보용 셔츠를 만들었다. 하얀 바탕에 왼쪽 앞가슴과 등 부분에 서울대회 로고를 새겨 넣은 셔츠다. 헬싱키대회 때 우리 홍보요원들이 항상 그것을 입고

다니니까 매우 인기가 높았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 티셔츠 살 수 없느냐고 묻기도 했었다. 이 홍보용 티셔츠를 Dr. Gill은 항상 입고 다녔다.

그는 자기가 서울대회 학술프로그램 위원장이라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한국에 대해서도 알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그는 통계학에서도 매우 첨단분야를 연구하는 모양이다. 이런 저런 얘기 끝에 그는 이런 얘기를 했다. 영화 스타워즈를 보면 사람들이 공간 이동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런데 이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것이다. Data를 다른 곳에서 한곳으로 옮겨와 재구성하면 공간 이동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된단다. 다시 말해서 사람에게 관한 모든 Data를 컴퓨터를 통하여 서울에서 헬싱키로 보내면 헬싱키에서 동일한 사람으로 재구성된다는 것이다. 물론 사람을 공간 이동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사안과 관련된 Data를 이렇게 공간 이동하여 재구성하면 물체의 공간 이동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얼핏 들으면 매우 황당한 소리 같지만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것 같기도 하다. 어쨌든 그는 매우 첨단분야를 연구하는 것 같다.

학술프로그램 위원장은 LPC 위원장과 협조하여 서울대회의 각종 학술프로그램을 조직한다. 초청논문 세션과 기고논문 세션을 설정하고 조정하며 각 세션이 잘 돌아가도록 조정한다. 각 세션별 조직자와 사회자, 발표자, 토론자가 잘 선정이 안되면 이를 촉진시키고 논문제출이 지지부진하면 기한 내 제출토록 촉구하고 발표자나 토론자가 회의참가가 불확실하면 직접 관련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접촉하여 각 프로그램이 원활히 돌아가도록 한다. 따라서 많은 일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대회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학술프로그램 위원장 DR. Richard Gill.

학술프로그램 위원장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길(Richard Gill) 박사가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다. 학술프로그램 위원장으로서 미리 한국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고 또 한국과의 업무협조를 위해 방한한 것이다. 그는 NOC 위원들, LPC 위원들과 업무협의를 하고 협력관계도 논의했다. 그와 나는 헬싱키에서 만난 구면인 데다가 그는 한국 팬이어서 한국식으로 술도 마셨다. 서양인들로서는 좀체 경험하기 힘든 폭탄주도 돌려가면서 한국팀들과 친밀해졌다. 안윤기 통계학회장, 남궁평 부회장, 김혜중 교수, 이정진 교수, 허문열 교수 등 통계학자들과 잘 어울렸다. 그는 매우 한국을 좋아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았다.

“당신이 한국을 매우 좋아하는 것 같아 내가 당신에게 한국식

이름을 하나 지어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좋습니다. 하나 지어주세요”

“당신의 성이 Gill씨이니까 한국 성으로 길(吉)씨로 하고 이름은 Richard이니까 발음이 비슷한 리철(理哲)로 하면 좋을 듯합니다. 당신은 통계학을 연구하는 학자이니 이치와 철리를 연구하는 이름이 어울립니다. 길리철(吉理哲), 이름이 어떻습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름이 매우 좋아 보입니다. 내 본 이름과 발음이 거의 같으니 전혀 남의 이름처럼 들리지 않고 아주 좋습니다.”

“당신이 ISI 대회 때 오면 당신 이름 증명서를 근사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Mr. Richard Gill은 길리철(吉理哲)씨가 되었다. 이재창 교수께서는 때로는 사인 대신에 동양식으로 도장을 쓰라고 상아 도장까지 만들어 주었다. ISI대회 때 나는 정말 그의 이름 증명서를 만들어 액자에 넣어 주었다. 그는 매우 기뻐하면서 그의 책상 위에 진열해 놓았다. 그의 방을 들르는 사람들이 이것이 무엇이라고 물으면 자기 한국이름인데 Commissioner Yoon이 지어주었다는 자랑을 했다. 그는 본국에 가서도 그의 한국 이름 증명서를 자기 사무실에 걸어 놓을 것이라고 자랑했다. 그 후로 그는 정말 한국 팬이 되었다. 한국 문화를 좋아하고 한국인을 좋아하며 한국 음식을 좋아했다. 심지어 김치까지 잘 먹었다. 서양인들은 매워서 잘 못 먹는 김치를 그는 잘 먹었다. 아마도 그는 한국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5. 언제 다시...

1) Invitation to Berlin

8월 29일 밤, 무대 조명도 꺼지고 환송연이 끝났다. 모두들 아쉬워하며 각자 가까운 친구들과 아쉬운 작별인사를 하였다. 내 테이블에도 보딩 회장 내외, 트루윈 회장 내외, 스티글러 차기회장, 이재창 교수 내외, 그리고 나와 짐사람이 앉아 있었다. 모두들 아쉬워하며 작별인사를 나눴다. 다른 테이블에 있던 사람들도 나에게 다가와서 아쉬운 작별인사를 하곤 했다.

작별인사를 나누는 어른들 사이로 한 소년이 다가왔다. 열 두어 살 정도 되는 소년이었다. 그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나에게 다가와서는 (서울대회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을) “축하합니다” 하면서 작은 선물을 하나 준다. 소년이 입고 있는 것과 동일한 하얀 티셔츠였다. 앞면에 ‘Invitation to Berlin’이라는 글씨가 써어져 있다. 말하자면 차기 대회가 열리는 베르린에 초청한다는 의미이다. 눈망울이 초롱초롱하고 너무도 귀여운 소년이었다. 그는 독일 베르린 경제대학(Berlin School of Economics)의 헬무트 마이어(Helmut Maier) 교수의 아들 알렉산더(Alexander Maier)이다. 알렉산더는 아버지를 따라 서울 ISI대회에 참가한 것이다. 마이어 교수는 알렉산더를 너무도 사랑하는 나머지 이 대회에까지 그를 데리고 온 것이다.



알렉산더군과 함께.
좌로부터 필자, 맥패든 교수, 알렉산더군, 다케우찌 교수,
이재창 교수.

나는 그의 선물을 기쁘게 받았다. 그런데 이 일은 예상치 못한 일이라 미처 답례품을 준비하지 못했다.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알렉산더보고 언제 떠나느냐고 물으니까 모래 떠난다는 것이다. 그

러면 내일 내 사무실로 들리라고 했다. 나는 그에게 답례품을 주고 싶었다. 어린 소년이니까 역시 티셔츠 같은 것이 좋을 것 같아 티셔츠로하기로 했다. 강종환 사무관보고 ISI 서울대회 로고가 박힌 셔츠를 사라고 했다. 마침 통계협회에서 ISI 서울대회 로고를 넣어서 티셔츠를 만들어 팔았다. 그것이 남아 있는지 모르겠다. 다음날 아침 강종환 사무관이 다행스럽게도 ISI 서울대회 로고가 찍힌 티셔츠가 딱 한 장 남아있어 그걸 구했다. 그리고 서울 마크가 들어있는 티셔츠 한 장을 더 구해왔다. 그것을 알렉산더에게 주었더니 그는 매우 기뻐하면서 “베르란대회 때 꼭 오세요” 하고 인사한다. 어린이의 눈에도 ISI 서울대회의 강렬한 인상이 각인된 것 같다.

노벨상 수상자의 특강이 있던 날 앞줄에 한 소년이 앉아 있었다. 알렉산더는 그의 아버지와 함께 맨 앞자리에 앉아 열심히 경

청하였다. 전문가들도 잘 알아듣기 어려운 노벨 수상자들의 얘기를 그 나이의 소년이 이해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지루하고 재미 없어 뛰쳐나가고 싶을 터인데도 그는 조용하고 침착하게 계속해서 앉아 듣고 있었다.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강연이 끝나고 맥패든 박사, 헥크먼 박사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마이어 교수가 나에게로 다가왔다. 알렉산더와 함께 모두 기념사진을 한 장 찍을 수 있겠느냐고 묻는다. 맥패든, 헥크먼 박사들이 좋다고 했다. 마침 옆에 와있던 일본 케이 다케우찌 박사, 이재창 교수 그리고 나와 함께 알렉산더는 기념사진을 찍었다. 후에 마이어 교수는 그 사진을 크게 확대해서 보내왔다. 눈망울이 초롱초롱하고 귀여운 소년이 가운데 서 있고 노벨상 수상자들이 그 옆에 같이 서 있는 사진이다. 마이어 교수에게 알렉산더는 노벨상 수상자들을 옆에 두 명씩이나 거느리고(?) 서 있으니 틀림없이 나중에 노벨상 수상자가 될 것이라고 격려편지(?)를 보냈더니 알렉산더가 그 편지에 무척 고무되었다고 한다. 다행이다. 서울 ISI대회를 계기로 어린 꿈나무가 큰 꿈을 갖게 되고 잘 자라서 인류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면 좋겠다.

2) 믿고 맡겼더니 그만

8월 28일 저녁 환송만찬이 있었다. 워커힐의 제이드 가든에서 야외행사로 열렸다. 내일이면 모든 일정이 끝난다. 그래서 내일 출국하는 사람들도 많고 하여 오늘 저녁 Farewell Party를 연 것이



워커히호텔 제이드가든
에서 열린 환송만찬



다. 또 환송만찬이니까 그 동안 가까웠던 사람들과 작별인사도 나누는 자리인 것이다. 각자가 참가비를 내고 참석하는 행사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당초에는 500명을 채우지 못할까 걱정했는데 그 이상으로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그 동안의 프로그램에 매우 만족했던 참석자들은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여름 날씨라 밖이 시원하고 좋을 듯하여 야외를 선택했다. 다만 비가

올까 몹시 걱정하였는데 다행히 비가 오지 않고 날씨가 매우 좋았다. 바람도 산들산들 불고 밤하늘도 청명하고 기분이 상쾌할 정도였다. 나는 인사말에서 특히 오늘 날씨의 협조에 감사한다고 했더니 모두들 공감하는 듯 와— 하고 웃었다. 정말이지 8일간의 대회 기간 동안 비 한 번 오지 않고 아주 좋은 날씨였다. 특히 관광이 있던 토요일, 일요일도 무척 날씨가 좋았지만 오늘도 아주 날씨가 좋으니 나는 날씨의 협조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 ISI 신임회장으로 취임한 Dennis Trewin 씨가 답사를 하면서 윤청장이 ISI대회를 통계인의 올림픽이라고 불렀는데 나도 동감한다면서 ISI 서울대회를 한국은 통계인들의 올림픽, 통계인들의 축제로 만들었다고 하면서 서울대회의 성공을 축하해주었다.

여흥 프로그램으로 미동초등학교 태권도부에서 나와 태권도 시범을 보여주었다. 역시 어린이들의 시범이라 아주 귀여우면서도 박진감있게 보였다. 모두들 격파장면이나 돌려차기, 3단 높이차기의 시범에서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모습이었다. 꼬마들임에도 송판을 깨는 것을 보고 그 파괴력에 놀라는 모습이었다. 모두 흥미진진하게 관람을 했다.

그 다음 프로그램이 국악과 재즈의 만남이었다. 제목도 그럴싸하고 그 동안 인터컴의 최태영 사장을 비롯한 ISI팀들이 매우 열성적으로 일을 했고 모두 다 잘 해왔기 때문에 프로그램 내용만 설명을 듣고 받고 맡겼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데 계속해서 한국 노래만을 부른다. 처음 한두 곡은 한국 노래를 하겠지 했는데 계속해서 우리말 노래만 한다. 아나 이 친구 참석자들이 외국인들이라는 것을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외국 곡

도 좀 부르지... 하면서 기다렸다. 기다려도 기다려도 끝날 때까지 우리말 노래만 부른다. 그렇다고 노래를 잘 부르는 것도 아니고 마치 동숭동 대학로 거리에서 젊은애들을 앞에 놓고 노래 부르듯 한다. 당황스럽기도 하고 답답했다. 분위기가 착 가라앉는다. 외국인들은 무슨 노래인지 알지도 못하겠고 곡도 신통치 않고 하니 박수도 없고 잠잠하다. 옹헤야 노래가 계속 이어졌다. 한국 사람들 같으면 따라하고 흔들고 하는 신나는 곡인데 외국인들은 이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알지도 못하고 가락에 맞춰 춤추는 곡인지도 모른다. 그러니 그냥 조용히 듣고만 있다. 최봉호 과장이 보다못해 무대 앞으로 나가 춤을 추면서 분위기를 잡는다. 가만 보고만 있기에는 너무 분위기가 가라앉아서 나도 옷을 벗고 나갔다. 무대 위로 올라갔다. 가락에 맞춰 춤을 춘다. 그러자 외국인들이 우르르 앞으로 나와서 같이 춤도 추고 무대위로 올라와서 춤도 춘다. 독일 청장 Johan Halen은 무대 위로 올라와 나와 함께 춤을 춘다. 영국서 온 John King은 영국 전통의상을 입고 왔는데 그 복장으로 올라와 흥겹게 논다. 나는 한경림 사회자에게 분위기를 띄우고 계속 해서 노래를 흥겨운 것으로 부르라고 주문을 했다. 그런데 이게 웬 일인가? 사람들이 무대 앞으로, 무대 위로 올라와서 분위기를 막 띄우려고 하는데 가수가 노래를 중단하고 끝맺어 버린다. 무대 앞으로 나오던 외국인들도 머쓱해졌고 막 나와 춤을 추려던 외국인들도 머쓱해졌다. 다들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는 데 중단해버리니 무척 아쉬운 표정이다. 분위기를 띄워야 할 가수는 주섬주섬 악기들을 챙겨 가지고 무대를 내려가 버린다. '놀려면 너희들끼리 놀아라 나는 간다' 하는 식이다. 외국인들에게 민망하고 황당했다.

행사의 마지막 마무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다니 어이가 없었다. 즉시 최태영 사장을 찾았으나 최사장은 이미 눈치를 채고 자리를 피했는지 찾을 수 없었다. 만약 그 자리에 최사장이 있었다라면 혼줄이 났을 것이다. 인터컴에 믿고 맡겼더니 이런 불상사가 생긴 것이다. 모든 프로그램들의 내용과 현장확인을 다 했지만 마지막 환송 파티만은 믿고 맡겼다. 그랬더니 이런 불상사가 생겼다.

“아 믿고 맡겼는데 이럴 수가…”

“아 마지막까지 확인을 해야 하는 건데…”

후회를 해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고 이미 옆질러진 물이었다. 이번 대회를 치르면서 정말 끝까지 매끈하게 잘 진행했는데 마지막이 옥에 티가 되어버렸다. 참 아쉬운 마지막이었다. 아쉬운 옥의 티였다.

3) 대만족한 ISI 사무국

8월 29일. 대회 마지막 날이다. 오후 5시 45분까지 회의는 계속된다. 그러나 자기 소관 사항이 끝난 사람들은 이미 떠나가기도 하고 또 떠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 ISI 회장과 사무국 직원들은 끝까지 남아 있어야 한다. 오후 6시 마지막 회의가 끝나고 ISI 사무국 및 회장단은 ISI 회장인 Mr. Bodin 사무실에서 조출한 이별파티(farewell party)를 가졌다. 그들은 NOC 위원장인 나를 초대했다. 그리고 이번 대회를 잘 준비해준 데 대해 깊은 감사인사를 전했다. 그들은 입이 귀밑까지 찢어져 있었다. 이렇게 훌륭한 대회는

ISI 대회 역사상 처음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진정으로 서울대회가 역사상 가장 성공한 훌륭한 대회였다고 평가했으며 이렇게 대회를 잘 조직하고 운영해준 한국에 대해 깊이 감사하였다. 학술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각종 문화행사 등 모든 프로그램들이 너무 완벽하고 매우 훌륭하였다고 칭찬하였다. 그린 서츠의 운영요원들도 너무나 친절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이다. 단순한 의례적 외교적 발언들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들이었다.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호주청장 Dennis Trewin이나 스위스청장 Carlo Malaguerra는 2005년, 2007년 개최국인데도 무척 부담을 느낀다고 한다. 한국이 ISI대회를 업그레이드시켜 놓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한국수준을 어떻게 따라가야 할지 고민거리라고 한다. ISI 회장 Mr. Bodin과 사무국장 Marcel Van den Broecke씨는 독일이 큰 걱정을 하고 있더라는 말을 해준다. 독일은 우리 다음인 2003년에 개최하는데 “한국이 이렇게 잘 했으니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큰 걱정을 하더라는 것이다. 실제로 Johan Hahlen 청장과 Hans Merk 베를린대회 조직위원장이 우리와 업무협의를 할 때에 “우리는 한국이 너무 잘 해서 부담이 크다”는 말을 농담반 진담반으로 했다.

ISI 사무국 부국장인 Daniel Berze는 마지막 작별인사를 하러 내 방에 다시 왔다.

“지금까지 ISI대회를 치르고 나면 불평, 불만투성이었어요. 회원들의 각종 불평, 불만이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왔어요. 개최국에게는 차마 말을 못하니까 ISI 사무국에 불평, 불만을 늘어놓았어

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불평, 불만을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서울대회는 너무 멋지고 훌륭한 대회였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만 했어요. 대회가 빈틈없이 돌아갔고 발표회장의 각종 준비사항도 완벽했고 운영요원들도 너무나 친절했고 각종 문화프로그램이 너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한국을 많이 좋아하게 되었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는 입이 귀밑까지 찢어져 있었다. 그는 정말로 기분이 좋단다. 이렇게 기분 좋은 대회는 처음이었다고 한다. 정말로 흐뭇했다. 참가자들이 우리를 그렇게 평가해주다니.

실제로 ISI 회장단은 이러한 감사편지를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그리고 나에게까지 보내왔다. 외국 참가자들에게서 이러한 평가를 받으니까 그 동안 우리 직원들이 ISI대회 준비를 위해 쏟은 정열과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실감했다. 우리 직원들은 그 동안 자기 일 남의 일 가리지 아니하고 몸을 던져서 일하였다. 그 결과가 이런 좋은 평가를 이끌어낸 것이다.

4) 만약 IT 기술이 없었더라면

이번 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던 요인들은 많다. 치밀한 계획과 빈틈없는 준비, 학계의 열성적인 지원 그리고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 인터컴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열성 등등 많은 요인들이 들 수 있다. 그러나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여준 것은 IT기술이다. 적은 인력으로 이 큰 대회를 조직, 운영해나갈 수 있었던 것은 인



인터넷 카페에서 회의정보, 논문검색 등을 하는 참가자들.

터넷 덕분이다. 인터넷 기술을 이용한 e-mail과 전자등록시스템이 큰 역할을 했다.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이루어 질 수 있었다. 인터넷을 통해 전세계 통계인들의 주소록 DB구축이 가능했고, 인터넷상으로 등록, 논문제출, 검색이 될 수 있었으며, 관련자간의 e-mail 공유로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다. 인터넷 기술이 없었더라면 이번 대회가 과연 효율적으로 치러질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번

대회는 IT기술의 발달에 힘입은 바 크다.

5) ISI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이번 서울대회는 여러 면에서 기록을 남겼다. 참가국 수와 참가자 수가 역대 대회사상 최고로 많았다. 총 115개국에서 2,603명이 참가했다. 외국인이 1,506명, 내국인이 1,097명이 참가했다. 또 938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외국인 논문이 787편, 내국인 논문이 151편이 발표되었다. 국내 학자 등이 발표한 논문이 124편이고 통계청 직원들이 발표한 논문이 27편이다. 청장이 IP 9번 '인구센서스 라운드 포럼' 과 IP 20번 'E-Commerce 측정' 세션을 조직, 사회를 보았고 전주대 국장, 김형석 사무관이 인구센서스 세션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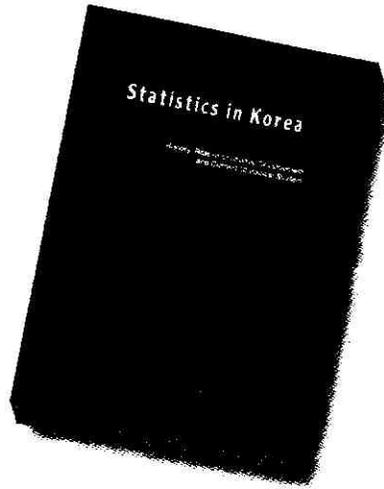
구정회 서비스 통계과장이 E-Commerce 측정 세션에서 각각 논문을 발표했다. 이동명 기획과장은 IP 12번 통계품질 평가 세션에서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또 CP



IP20. 전자상거래 측정 발표

논문을 발표한 직원들도 25명이나 되었다. 허진호 과장, 김설희 서기관, 안정임 서기관, 오삼규 서기관, 정화옥 서기관, 강유경 사무관, 김광섭 사무관, 김규영 사무관, 김형석 사무관, 민경삼 사무관, 박경애 사무관, 손애리 사무관, 윤연옥 사무관, 최정수 사무관, 최지영 사무관, 강제화씨, 김경희씨, 김신호씨, 김윤성씨, 김혜원씨, 박기봉씨, 박원란씨, 전준우씨, 진영씨, 최경순씨가 발표하였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 30여명의 직원들이 사회자, 발표자, 토론자로서 회의에 참여하여 그들의 능력을 발휘하였다.

또 한국은 2개의 위성회의(satellite meeting)를 개최하였다. 한양대 이영작 교수께서 '생물통계의 최근 발전방향'을, 중앙대의 이용구교수가 '통계교육' 위성회의를 조직, 개최하였다. 또 6개의 회의를 우리나라가 주관하였다. 숭실대의 이정진 교수가 '정보검색과 통계'를, 연세대의 김병수 교수가 '위험도 측정'을, 한국방송



「한국의 통계(Statistics in Korea)」
영문판 보고서

통신대의 이태림 교수가 '통계교육기법'을, 연세대의 이승철 교수가 '통계물리학'을, 한양대 이영작 교수가 '한의학에서의 임상실험'을, 고려대 이재창 교수가 '한일간 젊은 통계학자간의 연구결과 토의'를 주관하였다. 또 서울대 송문섭 교수와 고려대 허명희 교수가 편집한 「한국의 통계(Statistics in Korea)」라는 영문판 보고

서를 발간, 호평을 받았다.

이번 서울대회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처음 우리가 이 대회를 조직하면서 목표했던 것이 첫째로 한국통계의 국제적 위상제고이고 둘째로 국내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통계에 대한 인식 제고이며 셋째로 선진통계이론과 기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번 대회를 통해 한국통계의 수준과 활동에 대해서 국제적 인식이 엄청나게 높아졌다. 한국통계청은 사실 그동안 국제적으로는 잘 알려지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대회를 통해서 한국 통계청의 활동과 수준이 선진국 수준임을 참가자들은 눈으로 확인한 셈이 됐다. 그들은 우리의 각종 통계, 작성내용, 작성기법뿐만 아니라 각종 통계활동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됐다. 우리나라의 통계학계를

보다 더 잘 알게 됐고 통계교육에 대해서도 알게 됐다. 통계를 통해서 한국을 많이 알게 됐다. 일부 개도국들은 이런 활동들을 보고 협력관계를 원하기도 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첫 번째 목표인 한국통계의 국제적 위상제고라는 큰 성과를 달성했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목표인 이 대회를 통한 국민들의 통계에 대한 인식제고는 기대한 만큼 성과를 올리지는 못한 것 같다. 대회 이전에도 홍보활동을 많이 했고 대회기간에도 홍보활동을 많이 했지만 우리가 기대한 만큼 언론에 홍보되지는 못했다. 대회기간 동안 발표되는 논문들중 일반인들에게 이해될 만한 자료들을 모아 보도자료로 매일 내놓았지만 언론에 많이 실리지는 못했다. 주제들이 너무 전문적이어서 아무리 쉽게 풀어써도 역시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통계올림픽 대회를 열었다는 것은 많이 홍보되었다. 그리고 통계올림픽이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도 국민들이 많이 알게 되었다. 이것 자체만으로도 성과는 있었다고 생각한다.

셋째로 통계선진기법의 도입이다. 이번 대회에서 많은 새로운 주제들이 발표되고 토론되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든 이론적으로든 우리의 통계발전에 많은 기여가 있었으리라고 본다.

넷째로 이번 대회의 경제적 부수 효과도 매우 크다. 외국인 참가자가 1,500여명이었다. 관광공사의 1995년 조사자료에 의하면 국제회의시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하루 평균 \$444을 쓴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몇 년 전 자료이니 지금은 약간 높아졌을 것이다. 그들이 하루 평균 \$500을 쓴다고 가정하고 이들이 대회기간 8일 중 평균 6일 참가했다고 전제한다면 1,500명의 외국인들이 대회기간동안 약 450만불을 국내에 뿌리고 간 셈이 된다. 만불짜리 자동

차 450대를 수출한 것과 같고 1,000불 짜리 고급 TV를 4,500대 수출한 것과 맞먹는 규모이다. 이예다가 참가자들이 참가비를 냈으므로 이것 또한 5억원 정도 된다. 이렇게 보면 이번 ISI대회는 50억원 이상의 경제적 부수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효과도 있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 한국의 이미지가 크게 제고되었다. 사실 97년 말 IMF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외국사람들은 한국경제가 매우 어렵다고 생각했고 회생가능성에 회의적인 사람도 많았다. 사실 우리 경제가 어려웠지만 한국이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나가고 있는 것을 그들은 현장에서 눈으로 보고 확인한 것이다. 더구나 대회 개막식날 한국은 IMF 차입금을 완전 상환하였다. 이로서 IMF체제를 완전 졸업하였다. 한국경제의 회복력과 발전성을 그들은 현장에서 눈으로 본 것이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사람들은 상당수가 사실 그 나라에서는 여론주도층 내지는 정책결정자들이다. 그들의 인식이 상당한 영향력을 갖는다. 이런 면에서 이번 대회는 한국의 대외이미지 제고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대회는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를 하나 던져주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겨준 것이다. 이제는 선진국을 따라가기만 하는 추종자(follower)가 아니라 주도자(leader)로서의 역할을 해야만 한다. 통계의 수준이나 활동에 있어서 소극적 추종자가 아닌 적극적인 주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만 한다. 통계의 품질을 선진국과 동일 수준으로 높여야 하고 새로운 통계수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국제협력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우리가 다른 나라로부터 도움을 받고

배워오고 했지만 이제는 이 혜택을 다른 나라에 돌려주어야 한다.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러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내실도 다져나가야 한다.

6) 언제 다시 한국에서 ISI가 열릴 수 있을까?

ISI대회는 대륙을 달리해가며 2년마다 한 번씩 열린다. 즉 2001년에 아시아권 한국에서 열렸으면 2003년에는 유럽권인 독일에서 열리고 2005년에는 대양주권인 호주에서 열린다. 아시아, 유럽, 북미, 남미, 대양주 이렇게 5대륙을 한 번씩 돌아가며 개최하는 데 10년이 걸린다. 아시아권에는 나라가 많다. 그러나 서남아시아를 제외하고도 동남아시아권만 보더라도 20여개 국가가 있다. 그 중에서 한국, 일본, 중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포르 등 8개국이 돌아가면서 한번씩 개최한다고 해도 80년이 걸린다. 이들 나라 중 5개국만 대회를 개최한다고 해도 50년의 세월이 지나야 한다. 더 좁혀서 동북아 3개국 한, 중, 일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는 데만도 30년이 걸린다. 실제로 일본은 1987년에 ISI대회를 개최했는데 앞으로 30년 뒤에나 다시 개최할 계획이라고 한다. 중국도 1995년에 처음 개최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면 최소한 30년은 지나야 한국에서 다시 한 번 ISI대회를 개최할 수가 있다. 즉 2031년이 돼야 한국에서 다시 한 번 ISI대회를 개최할 수가 있을 것이다. 한 세대가 지나야 된다. 지금 30대 이하인 직원들만 한국에서 다시 ISI대회가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이다. 이 얼마나 돌아오기 힘든 기회인가? 아마 그 때 가면 2001년 서울 ISI대회 관련자들은 거의 모두 퇴직했을 것이다. 과거 기록이 없다면 그들은 무엇을 참고로 할 것인가?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2001년 서울대회를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치루었는지를 우리 후배들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이번 서울대회의 모든 진행상황들을 기록으로 남겨두려고 한다. 대회 진행장면을 비디오 테잎으로 찍어 남겨놓고 각종 간행물, 대회일지, 대회관련 물품 등등을 전부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두려고 한다. 2031년 우리 후배들이 다시 한 번 한국에서 ISI대회를 개최할 때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물론 그때 가면 시대상황이 달라져서 여건이 많이 달라지겠지만 과거대회의 기록을 참고하는 것처럼 좋은 교과서는 없기 때문이다.

Ⅱ. 세계통계대회와의 인연

— 이재창 S-국내학술프로그램 위원장, 고려대 교수

1. ISI에 관해서 처음 들어 본 것은

필자가 ISI에 관해 처음으로 들어본 때는 미국 유학시절인 1960년대 후반이었다. 당시에 어느 교수가 ISI 회원으로 선출되었다고 해서 주위 교수들이 모두 크게 축하했던 일이 기억난다. 통계학을 갓 시작한 대학원생이었던 나는 나도 언제나 저렇게 될까 하고 부러워했으며 한국의 우리들은 언제나 ISI대회를 열 수 있을까 하고 막연히 생각했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여름 서울에서 그렇게도 대단하게 생각하던 ISI대회를 치르게 되었고, 이를 성공적으로 끝내고 난 지금은 일생일대의 큰일을 하나 성취한 기쁨으로 꼭 차 있다.

2. ISI 회원가입

거슬러 올라가 1982년 겨울 이미 작고한 인도의 유명한 세계적 통계학자 P.V.Sukhatme 교수가 미국 가는 길에 한국에 들르겠다고 하여 그를 맞아 고려대에서 강의를 듣게 되었다. 그때 스카트미 교수가 필자에게 ISI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학회 회원 중에서 ISI 정회원이 아무도 없었을 때였다. ISI 회원이 되려면 5명의 ISI 정회원이 추천하여야 하고 회원 선출 위원회에서 투표로 선출되어야 하는데 스카트미 교수가 자청하여 나머지 분들을 연락해 직접 추천하도록 하겠다고 하여 필자는 용기를 내어 신청서를 보내게 되었고 그 이듬해에 ISI 정회원으로 선출되는 영광을 얻었다.

3. 동경대회

그때부터 ISI의 News Letter를 정기적으로 받아보게 되었고 그 활동을 어렵듯이 알게 되었다. 1987년 8월 동경에서 열린 제46차 ISI대회에 처음으로 참석하게 됐는데 ISI의 성격상 유럽과 미주에 치우쳐 있는 회원 편중으로 장거리 여행의 어려움이 있어 참석자는 그리 많지는 않았으나 황태자가 참석하는 성대한 개회식은 인상적이었고 국가적 행사로 치러진 것을 보게 되었다. 이때에 필자는 동경대회에서 처음 invited discussant로 초청되었고 기고논문도 발표했다.



46차 동경대회 직후의 Satellite Meeting(IASC)이 열린 후지산에서 중국과학원의 왕 슈린 교수, 일본의 Asano교수 등과

그리고 Satellite Conference로 IASC가 주관한 후지산 속의 회의에도 초청받았다. 당시의 IASC 회장은 오사카대학의 Okamoto 교수였으며 또한 주관자는 오카야마 대학의 故 Wakimoto 교수로 우리와는 한일 공동통계회의를 통해 친숙해진 사이여서 그의 각별한 배려로 특별초청을 받게 된 것으로 기억된다.

4. 파리대회 참석

1988년 Okamoto 교수는 필자에게 IASC의 이사로 출마를 권했고, 1989년 이사로 선출되어 ISI 및 IASC와 가까운 인연을 맺게되었다. 1989년 파리에서 개최된 ISI 제47차 대회에서 IASC의 이사회에도 참석하여 ISI의 핵심인사들과 교분을 맺을 수 있었다. 파리의 과학관에서 열린 대회는 아주 성공적이었으며 1989년은



1989년 파리대회(47차). 파리시장 환영 리셉션에서 박성현 교수와 함께

프랑스 혁명 200주년 기념으로 특별한 의미를 가질 뿐 아니라 모든 행사도 그에 상응하는 규모와 성격을 가졌다. 그 행사를 준비한 분이 Jean Louis Bodin으로 지난 서울대회 때에는 ISI 회장으로 활약하게 된 것도 그때의 성공적 개최가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면 파리시장 주최의 reception은 파리 시청에서 개최됐는데 회의장에서부터 특별 전세지하철로 nonstop으로 갔던 것은 통계의 중요성을 인식한 파리시장의 감각과 ISI의 위상을 보여준 것이며 farewell dinner도 혁명 200주년을 기념하는 성대한 행사로 치러져서 필자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그 날 저녁 연회가 끝나고 한국 대표로 참석한 당시 이강우 국장, 신현균 과장 그리고 최봉호 사무관과 뒷골목에서 합류하여 포도주 한잔을 같이하게 되었다. 그 모임이 53차 서울대회를 잉태한 계기가 되었다. 그때 이구동성으로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하였고 12년 후에는 서울에서 ISI가 치러지게 되었다.

다음날 필자는 당시 회장이던 Fellegi 박사를 찾아가서 한국의 개최 의향을 전하고 절차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그 내용 중에서 ISI대회는 주최측의 정부가 외교적 절차를 통해 초청하고 ISI의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된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주최국에서는 최

소 미화 \$200만 정도가 소요된다고 알려주었다. Fellegi 회장은 한국의 개최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듯 하였으나 신청은 해 보라고 권했다.

1989년 9월 귀국 후 ISI대회 유치를 위한 적극적 노력도 시작되었다.

5. 카이로대회

1991년 카이로의 제48차 대회에는 민태영 통계청장을 비롯하여 통계청에서 여러 분이 참석하였고 최봉호 현 국제과장도 일행으로 참석했다. 또한 학회측에서도 윤기중 교수, 박성현 교수가 참석했으며 통계협회에서도 여러 분이 참석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Kulldorff 회장 이하 ISI 이사들과의 접촉이 시작되었고 당시 ISI 사무국장이던 Denise Livesley 박사를 통해 정식으로 한국측 의사가 전달되었다. 그



1991년 카이로대회에서



1991년 카이로대회 중 피라미드
관광 길에

리고 대회유치에 필요한 구체적 준비에 대해서 자세하게 논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ISI 이사회에 한국측의 개최의사가 공식적으로 전달되었고 ISI의 영향력 있는 회원들의 입을 통해 이 소식이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그 중에서도 한국측 의사에 관심을 가진 분이 당시의 차기 회장이던 하버

드 대학의 Mosteller 교수였다. 그는 여러 가지로 필자를 격려해 주며 우리의 유치 노력을 도와주었다. 그리고 IASC의 이사회에서 필자는 우리의 노력을 지지해 달라는 부탁을 했으며 IASC는 적극 지지할 것을 약속했다.

일차적으로 유치노력이 수면 위로 올랐으며 만나는 많은 지인들은 우리를 지지하며 서울 방문을 기대한다고 했다.

6. 본격적 유치활동

ISI대회 유치를 위한 중요한 일정은 본 책의 다른 부분에 소개된 일정표를 참조하면 되겠으며 그와 관련된 몇 가지 일화만을 소개하고자 한다.

실은 중국 북경에서 열린 1995년의 대회는 성사가 계속 불투명하였다. 모든 참가자의 비자 발급과 입국의 보장, 그리고 대회 장

소 및 숙박시설과 동시통역 서비스 등 많은 문제가 있었고, 만약에 중국 개최가 불가능하면 서울 개최는 훨씬 더 앞당겨질 수도 있었다. ISI가 유럽 중심의 국제기구로서 유럽 내의 많은 회원들의 참석을 감안하면 유럽 이외의 지역에서 한 번 개최되면 최소 두 번 정도는 유럽에서 열려야 한다는 관례가 지켜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1990년 초에는 드디어 중국이 1995년 회의장소로 내정되었고 많은 회원은 중국 여행을 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위상은 커졌으며 1987년 이래로 유럽지역을 벗어난 회의가 없어 북경이 선호되고 있었다. 그러나 우여곡절은 많았고 회장단의 북경현지 방문 후 많은 어려움이 노출되고 있었다.

필자는 ISI 북경대회의 프로그램 조정위원회의 위원 겸 IASC 프로그램 위원장으로 이미 1993년 피렌체 대회에서부터 매우 분주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ISI 이사로서 이사회 등 각종 중요한 위원회에도 직접 참석하여 발언할 기회가 많아졌다.

그리고 한국의 신청도 정식으로 통계청장, 학회회장 및 협회회장 명의로 접수시켜 놓았고 이사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상정이 되었다. 1993년 피렌체 대회에서 당시 회장이던 하버드 대학의 Mosteller 교수는 매우 호의적이었고 당시 차기 회장이던 인도의 Jayanta Ghosh 박사는 더욱 우리를 격려하고 지지해 주었다. 따라서 한국의 개최는 1999년과 2001년 중에 할 수 있게 되었는데 1997년 이스탄불에 이어 1999년 헬싱키가 후보로 등장하였다. 역시 관례대로 아시아 지역인 북경 개최 후에는 최소 2회의 유럽개최가 있어야 충분한 참석자를 확보한다는 것이다. 지나고 보면 우

리가 1999년에 개최지로 결정되지 않았던 것이 너무나 큰 행운이었다. 그때 개최되었더라면 IMF 외환위기 상황이어서 모든 것이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이사회에서 헬싱키에 양보하듯 했던 것이 후일에 보면 크게 잘된 일이 되었다.

파렌체대회(1993) 때부터 ISI는 새로운 사무국장이 취임했는데 헝가리 출신의 미국 경제학자인 Zoltan Kenessey 박사였다. 그의 한국에 대한 지원은 매우 컸으며 한국의 ISI대회 개최가 얼마나 국가 통계발전에 도움을 줄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다. 역시 미국은 한국을 잘 이해하는 우방임을 알 수 있었다. 실제로 이때부터는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대회 개최를 위한 준비가 시작된 것이다. 통계청, 학회, 협회는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모든 준비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1994년 필자는 미국 필라델피아의 Temple대학에 교환교수로 가게 되었다. 그리고 북경대회의 프로그램위원회의 활동도 동시에 하였으며 ISI의 이사로서도 ISI 중요결정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해 9월 ISI의 사무국이 있는 네덜란드 헤이그 교외의 네덜란드 통계청사에서 ISI 이사회와 연결하여 중요한 특별회의가 열렸다. 소위 Cutting Edge Conference라고 하여 '국제적 시각에서 본 통계의 미래'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이런 특별회의는 사무국장이던 케네시 박사의 아이디어로 참석은 초청된 사람만 하는 소위 closed meeting 형태였다. 2일간의 회의에 이어서 이사회가 열렸으며 한국은 앞으로의 대회 개최국으로서 부각되고 그에 따른 대접을 받기 시작하였다.

이즈음 이강우 전국장은 제2대 통계청장으로 부임하여 원래 파



1993년(50차 ISF대회) Firenze대회 ISI총회에서

리 뒷골목에서 ISI대회 유치를 논의했던 인연으로 준비는 더욱 가속화되어 우리의 유치노력에 힘을 실어 주었다.

1995년 8월의 제50차 북경 ISI 대회를 앞두고 한국은 서울에서 소위 satellite회의라고 하여 학회와 통계청이 협력하는 큰 국제 회의를 개최했으며 이의 성공적 개최는 한국이 ISI대회 개최국으로 충분히 자격을 갖추었다는 판단과 안도감을 주는 계기가 되었다.

왜냐하면 북경회의는 관광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점에서 실패에 가까운 것이었으며 준비면에서 너무나 허술하였던 것으로 참석자에게 큰 실망을 가져왔다. 그에 비하면 서울의 satellite 회의는 조직, 준비 및 운영에서 매우 만족한 것으로 평가되어 우리는 한층 자신감을 갖게 되고 국제적 신뢰와 위상이 높아졌다.

1995년 여름 당시의 이강우 청장은 급한 국내 사정으로 북경대회를 참석할 수 없었고, 신현균 국장이 대표단장으로 통계청의 직

원들을 대거 참석시켰다. 가장 가까운 나라에서 개최한 대회를 직접 보고 경험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학계와 협회 측에서도 많은 참석자를 보내 그때까지로서는 가장 큰 규모의 한국인 참석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신현균 국장과 케네시 사무국장 등과의 오찬에서 통계청의 Cutting Edge Conference 개최문제가 논의되었고 이 결과 1997년 서울에서 '시장경제체제 전환국가의 인구학적 문제'란 주제로 Cutting Edge 회의가 열렸다. 이를 계기로 한국이 ISI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라로 등장하게 되었다.

1996년 여름에는 미국 워싱턴에서 또 다른 Cutting Edge 회의가 '경제 통계-정확성, 시의성 및 적절성'의 주제로 열렸으며 이 회의는 IMF가 외환위기와 관련하여 각국 통계의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과 연계되어 있었다. 필자는 이 회의에 토론자 자격으로 초청되었고, 이 회의에 이어 ISI 이사회가 있어 거기에 참석하게 되었다. 항상 국제회의에서 아쉬움으로 느끼는 것이 있다. 이때에 한국 대표로 참석한 통계청장은 취임한 지 몇 개월밖에 되지 않아 ISI나 이와 관련된 내용에 익숙해 있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모인 UN, IMF, World Bank, OECD, Eurostat 등의 중요한 국제기구의 통계국장들도 전혀 면식이 없는 관계로 매우 서먹서먹하여 중요한 대화가 쉽지 않았음을 목격하게 되었다. 우리는 언제나 선진국들과 같이 국제무대에서 통계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활약하고 대접을 제대로 받게 될까 하고 생각하게 되었다. 통계청장은 호주의 경우와 같이 7년 임기는 아니더라도 최소 3~4년은 돼야 하지 않을까 하고도 생각해 보았다. 그러던 중에 1996년 가을에 또다시 청장

이 바뀌고 또 그 해 겨울에도 바뀌었다. 케네시 사무국장과 D.R. Cox 회장은 ISI 이사이던 필자에게 그때마다 goal keeper가 또 바뀌었다고 농담을 보낸 일이 있어 실소를 금치 못했다.

정보화시대의 총아가 되어야 할 국가 통계생산기관의 장을 이렇게 취급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을까 하고 한숨을 내쉬게 되었다.

그러나 김병일 청장의 취임은 ISI대회 준비와 관련하여도 새로운 추진력과 활력소를 보여준 좋은 계기가 됐고 그의 지원은 매우 적극적이었으며 ISI에 대한 이해도 짧은 시간 동안에 매우 깊어졌다. 그는 모든 것을 하나하나 직접 챙기고 있었다.

그리고 Cutting Edge 회의를 이용해 통계청 직원의 국제 감각과 회의 준비 연습의 기회로 삼았던 것 같다.

7. ISI서울대회 공식초청

ISI 제51차 대회는 1997년 8월 터키의 Istanbul에서 열렸고 한국 대표단은 크게 강화되었으며 서울 개최 준비를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김병일 통계청장은 ISI 회장단과 사무국장 등을 오찬에 초청하여 한국 준비상황을 자세히 설명했고 이미 그들은 한국이 개최능력을 갖추고 모든 준비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받아들이는 것 같았다. ISI총회에서 터키 주재 한국대사의 초청연설이 있어 서울대회는 모든 것이 공식적으로 확정되었다. 김병일 청장은 청장으로서의 재임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으나 그의 국제적 감각과 기획력으로 서울대회 준비에 큰 주춧돌을 놓고 영전되어 청을 떠

났다고 기억된다.

1998년 3월 운영대 청장이 새로 부임했으며 그는 취임직후부터 ISI대회 준비에 관해 직접 챙기기 시작했다. 1989년 대회유치가



제52차 대회 총회
2번째 줄 왼쪽부터 운영대 통계청장, 양동철 주핀란드 한국대
사, 필자.

시작되면서 일
곱 번째 통계
청장인 셈이
다. 어렵게 때
로는 ISI의 중
요성을 설득하
여 마지막 주
자인 윤청장에
게 바톤이 넘
겨졌다. 그리
고 윤청장과
함께 오늘날까지
ISI대회의 성
공적 개최를

위해 모두 함께 노력했고 우리나라 통계와 통계인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패거리를 이루는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었다.

그 해 4월 운영대 청장은 정식으로 필자에게 ISI대회 준비를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을 당부했고 필자 역시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다. 이제는 통계청, 통계학회, 통계협회가 구체적이며 실행 가능한 계획과 이의 집행을 위해 하나하나 점검해 나가기 시작했다.

첫째로 헬싱키대회에서 보여줄 multislide 제작과 팜플렛 인

쇄 등이 시작되었고 윤청장의 고집스런 완벽주의는 통계청 직원들을 긴장시켰다. 그러나 그의 완벽주의와 탁월한 국제감각은 서울 대회 성공의 밑거름임을 이제는 모두가 쉽게 알게 되었다.

1999년 8월 헬싱키는 서늘하고 상큼한 우리의 초가을 같은 날씨였다. 통계청 직원, 학회 회원 등 많은 참석자가 한국에서 왔다. 제53차 대회를 위한 홍보부스, 홍보물 그리고 총회에서 보여준 multislide show, 청장의 초청연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하나하나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헬싱키대회가 주최측의 걱정과는 달리 지금까지의 가장 큰 대회가 되어 티모 르랜더 핀란드 통계청



1999. 4. 15. 네덜란드의 ISI 본부에서 52차 대회진행점검 및 53차 대회 준비보고모임에서, 당시 회장 Van Zwet교수, 현회장 Bodin, 핀란드대회 사무국장 Mellin, Gill 교수 등



제 52차(1999년) 헬싱키대회 대회장 옆 공원에서 한국대표단들과

장은 입이 벌어져 다물지를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연유에는 핀란드 통계학회장을 지낸 일카 멜른 교수가 2년간 대학을 휴직하고 대회준비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해온 것이 알려졌다. 우리들은 그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으며 그는 우리에게 다음 주최국인 독일에게 잘 전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바로 ISI 정신이 이것이구나 하고 생각했다. 9일간의 대회기간 중 주말을 빼고는 하루도 한가한 날이 없었다. 이에 필자는 Local Program Committee 위원장과 ISI Program Coordinating Committee의 부위원장으로 모든 중요회의에 참석해야 했다. 그 와중에서 차기 회장단 추천위원회에서는 필자에게 ISI 부회장으로 출마하기를 권고하여 추천하는 일도 있었다. 윤청장을 위시한 통계청 참석자들은 모든 회의와 관광프로그램까지 일일이 점검하고 핀란드 통계청에 들려 준비담당자들과 연석회의를 통해 모든 궁금증을 풀어가고 있었다. 헬싱키

대회의 완벽함과 최고 참석률은 우리를 긴장시켰다. 차라리 카이로대회 다음이었더라면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러나 우리도 최선을 다하면 이 정도는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다짐했다.

8. 서울대회 준비

ISI 프로그램 조정위원회 위원장인 Richard Gill 교수와 위원들은 총 7~8시간의 마라톤 회의로 각 Section과 ISI Program Committee가 제출한 수많은 topic 중에서 80여개의 소위 초청논문회의(IPM)의 제목과 organizer를 선택하는 등 대회 종료 전에 발표해야 하는 중압감에 차 있었다. ISI서울대회의 성패는 회의주제와 발표자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니 가능하면 더 많은 참석자를 불러들일 흥미 있고 우수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Internet Day의 생각도 이 때 했다. 그리고 관련 타학회 초청 meeting도 적극 고려해야 했고 헬싱키대회부터 생긴 tutorial도 중요했다. 그뿐 아니라 기고논문회의(CPM)에 많은 발표를 유도하는 방법도 지금부터 생각해야 했다.

1) LPC 사무실

1999년 가을, 헬싱키대회를 마친 후부터는 결국 '결자해지'의 신세로 1989년 파리에서의 대회 제안자 중의 하나였던 필자는 ISI

대회에 거의 매일 몰두해야 했다. LPC는 ISI대회의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을 현장에서 준비, 관리하는 임무를 갖고 있어 학계의 협조가 필수적이었다. 따라서 모든 조직과 운영은 조직위원회를 총괄하는 통계청이 맡고 프로그램은 학계의 몫인 셈이다. LPC는 따라서 학회와 통계청의 연결고리역할을 하게 되고 대외적으로는 모든 논문 발표자와의 창문이 되었다. LPC 위원장을 맡은 필자는 현직 교수의 입장에서 2년간 겸무해야 했기 때문에 별도의 사무실과 도와줄 사무 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통계청은 이런 사정을 잘 이해하여 주었다. 그리고 통계청 서울 사무소에 LPC 사무실을 그해 10월에 마련하여 현관식을 준비해 주었고 또한 2년간 LPC 업무를 보조해 줄 임시직원도 채용하기로 했다. 국제과에서 광고하여 최종으로 세명의 지원자가 면접을 치렀다. 첫째는 영어회화와 작문이 중요한 자격이 되고 둘째는 컴퓨터를 다루는 실력이었다. 이 즈음에는 소위 국제회의를 대행하고 준비해주는 PCO(Professional Conference Organizer)라는 회사들이 생겨나고 있었으며 몇몇 대학에서는 국제회의 관련학과가 생기고 있었다. 따라서 LPC에서 일하는 경험은 장차 PCO 업종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영어와 컴퓨터에 능통한 여성들은 많은 관심을 보였다. 다들 훌륭한 자격을 갖추고 있었으나 그 중에서도 이영미양은 탁월했다. 그는 이미 유사한 일에 도우미 경험도 있었고 독일 주정부의 서울사무소에 근무 중에 있었다. 그런데 필자는 당분간을 대학의 강의 때문에 일주일에 2일 정도만 LPC 사무실에서 일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영미양 혼자서는 사무실을 지키고 업무를 보기에는 힘들 것으로 생각됐다. 그러던 차에 관광공사가 큰 국제회의를 지

원해주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김연주양을 우리 사무실에 파견해 주어 합류하게 되었다. 이 두 사람은 그로부터 2년간 필자와 함께 LPC일을 준비해 나가게 되었으며 이번 ISI대회에 숨은 공헌을 하게 되었다.

국내 프로그램위원회로 불리기도 하는 LPC는 우선 위원회의 구성 자체도 통계의 다양성만큼 다양해야 했다. 그래서 1999년 6월에 이미 19명의 위원을 위촉하였고 기본방향과 업무를 설정해 놓고 있었다.

그러나 실질적인 일은 헬싱키대회에서 IP의 선정이 끝나고 각 IP의 organizer와 발표자 및 토론자가 결정된 이후에나 시작된다. 그렇지만 기고 논문발표(CP)는 ISI 서울대회 Information Bulletin No.1에 그 제목이 소개되기 때문에 LPC에서 예상되는 분야와 또한 강조되는 분야를 미리부터 선정해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LPC의 위원중 학계의 각 분야별, 대표적 통계생산기관 및 유관학회의 대표가 자기분야의 의견을 수렴해야 했다.

또한 1999년 말까지는 IP의 list가 완성되고 주관자와 발표자가 선정돼야 2000년 8월에 인쇄될 Information Bulletin No.1에 게재되고 홍보될 수 있었다. 그러나 IP list 중에는 마감시간을 지나 오래도록 확정되지 못한 것도 허다했다.

원래 ISI대회에서는 ISI의 5개 section 즉 Bernoulli Society, IASC, IAOS, IASS 및 IASE가 초청 논문회의(IP)의 제목을 제출하고 또한 ISI의 프로그램 위원회가 section과는 별도로 section이 다루지 않는 분야와 아직 section은 형성되지 않으나 committee로 존재하는(예: life science) 분야를 대신해서 IP를

신청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므로 ISI 회원이나 이의 section의 회원은 각자가 속한 section의 프로그램위원회를 통해 IP topic을 제안하고 원한다면 이의 organizer로 선택되기 위해 그 내용과 당위성, 초청 발표자 등을 준비하여 오래 전에 신청해야 한다.

실은 이러한 절차에 무관심한 회원들은 모든 것이 결정된 이후에 늦게 제안하여 프로그램 위원회측을 당황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IP의 organizer나 발표자들도 소위 '중요 마감일'로 정해져 있는 제 날자 이전에 필요한 문건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다.

LPC 사무실에서는 86개의 IP와 제목, 주관자명단이 크게 붙여지고 거기에 모든 사항을 매일매일 점검하고 필요하면 E-mail로 당사자에 통보하는 현황판을 설치하게 되었다. PCC 위원장인 Gill 교수와 LPC의 끊임없는 성화에도 빈칸으로 남은 IP는 허다했다.

2) 실무위원회와 schedule

Information Bulletin No.1에는 포함되어야 할 CP 제목을 제시하는 것이 우선 급했다. Helsinki대회의 목록을 참고하여, 실제로 논문발표가 없었던 CP제목과 또한 원래 목록에는 없었으나 실제 대회 시에는 발표된 것 등을 일일이 점검하였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분야와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할 만한 통계관련분야의 제목들도 찾아야 했다.

LPC회의는 전체적이고 커다란 틀을 논의하기에는 좋으나 이러한 세심한 작업을 위해서는 적절한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프로그램 실무위원회라고 하여 소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실무위원회는 소수의 위원으로 소위 working group 형태로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이었다. 여기에는 이정진, 전명식, 이용구, 김영일, 김영원, 김상용 교수가 기꺼이 참여해 주었으며 이들은 대회가 끝나는 날까지 밤에도, 주말에도 모여서 준비에 전념해 주었다. 이들의 도움은 대회의 성공에 큰 밑거름이 되었음을 밝혀두고 싶다.

실무위원회는 CP 선정은 물론이고 2001년 3월 이후에는 IP Schedule, CP Schedule등을 짜야했다. 그러나 사전에 주문했던 날짜와 다르게 Schedule 수정을 요구하는 참가자들은 끊임없이 변경을 요청해오고 있었다. 이해 7월에는 최종 program book이 완성되어야 했는데도 상당수의 발표 Schedule은 그 이후에도 변경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에 IP 하나를 주관하기로 했던 Eurostat가 포기 선언을 해 왔다. 상당히 난감했다. 그 이유는 Eurostat가 주관하는 IP를 대회 끝날 오후에 배정해 놓은 것에 대한 반발임을 알았다. 우리의 생각은 Eurostat나 각국의 통계기관에서 참석하는 참가자는 대학에서 온 참가자보다 형편이 좋다고 생각하여 대회 마지막까지 참여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모든 행사에 많은 중요인사가 참석할 것이라는 계산이었다. 모든 경로를 통해 설득한 결과로 Eurostat의 IP는 결국 우리 계획대로 대회 마지막 날 오후에 개최되었다.

하나의 IP 또는 CP가 시간이 바뀌면 몇 개가 연쇄적으로 바뀌

게 된다. 왜냐하면 연관 분야가 같은 time slot에 들어가면 둘 다 참석하고자 하는 사람이 불평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회는 8일간 열리지만 개회식, 총회, 그리고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을 제하면 1일 3개의 시간대(135분씩)가 가능하여 실제로 학술회의는 14개의 시간대로 운영된다. 하루에 오전 9:15, 오후 13:15, 15:45에 시작하여 각각 135분씩 진행되는 3개의 시간대가 가능하다. 각각의 시간대(time slot)에는 IP가 동시에 6개가 열리고 같은 시간에 CP는 8개까지 진행된다. 즉 동시에 14개의 발표가 진행되는 엄청난 대회이다.

ISI대회는 원래 9일간 열렸었는데 너무나 길다는 주장이 있어 8일로 단축되고 우리가 이러한 단축대회를 시작한 후 두 번째였다. 뿐만 아니라 각종 행정회의가 많아 서울대회에서는 처음으로 7:30의 오전 조찬모임(Breakfast Meeting)을 실시했고, 많은 참석자들이 여름의 긴 저녁시간에 관광 등 더욱 의미 있는 자유시간을 갖도록 배려해서 오후 늦은 시간의 저녁회의는 없었다. 그 대신 아침 이른 시간의 행정회의에서 ISI 사상 처음으로 간단한 아침식사를 제공했으며 이 역시 호응은 대만족이었다. 물론 준비하는 주최측의 노고와 새벽부터 동원된 도우미들이 너무나 고맙게 생각됐다. 또 하나의 '서울에서 최초'로 된 것이었다.

3) 참석자 2001명 목표

대회 조직위원장인 운영대 통계청장은 서울대회가 2001년에 열

리게 되니 참석자를 2001명으로 목표치를 잡아야 한다고 농반 진반으로 이야기하곤 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속으로 그것은 하나의 목표 또는 rhetoric이지 그렇게 될까 하고 있었다.

2001년 초에 들어 web을 통해 사전등록이 시작되면서부터는 매일 매일 긴장의 연속이었다. 물론 Helsinki는 유럽에 있기 때문에 참석자가 많았지만 우리의 경우는 유럽과 미국에서 멀기 때문에 그러한 규모는 생각하기 어려웠다. 뿐만 아니라 동경과 북경의 회의 때 외국인 참석자는 유럽에서 열린 대회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소규모이므로 내국인을 포함하여 1500명이면 성공이라고 수근거리고 있었다.

그러나 윤청장의 노력은 대단했다. 일본, 중국과 같은 이웃나라에서 많이 와야 하고 미국의 서부에도 집중 홍보해야 한다고 했다. 우리 일행은 2001년 3월 초 UN에서 UN통계위원회와 연결한 ISI 회장단 회의에 참석하고 귀국길에 일본에 들르기로 했다.

3월 초 통계청장 일행은 이 회의를 위해 New York으로 직접 갔으나 필자는 IASC 편집위원장이며 IASC 차기회장인 Stan Azen교수가 있는 LA를 먼저 들렀다. 그리고는 이미 참석키로 한 사람들 외에 대학원생을 많이 참석시키기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Azen 교수는 1994년 제2차 IASC World Congress 때에 필자가 크게 지원하여 회의를 성공적으로 주관했던 일이 있어 매우 열성적으로 그의 network을 총동원했다. 뿐만 아니라 ISI대회에 개최지 인접 나라에서 대학원생을 많이 유치하는 것은 ISI 장래에도 크게 도움되는 것으로 생각했다. 실은 이것이 계기가 되어 대학원생 등록비를 대폭 할인하여 미화 \$50로 결정하게 된 것은 이런 생각

과 맥을 같이한 것으로 기억된다.

UN에서 회의를 마치고 귀국길에 동경에 들른 청장 일행은 일본통계국 및 통계 협회 인사들과 만나 상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고, 필자는 따로 일본통계학회 회장 Sugiyama 교수를 만나 참가 독려를 숙의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일본인 참석자는 예상 외로 많았다. 윤청장은 그 후에 중국, 호주 등을 독려하여 또한 성공적인 협조를 얻어냈다. 모든 것이 노력여하에 따른다는 원리를 다시금 상기하게 됐다.

4) 일본인 참석자

Sugiyama 교수는 실제로 자기 대학의 학생 9명을 서울대회로 보냈고 필자는 고려대 외국인 숙소애 그들을 수용했다. 그러나 이런 대화의 와중에서 필자는 일본 통계학자들이 크게 주최측에 대해 오해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 가장 가까운 한국이 53차 ISI대회를 주최하면서 일본인에게 초청회의(IP)를 많이 배정하지 않았다고 내심 불쾌히 생각하고 있는 것이었다. 필자는 IP선정을 PCC가 Helsinki에서 이미 결정했고 그 이전에 각각의 section에서 제안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Helsinki대회 보다 몇 달 전에 이미 진행되어, 한국의 LPC는 실제로 그 이후에 모든 일을 담당한다고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그제야 그들이 평소 ISI의 절차와 관행에 대해 잘못 알고 있음을 시인했다. Sugiyama 교수는 친절하게도 대학원 지도를 활발히 하는 일본의 통계학 교수 150여명의 명단과

이들의 E-mail 주소를 보내 주었고 필자는 일일이 이들에게 그 간의 경과와 ISI 프로그램 선정 절차와 서울대회의 중요한 내용과 함께 많은 참석을 부탁하는 서한을 보냈다. 호응은 대단했으며 많은 분들이 일일이 답장해 주어 흐뭇했고 한일통계 관계가 앞으로 이를 계기로 한층 더 좋아질 것으로 생각했다.

5) 논문접수

2001년 4월은 논문접수가 마감되고 ISI 2001 Home Page에서 이들을 검색하여 찾아 볼 수도 있게 되었다. Internet의 위력이 서울대회에서 그 극치에 온 것 같고 모든 것이 잘 진행되는 듯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필자는 검색 프로그램에 오류를 발견하고 실무위원회에서 이를 세심하게 검토하게 되었다. 실무위원회의 이정진 교수는 컴퓨터와 관련된 전문지식을 갖고 있으므로 이미 PCO에게 항상 이교수의 자문을 받으라고 부탁했던 차에 이런 일이 생겼다. 논문 분류의 문제와 결부된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이미 실무위원회는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시간을 들여 논문주제 분류체계를 만들어서 접수된 논문의 검색을 할 수 있게 해 놓았다.

대회까지는 그리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고 프로그램을 담당할 PCO의 인력은 태부족이고, 실제로 프로그램 용역을 수행하는 회사와는 쉽게 연결되지 않았다. 그러던 중의 어느 날 이런 일이 발생했고 긴급회의를 소집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이정진 교수와 그 조교들과 필자의 조교들이 하루 종일 그 많은 내용을 print out 하

여 일일이 점검하는 소동으로 일은 마무리되어 크게 다행으로 생각됐다. 모두 처음 하는 일이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마도 PCO는 좋은 경험을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6) 언론홍보용 해설집

통계를 주제로 하는 회의가 일반 언론에 크게 보도될 것 같지는 않았다. 물론 첫날 개회식은 국가적 행사일 뿐 아니라 정부의 고위 인사들을 위시하여 국내외 저명인사들이 많이 참석하는 관계로 TV나 신문의 보도가 어느 정도 기대되기는 했다. 이렇게 큰 회의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고 국제적 인정을 받는 일은 흔치 않다. 그리고 정보화시대를 여는 중요한 무형의 SOC(사회간접자본)로 여기는 통계의 중요성을 사회가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좋은 계기로 삼으려면 언론이 ISI대회를 잘 인식하고 보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938편의 다양하고 전문적인 논문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겠으나 일반사회나 언론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의 논문을 선정하여 이를 알기 쉽게 해설하는 자료를 만드는 것이 우선 우리가 해야 할 일로 생각됐다. LPC가 마련한 분류에 의한 주제에 따라 실무위원들에서 논문선정 및 요약, 해설을 부탁했고 실무위원의 전공을 벗어나는 주제의 논문은 통계청의 전문가들과 통계학회의 여러 학자들에게 부탁했다. 여름방학에 접어들기 시작하는 6월의 대학교수들은 논문심사나 기말고사 등으로 여간 바쁘지 않다. 그럼에도 모두가 성심껏 이 일에 응해 주었고 이렇게 만든 해설서는 제대로 모양이

갖추어졌고 내용 역시 훌륭했다.

뿐만 아니라 요약 및 해석을 담당했던 분들은 그 논문이 발표되는 날에는 COEX에 마련한 학회 대기실에서 혹시 자세히 설명해야 할지 모르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비해서 당직으로 와있게 하였다. 그러나 우리 언론의 수준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인지 또는 내용이 그래도 너무 전문적이었던지 모르지만 이에 투입된 노력에 비해 성과가 그리 크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게 생각된다.

7) 동시통역

원래 ISI의 공식언어는 영어와 불어이다. 따라서 모든 문서는 영·불어로 출판되는 것이 원칙이고 ISI대회 또한 두 언어가 공용된다. 그러나 동시통역의 비용은 만만치 않으며 실제로 불어권 참가자도 대부분 영어로 발표하고 있다. 그럼에도 프랑스 대표는 항상 동시통역을 주장해 왔으나 최근에는 많이 수그러들어 일부 IP만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주최국의 예산이 문제도 되고 영어/불어의 동시통역도 통계주제를 잘 이해할 수 있는 통역팀은 흔치가 않다. ISI/EC에서도 이를 감안하여 최소의 체면치레로 시간대별로 IP 하나씩만 통역하는 것으로 양해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니 동시에 6개의 IP가 진행되니 그 중에 하나씩 선택해야 했다. 처음부터 14개의 IP를 선택하고 이들을 각기 다른 시간대로 분산시킨 것이다.

통역이 될 IP의 선정은 일차로 프로그램위원장인 Gill 교수와 필자가 하였고, 여기에는 아프리카의 불어권 참가자를 크게 고려한 것이다. 그 후에는 다시 프랑스 통계학회에 자문을 구했다. 대체로 우리의 선택과 유사하였다.

언젠가는 통역이 불필요한 대회가 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경제적 부담을 안고서도 그렇게 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던 차에 운청장의 중국 방문에 중국어 통역을 중국인이 관심이 있는 분야에 제공하기로 했고, 통역시설은 우리나라가 제공하나 통역은 중국에서 직접 맡기로 하여 많은 중국인 참석을 용이하게 했으며 중국 통계청도 자기 나라 외무부에 좋은 명분을 제공하여 모든 일은 쉽게 풀린 셈이다.

8) 대학생 도우미와 당직교수

ISI대회 규모의 국제학술회의는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는 최초가 아닌가 싶다. 초청논문이 총 250편 그리고 기고논문이 688편, 합하여 938편의 논문이 발표되며 발표장 역시 크기가 다양하여 50명을 수용하는 작은 방에서부터 500명을 수용하는 강당규모에 이르는 방들이 동시에 14개가 사용되었다. 뿐만 아니라 발표에 필요한 설비 또한 가히 전자시대에 걸맞게 컴퓨터에 연결된 Beam 프로젝터도 모두 갖추었다. 따라서 발표시간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기고논문은 대개 15분 정도, 초청논문은 25분 정도가 주어지므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시간엄수와 기기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했

다. 각 방에는 통계청에서 뽑혀온 요원과 흔히 '도우미'로 불리는 대학생 자원봉사요원이 투입됐고 이들은 철저한 예행연습을 거쳤으며 LPC 본부에서 대기하는 '당직교수'와 긴밀한 연락을 취하며 회의에 임하고 있었다.

흔히 ISI대회에는 논문을 제출해 놓고도 현장 발표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꽤 있다. 심지어는 각 회의의 좌장이 'No Show'인 경우도 있었다. 이를 대비해서 '대리좌장'도 미리 대기하는 철저한 준비를 해왔다.

학술 발표장에는 40여명의 대학생 도우미가 동원됐는데 그들은 아침 새벽부터 매우 책임감 있게 각자의 임무를 철저히 수행해주어 너무나 대견스러웠다. 전체로 대회에서 일한 대학생 도우미는 140여명으로 이들은 3:1이라는 경쟁을 통해 선발되었고 이들은 거의가 영어, 일어, 또는 중국어로 대화가 가능한 우수한 학생들로 우리 대학생의 국제화 일면을 보는 즐거움도 있었다. 발표장에 근무한 학생들은 통계학이나 이와 관련된 전공생들로서 세계적인 통계학자나 통계기관장들을 만나는 영광을 가질 수도 있었다. 이들 모두는 미래에 ISI대회가 다시 한 번 서울에서 개최될 때에 2001년 8월을 기억하게 될 것이며 그때의 주인공으로 잘 성장해 나가길 기원한다.

9. 서울대회기간 (2000. 8. 22.~29.)

1) 대회는 시작되었다

2001년 8월 22일 오후 4시 대회 개회식은 거창하고 화려하게 막이 올랐다. 21일 밤 11시가 넘도록 마지막 예행연습을 총지휘하던 윤청장은 긴장되어 있었고 총리, 부총리의 연설은 의례적인 것이었으나 국가적 행사로 매김 하는 역할이 됐다. 뿐만 아니라 외국 원수의 방문으로 참석치 못한 대통령의 녹화된 인사말은 회의의 비중을 높여 준다고 생각됐다.

이어서 있던 공연과 reception은 대단했다. “대성공이다” 그리



개회식후의 reception에서 C.R.Rao교수와.

고 “시작이 반이다” 라는 생각으로 마음은 진정되기 시작했다. 모든 행사가 그렇듯 2년 이상의 준비가 몇 시간의 클라이막스로 달아오르고 희열과 허탈이 번갈아 지나가는 것 같았다.

다음날인 23일

은 오전 일찍부터 행정회의가 열리고 9시 15분이면 일제히 학술회의가 시작된다. 첫날, 그리고 첫 시간대가 무난하게 아니 성공적으로 끝나면 우리 모두는 한시름 놓게 될 것이다. 9시 30분경 각 회의장에서 보고가 들어왔다. 모두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었다. 11시 30분이 지나면서 도우미들의 현장보고서가 LPC 사무실로 도착했다. 학술회의는 물 흐르듯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 LPC 위원 그리고 실무위원회 위원들도 안도하는 모습이 보였다.

2) 행정회의

필자는 이번 대회 시점에서 ISI의 3명의 부회장 중에 한 사람으로 ISI의 재정 문제를 담당하게 되어 있었고, 또한 두 번째로 큰 Section인 IASC의 회장으로도 2년 임기가 시작되는 것이다. 따라서 LPC일 이외에 ISI Council meeting, EC 그리고 IASC이사회와 총회도 주관해야 하는 매우 바쁜 스케줄로 틈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차기 개최국인 독일과 차차기의 호주대회 준비 담당들과도 긴밀한 의견교환이 있었다. 그들은 우리의 모든 것을 매우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었으며 아주 예리한 질문을 가지고 회의를 요청해왔다. 이제는 우리가 '대회 경험 수출국'이 된 셈이다. 나도 다음 회의부터는 참가자로 남의 회의를 편안히 즐기게 될 것이라고 속으로 생각했다.

모든 행정회의에 배치된 도우미도 철저했다. 아침회의는 7시에 시작되니 최소한 30분 전에는 참석자들을 위한 간단한 아침식사도

회의실마다 준비되어야 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시작될 첫 시간대의 학술회의도 차질 없어야 했다. 이 모든 것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진행되었다.

3) 사교행사(Social Program)

ISI대회에서는 학술발표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social program이다. 이번 서울대회는 그런 면에서도 크게 성공적으로 평가해 주었다.

물론 개회식과 이에 이어서 가진 공연과 주최측의 환영 reception은 매우 흡족하게 받아들여졌다. 그리고 대회 둘째 날의 서울시장 주최 환영연도 매우 좋다고들 이야기했다. 첫날의 음악 연주에 비해 매우 역동적인 「난타」라는 새로운 공연이 참석자들에게 또 다른 한국을 보여 준 것으로 생각된다. 단지 모두들 아쉽게 생각했던 것은 주류가 부족해서 그 좋은 음식을 더 맛있게 들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의 평가는 이미 꽤 많은 참석자가 취해 있는 모습이 보였다고 하여 더 이상 알코올을 대접해서는 안 된다고 하니 항상 적당히 모자란다는 것이 무난한 듯 했다.

대회마다 특색을 가지고 베푸는 소위 VIP Dinner라는 것이 있다. 여기에는 각국의 통계기관장, 주요학회장, 그리고 저명한 학자 등이 개별적으로 초청되고 또한 53차 대회의 모든 준비를 맡은 주최측의 일꾼들도 참석하는 매우 의미 있는 사교의 장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강 위의 유람선에서의 공연과 만찬, 그리고 불꽃놀이는 가히 환상적이었다. 필자도 한강 유람선에서 식사를 해 본 적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한강 위에서 보는 강남, 강북의 야경은 또 하나의 절경이었다. 이제부터는 모든 국제행사에 한 번쯤 고려해 봄직한 코스로 여겨진다. 식사중 사회자가 갑자기 필자에게 한 말씀 하라고 한다. 얼떨결에 몇 마디 joke와 곁들여 마침 준비된 피아노와 유사한 악기가 있어 IASC 차기



리틀엔젤스 회관에서 열린 '한국의 밤' 행사

회장인 Azen 교수에게 필자의 이야기를 '반주' 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잘 연주해 주었다. 모두들 편안한 마음으로 담소하며 저녁을 즐기는 모습은 ISI대회가 가져다주는 또하나의 성취일 것이다. 초청되었던 모든 참석자는 몇 번이고 감사의 표시를 해 왔다. C.R. Rao 교수 부부는 너무나 고마워했고 일본 통계학회 회장 Sugiyama 교수는 어린 막내까지 참석시켜서 너무도 좋아했다. 그들 모두 한강위의 Dinner를 오랫동안 기억할 것이다.

또 하나의 환성은 '한국의 밤' 행사에서였다. Little Angels회관의 공연이었다. 행사장을 향해서 줄이은 버스 앞뒤에 경찰의 경호를 받으며 최단시간에 행사장에 도착했다. 그리고 숨을 죽이고 때로는 폭소하는 참석자들은 잠시 ISI의 무거움을 잊은 듯했다. 주최측은 이날 행사장에서의 환영인사를 LPC 위원장에게 부탁하여 필자는 어린이 공연단의 소개와 내일 발표가 있더라도 잊어버리고, 또한 LPC에서는 이제 더 이상 논문독촉을 앓겠다고 하여 폭소를 자아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내용 중 몇 개가 미국적이거나 약간 종교적인 주제가 있는 음악이었던 점이다. 대부분의 참석자는 별 불만을 보이지 않았으나 몇몇이 불평을 토론하기도 했다. 이 날의 공연 중에 대형 ISI기를 들고 행진하는 장면이 있었다. 다음 날 ISI회장 Bodin씨 부인이 LPC 사무실로 급히 찾아왔다. 그리고는 가능하면 그때 사용된 ISI 깃발을 따로 하나 구해 줄 것을 부탁했다. 그리고 도우미의 녹색 셔츠도 하나 구해 달라고 했다. 역시 ISI 회장 부인답다. ISI 서울대회를 오랫동안 기억하고 싶어했다. 미처 생각지 못한 것이므로 필자는 최봉호 과장께 부탁하여 공연장에 알아보고 구해 달라고 했다. 다행히 깃발 세 개가 확보됐고 그 중 하나를 Bodin씨 부인에게 전했다. 그 후에 Bodin 부인은 e-mail로 사진 하나를 보내왔다. Bodin씨 서재 위에 ISI 깃발을 붙여 놓은 것이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남편이 출장 다녀올 때 놀라게 할 계획이라고 했다. Bodin씨 부인 덕택으로 필자도 ISI깃발을 기념품으로 얻어서 보관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뻐했다.

대회의 종반에 이르러 있었던 환송만찬은 워커히호텔의 야외에서 있었다. 매우 아늑한 곳으로 마침 보름달이 보이는 한국의 초가

을 저녁 풍경이 물씬했다. 환송만찬은 참석자의 자비 부담이다. LPC에서 수고한 분들에게 필자가 마련한 후원금으로 만찬 ticket 을 사서 선물했다. 음식도 좋고, 회의에 대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 또는 지도교수를 초청한 젊은 통계학자들, 그리고 ISI의 주요인사들이 모두 즐거워했다. 어린이들의 태권도시범이 시작되어 흥미를 제법 돋구었다. 그러나 너무 길어져 싫증이 나기 시작한 것 같았으며 주프로그램으로 가수 한사람이 도대체 분위기에 맞지 않은 공연을 지리하게 진행했다. 이제나저제나 좀더 신바람 나는 공연이 있겠지 했으나 그러지 못했다. 막판에는 할 수 없이 최봉호 과장이 자청해서 무대로 나와 많은 사람들을 불러내고 같이 춤을 추자고 해서 막 새로운 흥이 돌아지는듯 했는데 show는 그만 막을 내렸다. 아무도 재미있다는 이야기를 내게 하지 않은 유일한 행사였다.

후에 알아본 즉 모든 행사는 직접 사전 점검을 했는데 PCO측이 워낙 자신 있다고 해서 이날 프로그램만은 사전에 확인 없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서울대회에서의 단 하나의 '오점'인 셈이다. 모든 것은 반드시 점검, 또 점검해야 하나 보다.

4) 주말관광

ISI대회가 갖는 또 하나의 중요행사는 회의기간 중간에 있는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의 관광 프로그램이다. 회의 유치 이후에 항상 고민해 오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당일 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수원화성을 둘러보는 외국인 참가자들.

는 한나절의 관광코스는 세계가 주목할 만한 것이 별로 없기 때문이었다. 중국의 만리장성이나 카이로의 피라미드 수준은 물론 없다. 뿐만 아니라 관광과 관련된 역사가 짧다.

외국의 경우에는 별것도

아닌 것을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로 세련된 안내원이 설명하는 '듣는 구경거리'가 많다. 서울대회의 집행위원장인 남 번 국장은 이와 관련 일일이 점검에 나섰다.

필자는 폭우가 쏟아지는 주말 남국장, 최과장과 함께 종묘, 비원 등을 답사했다. 문제는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했던 역사적 유물에 대해 우리는 정말로 잘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영어로 관광안내를 잘하는 전문인이 부족하며 관광지와 관련된 재미있는 일화를 발견하여 좋은 패키지로 만드는 기술과 노력이 부족해서이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들은 아주 소규모 관광회사에서 이런 우려를 불식시켜주는 것을 발견했다. 결국 우리나라의 관광의 문제는 연구 부족에 기인하며 인력양성에 투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우리 일행은 강화도의 일요관광도 사전 답사했다. 볼거리도 꽤 있으며 관광안내자도 그 정도면 됐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200명 가까운 일행이 식사할 만한 식당이 없었고 서울-강화간의 교통이 제일 큰 난제였다. 통계청의 끈질긴 노력은 강화군의 사물놀이를

동원했고, 세상에 잘 알려져 있지 않던 '최초의 성공회교회'는 숨어있는 관광의 보배였다. 뿐만 아니라 개화 초기의 프랑스와 미국의 강화도 침략사는 프랑스와 미국참가자를 당황케하는 역사의 일면이었다. 그들은 이런 침략사를 전에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여 모두들 그저 한바탕 웃는 것으로 넘기고 말았다. 서양사람에게는 강화도 관광이 좀 다른 의미가 있다고 느껴졌다. 외국참가자들 대부분 주말관광에 만족했으며 후에 들은 것으로 이천의 도자기 EXPO 또한 좋은 볼거리로 여겨졌다.

원래 학회회원들은 교수부지의 자전거 타기 또는 단축 마라톤과 북한산 등산을 주말관광에 포함하기를 원했었다. PCC위원장인 Gill 교수는 우리나라의 산에 미쳐있었다. 2000년 10월 사전협약차 한국에 왔을 때 그는 벌써 계룡산을 종주 했었다. 그것도 그럴 것이 Gill 교수는 평지인 네덜란드에서 인공산에서 암벽 타기를 즐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하철로 갈 수 있는 서울 주변의 모든 산들은 그에게는 환상의 고지였다. 사전 방문시에 필자와 북한산을 오르며 좋아하던 그의 얼굴은 좀처럼 잊혀지지 않는다.

그러나 자세히 알고 보니 우리의 영세한 관광사업은 이런 관광코스답사에 필요한 보험지원이 없어 생각은 있어도 감히 실행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공식 프로그램에는 이런 훌륭한 관광자원을 포함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그러나 다행하게도 실무위원회의 김영일 교수는 등산팀을 데리고 주변의 산은 물론 회의가 끝나고 충북까지도 다녀왔다고 했다. 다녀온 외국인들은 한국은 등산광의 최고 관광지라고 필자에게 여러 번 귀뜸해 주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특별
강연
James J. Heckman교
수(왼쪽), Daniel McFa-
dden교수(오른쪽)



5)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ISI서울대회가 국내외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좀더 언론의 관심사가 될 행사가 필요했다. 이미 1999년 Helsinki에서부터 ISI 차기 회장 Bodin씨는 이런 한국측의 바람을 감지하여 당시의 노

벨경제학상 수상자를 접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1999년 수상자 초청은 성사되지 못했다. 그러던 중에 2000년 말 Bodin 회장은 2000년 공동수상자인 미국 버클리대학의 McFadden 교수와 시카고대학의 Heckman 교수를 접촉하여 초청에 일차적으로 성공하였다.

그 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넘기며 노벨상 수상자의 특장은 ISI서울대회의 위상을 한층 더 올려주었다.

이들의 도착과 출발은 각기 달랐으며 각기 완전히 정반대가 되는 듯했다. 여러 가지 중에서 e-mail 통신의 어려움과 청와대 방문에서 야기된 일화도 많았다. 다행히도 두분 모두 통계를 이용한 논문으로 노벨상을 수상하였기 때문에 ISI회원들의 관심 또한 높았다.

필자는 8월 25일 저녁 맥패든 교수의 오랜 동료였던 금호그룹의 박성용 명예회장 주최의 만찬에서 그를 처음 만났다. 이 자리에는 맥패든 교수 발표의 토론자였던 정기준도 참석했다. 맥패든 교수는 온화한 성품으로 매우 품위 있고 다정한 서양의 신사로 보였다. 만찬이 끝나고 금호아트홀에서 있었던 바이올린 독주회에 갔다가 회의장 옆의 숙소로 돌아오면서 필자는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IP No.0으로 되어있는 특별 Meeting은 시간제약으로 30분 정도 발표를 해줄 것을 부탁했다. 그랬더니 그는 자기는 더 줄여도 좋은데 아마 핵크만 교수는 이를 무시하고 두 배정도의 시간을 쓸 것이라고 귀뜸하며 각자 25분으로 정하고 초과시간을 여유 있게 하자고 제안했다. 아니나다를까 실제 발표는 핵크만 교수가 40분을 넘기면서도 불만스럽게 끝을 냈다. 그리고 이들의 서울방문은

소위 honorarium이 따로 없는 ISI 관례로 고려대, 서울대, KDI와 한국은행이 따로 초청세미나를 가짐으로써 적절한 강사료로 대신 보상할 수 있게 되었다. 이들의 협조는 서울대회에 보이지 않는 후원자로 감사히 기억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지순 교수를 비롯한 두 수상자의 제자들과 지인들이 총망라하여 나섰으며 이들의 도움 또한 행사뒷면에서 ISI 서울대회의 큰 힘이 되었다.

10. 뒤돌아보며

1) 하마터면...

서울대회는 8월 29일 수요일 성공적이며 무사하게 막을 내렸다. 야외 행사를 위해서는 매년 8월 말에 닥치는 태풍 걱정이 컸으나 대회기간은 쾌청이었다. 인간이 준비할 수 없는 것이 일기였거늘 우리의 대회는 천우신조를 얻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대회는 29일 끝났으나 뒷정리를 하고 또는 우리나라 대학에 들려 특강을 하기도 하고 또는 대전의 통계청을 방문해 상호 협의하는 등 많은 대표들은 일주일 후에야 모두 떠났다. 이렇게 9월초까지만 해도 LPC 사무실은 뒷정리와 그들 스케줄 등으로 분주했다.

NY의 9월 11일은 불행한 사건으로 아예 발생하지 않았어야 했으나 이 불행한 사태가 ISI서울대회의 모든 일정이 종료되고 모두들 귀국한 후에 벌어졌던 것도 우리에게는 '하마터면...'으로 기억

된다.

우리 통계인들의 국제적 잔치는 역사 뒤로 떠나갔다. 그러나 이 큰 행사는 우리의 통계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 틀림없다. 참가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감사 드리고, 모두가 고마워 했고, 준비에 힘 쏟았던 모두에게 머리 숙인다.

2) 'Club 2031'

필자는 개인적으로는 1989년부터 12년에 걸친 숙제를 마친 기분이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이렇게 국력을 결집하여 치른 행사의 수확을 생각해야 할 때다. 대외적인 우리의 위상, 국내에서의 통계에 대한 인식재고, 한국통계와 통계학의 질적 향상, 우리나라 통계인들의 긴밀한 협조체제,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 통계협력을 주도할 우리의 역할 등은 모두 중요한 성과이면서도 숙제로 남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세계적인 통계학회에 국내 학자들의 진출 및 적극적인 참여와 공식통계와 관련된 지역협력체제에 주역으로서의 역할이다. ASF(Asian Statistical Forum)는 1999년 대전서 운영대 청장의 아이디어로 ISF를 개최한 데서 시작되었고 그 후 2000년 일본에서 이어졌다. ASF에 관해서는 이번 대회에서 IP로 다루어졌으며 아직은 통일된 내용은 아니지만 지역 협력과 관·산·학의 협력을 위한 모임으로 이해되기 시작했다.

아시아 지역의 경제협력이나 자유무역 등은 이러한 통계협력체

제와 성과가 그 바탕이 될 수밖에 없으며 그 중에서도 한국의 역할은 주변 국가들의 은근한 기대 속에 주목되고 있는 것 같았다.

우리들의 ISI 서울대회는 지금까지의 관례로 보아 25년 내지 30년 후에 또다시 열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2031년에 ISI 서울대회는 우리 후손들의 또 하나의 목표가 된다. 필자는 2002년 9월경에 서울대회 1주년에 즈음하여 그동안 ISI 대회를 주관했거나 음으로 양으로 힘써온 통계인들과 그들의 후원자들로 구성되는 「Club 2031」을 발족시켰으면 한다. 여기서 우리들은 서울대회의 성과를 최대화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통계선진국을 향하는 기관차로 우리 통계와 통계인의 세계화에 앞장서는 일을 했으면 한다. 점점 멀어져가고 희미해지는 기억을 더듬으며 지난날을 몇 자 적어 보았다.

Ⅲ. 세계로 가는 통계청

— 남번 ISI서울대회 집행위원회 위원장,

전통계청 통계기획국장, 우리증권 감사

1. 한국 통계의 발달과 ISI대회의 유치

우리나라의 통계역사는 역사기록에 의하면 삼국시대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오늘날과 같은 현대적 의미의 통계를 만들기 시작한 것은 광복 이후 공보처 통계국 시절부터 출발하였다. 특히 1961년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제기획원이 발족되고 여기에 조사통계국이 이관되어 경제개발계획에 필요한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하면서 경제부문의 통계가 크게 확충되었다.

이후 1970년대 중반에는 정부의 정책이 균형적 사회개발 쪽으로 전환되면서 사회통계의 수요가 대두되었고 1980년대에 '통계 부문개발계획'이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의 한 부문으로 도입되

면서 통계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셈이다. 이 때부터 우리나라의 통계도 경제통계는 물론 사회분야의 통계와 심층분석통계가 개발, 발전되기 시작했으며 질적인 면에 있어서도 선진국의 통계 수준에 버금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던 중 1988년 올림픽을 계기로 하여 우리의 경제발전이 세계에 알려지며 우리나라의 위상이 한 단계 높아졌고, 이제 우리도 세계통계대회를 유치하여 통계분야에서 우리의 역량과 기술을 전 세계에 알리면서 통계청의 위상을 강화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이를 위하여, 서울 올림픽이 끝난 1989년 8월 프랑스 파리에서의 제47차 세계통계대회 때에 우리나라도 대회를 유치하고 싶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으며, 이후 1991년 카이로대회와 1993년 피렌체대회 때에는 보다 구체적이고 활발하게 유치활동을 전개하였다. 한편 정부 내에서는 1994년 7월 국무총리실로부터 국제대회의 유치를 공식으로 승인받았고, 1996년 3월 ISI 이사회에서는 2001년의 제53차 대회를 서울에서 개최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즉, 지난 수년간의 유치활동이 결실을 보게 되어 국내 통계인들이 크게 반겼고, 이를 계기로 한국의 통계가 국제무대에 당당히 나설 수 있는 도약의 기회가 마련된 셈이다.

2. 전(前) 대회의 준비상황을 파악

이제 대회의 유치결정은 끝났지만 앞으로 대회를 성공리에 마치기까지는 너무도 많은 난제들이 쌓여 있었다. 우선 우리 통계청이

그동안 통계부문에서 소규모의 세미나는 몇 차례 치러 본 경험은 있지만 2,000명이 참가할 대규모의 국제대회를 개최한 경험이 전혀 없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걱정이 앞섰다. 따라서 우리는 서울대회보다 앞서 열리는 대회의 모든 행사와 절차 등을 면밀히 파악하기로 하였다. 1995년에 북경에서 열린 대회의 기록을 검토한 다음, 1997년의 이스탄불대회와



대회 홍보포스터

1999년의 헬싱키대회에는 대규모의 직원을 파견하여 각 분야별로 우리가 준비할 사항을 하나 하나 체크하기로 하였다. 특히, 직전에 열린 헬싱키대회에는 대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것은 물론 예산, 등록, 논문접수와 PCO를 선정하는 것까지 모든 사항을 체크하였다. 한편으로는 2001년 서울대회의 참가자를 늘리기 위하여 총회에서는 운영대 통계청장이 직접 초청연설을 하였고 멀티슬라이드를 상영하는 등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크게 호응을 얻었다.

3. 2001년 서울대회의 준비를 위한 인력구성

통계청에서는 2001년 서울대회보다 전에 열리는 대회에 참가하여 여러 가지 준비상황을 파악하였으며 이제는 우리가 개최할 차

례가 되었다. 국제통계과의 직원들은 D데이를 헤아리기 시작하였으며 모두들 마음의 각오를 다짐하였다. 국제통계과의 직원들은 모이는 기회만 있으면 ISI의 성공을 기원하곤 하였다.

한편 본 대회의 준비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본인이 집행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운영대 통계청장이 조직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으며, 이한동 국무총리를 명예위원장으로 추대하였다. 또한 최봉호 국제통계과장이 사무국장을 맡으면서 실제 대회의 준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총괄하였다. 대회 준비를 위하여 행사전문업체인 '인티컴'을 PCO로 선정하였으며 사무국장의 지휘를 받도록 하였다. 아울러 공동주최기관인 대한통계협회와 한국통계학회와의 연락사항 등을 사무국장이 총괄하였다. 그리고 학술적인 논문이 많기 때문에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내학술프로그램위원회를 구성하고 25명의 위원을 위촉하였으며 고려대학교의 이재창 교수께서 위원장을 맡아 끝까지 수고해 주셨다. 즉, 논문의 편집과 정리를 위하여 학술프로그램위원회(위원장 Dr. Richard Gill)와 국내학술프로그램위원회가 서로 협조하여 초청논문 세션과 기고논문 세션을 조정하며 진행을 맡았다. 각 세션별로 사회자와 발표자를 선정하고 해당 논문을 접수, 정리하였다.

일선 현장에서 직접 활약하는 사람들로써 통계청 국제통계과의 직원은 물론 청내에서 선발된 진행요원들이 맡고 대학생들로 이루어진 자원봉사자들이 주로 외부에서의 행사를 도와 주었는데, 이들에게는 연두색의 유니폼을 입게 하여 외국인들은 행사진행요원을 소위 '그린가이드'라 불렀다. 이들 자원봉사자들을 선발하는데에도 아주 신중을 기하였다. 지원자가 너무 많은지라 서류심사



2000. 10. 학술프로그램위원장 Richard Gill 교수와 함께(2001.10)

와 영어면접을 거쳐 선발하였고 대회전에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가져 이들에 대하여 ISI대회에 임하는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면서 부문별 임무를 교육하였다. 나중에 어느 미국인 참가자는 행사요원의 유니폼이 너무 좋다면서 구하고 싶다고 하니 안내데스크에 근무하였던 행사요원이 대회가 끝날 무렵 자신의 유니폼을 벗어 건네 주었다고 한다.

4. 참가자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

서울대회에 되도록이면 국내외에서 많은 통계인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주력하였다. 특히 해외 참가자의 확대를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전력을 다 하였다. 직전 대회인 제52차 헬싱키대회에서의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느꼈다. 이를 위하여 통계청에서는 대규모의 참가단을 과감하여 서울대회를 적극 홍보하면서 분야별로 대회의 진행내용을 세밀히 파악하도록 하였다.



대회 홍보용 책갈피

당시 헬싱키대회는 직전 대회인 만큼 최선을 다해 홍보해야겠다는 작전으로 홍보자료를 많이 제작하였다. ISI 서울대회를 상징하는 대회 Logo를 만들어야 하는데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막막하였다. 청내 여러 직원들의 의견을 들었으나 마땅치 않아 홍익대의 김덕룡 교수께 부탁하여 만들었는데 아주 훌륭하다는 평을 들었다. 한국을 상징하는 태극문양을 바탕으로 하여 통계(Sta-

tistics)의 'S' 자 모양을 변형하였다. 또 서울대회의 'S' 자를 나타내기도 하여 나중에 국내외 참가자 모두 친숙해하였다. 그리고 한국 홍보용 멀티슬라이드 등 영상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많은 자료를 수집하였다. 예산이 적기 때문에 새로운 작품을 제작할 수는 없어 한국관광공사의 홍보용 슬라이드를 수정하여 만들기로 하였는데 이 또한 흡족치 않아 여러 번의 수정을 거듭하여 제작하였다. 이를 헬싱키대회 때 현지에서 실제 상영하였는데 많은 외국인들로부터 격찬을 받았다고 한다. 또한 헬싱키대회 때 ISI 임원들과 오찬을 함께 하면서 운영대 통계청장은 “다음 제53차 서울대회는 2001년에 개최되므로 최소한 2001명이 참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였고 그 때는 참가자들이 이 말을 농담으로 웃어

넘겼으나 우리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온갖 정성을 다하였던 것이다.

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끄기 위해서는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성공해야

했다. 질적인 것은 노벨상 수상자 등 저명한 학자를 초청하고 우수한 논문을 많이 발표하도록 하는 일인데 학술프로그램위원회에서 맡아 주었다. 따라서 통계청으로서는 참가자 수를 늘리는데 최대의 노력을 기울인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이미 대회가 열리기 전년 말부터 등록자수를 매일 점검하였다. 외국인등록자 수와 동반자, 그리고 내국인 등록자 수, 논문발표자 등을 국가별로 체크하여 단 한 사람의 외국인이라도 더 참가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 하였다. 지금 생각하니 하루하루 마음줄이며 외국인 등록자 수를 헤아리던 때의 감회가 새롭게 느껴진다.

이 과정에서 특이한 것은 북한 중앙통계국 인사를 초청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세계적으로 이념논쟁이 사라지고 화해무드가 조성되면서 남북간에도 2000년에 정상회담이 개최되기에 이르렀다. 좀 더 긴 안목으로 보면 남북간의 통계통합 준비를 할 필요도 있고 하여 이번 기회에 북한 통계관계인사를 초청하고자 국내의 관계당국에도 협조를 요청하였고 ISI사무국은 물론 UNDP 등을 통해서도 북한에 서울대회의 초청장을 전달했으나 그들은 끝내 회답이 없었다. 북한 체제의 특성상 통계를 하나의 기밀정보로 여기고 있



헬싱키대회 때 설치·운영한 서울대회 홍보부스

는 고로 아직도 통계부문에서는 대외접촉을 극히 꺼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로서는 상당히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었다.

해외 참가자 수를 늘리기 위하여 통계청장은 물론 청내 직원이 참가하는 모든 국제행사에는 필히 제53차 서울대회를 홍보하는 유인물을 배부하면서 서울대회의 참가를 권유하였으며, 전략상 필요한 국가에는 통계청장이 직접 방문하면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즉, 일본, 중국, 홍콩, 호주와 뉴질랜드를 방문하면서 통계관련인사와 학자들을 만나 서울대회를 설명하면서 적극적인 참가를 유도하였다.

또, 직접 만나지 못한 해외의 통계인 중 잠재적으로 대회의 참

가가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약

2만 명의 주요 통계인사들에

게는 Information Bulletin

을 3차례에 걸쳐 제작·발송

하였다. 특히 이 책자는 대회

의 준비과정을 소개하고 참가

요령과 진행사항을 수록하였는

데, 책의 디자인과 인쇄상태는 물론

내용면에서 세계 어디에 내놓아

도 전혀 부끄럼이 없도록 세련되게

제작되었다고 이 책자를 본 많은 사

람들로부터 칭찬을 들었다. 한편 내부

적으로는 정보통신부의 협조를 얻어 기념우표를 발행하였는데 나중에 참가자들에게 선물로 활용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다.



그리고 통계청 내 직원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본 대회 100일 전부터는 사무국이 있는 복도에 D-100일을 알리는 전광판을 설치하고 언론에 홍보하였으며, 그 숫자는 매일 매일 카운트되었다.

대회에 참가하는 외국인들에게 행사의 안내를 겸하여 기분을 북돋우는 의미로 서울시내 요소에 육교 현수막을 설치하고 도로의 중앙분리대에 ISI대회를 알리는 배너를 걸기도 하였다. 대회장 인근에는 200여개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대회장으로 통하는 길을 안내하였는데, 특히 대회장과 가장 가까운 삼성역에서는 이 깃발을 따라 대회장으로 갈 수 있도록 하였다. 나중에 일본 통계국에서는 이 배너를 일본 통계기념관에 보관하겠다고 요청하길래 깨끗한 3개를 골라 보내기도 하였다.

5. 각종 물품의 제작

한국을 찾는 외국참가자들에게는 서울대회에 참가한 데 대한 보답으로 각종 기념품을 나누어 주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여러 가지 물품을 제작하였는데, 예를 들어 가방, 볼펜, 우표세트 등은 물론 지하철표(5,000원권)까지 일체를 나누어 주었고 이를 받아 든 참가자들은 모두들 즐거운 표정이었다. 일부 참가자들은 대회 기간 중 사용하고 남은 지하철표를 사무국에 들러 행사요원들에게 주고 떠나기도 하였다. 제작물품 중 가방은 가장 인기가 많았다. 등록대에서는 등록과 동시에 가방을 찾을 수 있는 쿠폰을 주고 다

른 교환창구에서 쿠폰과 가방을 바꾸도록 하였다. 그런데, 어떤 외국인은 아마 전에 등록을 하여 이미 가방을 받았겠지만 더 탐이 났던지 등록대에 가서 가방을 달라고 애걸하였다고 한다. 운영요원이 등록자에게는 등록시 1인당 1개씩 배부된다고 하여 되돌려 보내려 했으나 이 외국인 남자는 되돌아 가지를 앓고 머뭇거리다가 별안간 등록대 위에 있는 쿠폰 한 장을 열린 집어서 도망가듯 나갔다고 한다. 당시에 등록대에는 여러 종류의 쿠폰이 있었는데 이 외국인이 집어간 쿠폰은 가방이 아니라 논문을 교환할 수 있는 쿠폰이었다. 그는 나중에 가방쿠폰이 아님을 알고 허탈해했을 것이다. 사실 이 가방은 초록색으로 산뜻하면서도 주머니가 많아 쓸모가 있었으며 재질도 튼튼하여 참가자는 물론 대회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들도부터도 남은 가방을 구해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았다. 일부 남은 가방은 통계청을 방문하는 귀빈들에게 전해지기도 하였는데 한결같이 호평을 들었다.

또 행사장 내에서 상영할 비디오를 제작하느라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가? 한국의 역사와 문화 등을 소개하기 위하여 영화인 변장호 감독의 아들인 변정욱 감독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작품이다. 이를 제작하기 위하여 한국관광공사의 홍보용 비디오를 참조하였고 여러 번의 시사회를 거쳐 만든 역작이었다. 내용은 새 천년의 한국을 수록한 것이다. 이 비디오는 ISI 서울대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을 소개하기 위하여 긴요하게 쓰이고 있다.

행사진행요원으로부터 전해들은 얘기인데, 한 번은 나이 많은 일본인이 행사요원에게 다가와 “행사장 밖에는 각 국의 국기가 나

란히 게양되어 있는데 왜 일본국기는 없습니까?”고 여쭙었다. 전혀 아는 바가 없던 행사요원은 대답을 할 수 없었고, 나중에 국기게양대에 일본국기가 없음을 확인하고 사무국 등 여러 곳에 수소문하여 물었으나 어느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아마 그 때는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사건과 야스쿠니신사의 참배문제로 반일감정이 격했던 때라 국민정서를 고려하여 COEX측에서 일본국기를 게양하지 않았나 짐작할 따름이다.

또 한 가지는, 대만 참가자 2명이 등록대에서 접수를 하고 행사요원이 미리 준비한 명찰을 건넸는데 국적이 Taiwan China로 되어 있었다. 이들은 China를 까맣게 지우고서 행사요원에게 명찰을 다시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였다. 중국이 본토는 물론 홍콩, 마카오, 대만까지를 China에 포함하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었다.

6. 사전답사

대규모의 행사를 준비하면서 사전에 행사장을 살펴보고 세부적인 사항을 점검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COEX의 전시장은 물론, 유람선, 호텔, 리틀엔젤스 회관, 각종 관광코스 등을 일일이 구석구석 살펴보아야 했다.

장소의 선정에 있어서 크게 고민한 부분은 개막식을 위한 장소의 선정이었다. COEX의 3층에 있는 오디토리엄이 분위기나 시설면에서는 가장 아름답고 적절하기는 하나 참가자의 수가 1,050명을 초과할 경우 수용이 어렵다는 점이다. 반면에 컨벤션홀은 더 많

은 인원을 수용할 수는 있으나 별다른 시설이 없고 분위기가 집중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결국 대회의 사전 등록자 수를 감안하여 컨벤션홀로 결정하였고 1,700석의 좌석을 마련하였는데 다행히 빈자리가 없이 모든 좌석을 채워 장소선정이 잘 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관광코스의 선정은 해외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인사들로 하여금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과 문화를 소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무척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를 위하여 우리 청에서는 국내의 주요 관광지를 선정하고 사전답사를 하면서 세밀한 준비를 하였다. 관광프로그램의 진행을 위하여 PCO인 '인터컴'은 '테마투어'를 진행업체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관광지의 사전답사를 위하여 이들 업체와 함께 현지를 방문하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많이 들었다. 강화도, 창덕궁, 종묘, 수원 화성 등을 방문하였는데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던 물건, 예를 들어 문짝 하나, 돌 하나까지 거기에 얽힌 사연과 전설을 듣고 나니 이제야 그 유물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겠고 참으로 고귀한 문화재라는 생각이 든다. 즉, 문화재를 감상하는 방법까지 배운 셈이다.

7. 대회의 시작

드디어 8월 22일, 대망의 제53차 세계통계대회의 개회식이 열리는 날이다.

대회가 열리는 COEX의 전시장에서 만난 참가자들 특히 외국인들은 무척 즐거운 표정들이었다. 이들의 얘기를 들으니 인천공

항에 입국해서부터 우리 한국에 대하여 무척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 불과 5개월 전에 개장한 인천국제공항은 규모나 시설면에서 세계 어느 공항에 비해서도 손색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들을 편안하게 하였고 또 공항구내에 배치된 ISI행사 참가자들을 위한 안내 요원들이 연두색의 유니폼을 입고서 친절하게 안내를 하니 무척 흡족해하였다고 한다.

또 대회가 열리는 장소는 COEX인데, 이 곳은 회의는 물론 전시, 쇼핑 등을 함께 할 수 있는 대형 복합건물인 것이다. 이 곳에는 회의와 전시는 물론 식당과 모든 편의시설이 집중해 있어 이용하기에는 무척 편리한 곳이다. 그러나 건물의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실내에 있으면 처음 찾는 사람들은 방향감각을 잃고 길을 헤매기 십상이다. 복도를 지나는 어느 외국인이 “This is good for confusing.”이라며 길을 묻는다. 건물을 처음 보는 많은 외국인들이 사방을 두리번거리면서 여기 저기를 손가락질하기도 하며 신기한 듯 쳐다보곤 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대회운영요원들의 복장을 단정히 하라는 통계청장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운영요원들의 복장이 연두색으로 어디에서나 쉽게 눈에 띄니 찾기는 쉬운데 자세히 보니 상의를 바지안에 집어 넣고 단추를 단정히 매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상의를 밖으로 길게 늘어뜨리거나 단추를 풀고 패잔병처럼 보이는 직원도 눈에 띄었다. 이를 보다 못한 청장이 급히 각 팀의 책임자들에게 복장을 단정히 하도록 지시하였던 것이다. 사실 대회 운영요원들에게 사전교육은 했지만 각자의 맡은 임무에 대한 요령만 교육했지 복장에 관한 얘기를 하지 않아 빚어진 아주 기초적인 실수였던 것



COEX앞에 설치된 대회 홍보탑

이다.

드디어 개최식이 임박해 지자 COEX 3층 전시장에는 ISI대회의 등록장소가 마련되었고 직원들의 배치가 끝났다. 참가자들이 자신의 이름을 등록하면 운영요원들은 이름표를 달아 주면서 미리

준비한 가방에 각종 물품들을 넣어 주었다. 그리고 참가자들은 등록장 안에 마련된 여러 전시관을 둘러본다. 환전, 우편, 관광안내는 물론 각 나라에서 정성들여 마련한 홍보부스에 들러 각자의 관심거리를 찾아 각 부스의 안내원으로부터 설명을 들곤 하였다.

사실, 우리는 나름대로 모든 사항들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행사가 차질없이 진행되리라 믿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뜻대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모든 것들이 착오 없이 진행될지에 대하여 불안한 마음에 걱정을 하고 있었다. 행사의 참가자들은 시간에 맞추어 입장을 하려나? 대회에 참석예정인 총리·부총리는 정해진 시간에 도착할는지? 혹시 예기치 않은 진행상의 실수는 없을까? 갑작스런 돌발적인 일이나 생기지 않으려나? 사실 나는 그때 귀빈접견과 방송인터뷰 때문에 막상 개최식을 자세히 볼 수는

없었으며 여간 초조한 마음을 금할 길 없었다. 이러한 걱정과 긴장 속에서도 간간히 대회의 진행상황을 전해 듣고 진행과정을 파악하였다. 물론 나중에 비디오로 모든 과정을 다시 볼 수 있었다. 다행히도 우리 직원들의 세밀한 준비와 인터컴 최태영 사장의 노련한 진행으로 별 차질없이 개회식이 진행되었다.

8. 공연과 리셉션

8월 22일 개회식에 이어 축하 공연으로 한국예술대학의 임용균 교수와 전효신 교수의 성악공연이 있었는데 이들의 콤비가 너무도 훌륭하였다. 가곡 '목련화'와 몇 곡의 외국곡을 불렀는데 테너 임용균 교수의 우렁차고 힘있는 목소리가 장내를 울려주었고 전효신 교수의 아름다운 소프라노에는 저절로 감동이 되는 분위기였다. 이어서 김중자 무용단의 '숨'이 공연되었다. 큰 북과 작은 북 그리고 팽과리의 반주속에 무용단의 현란한 율동이 흥을 돋우어 주었다. 이어서 진행된 리셉션이 편안하고 즐거운 분위기를 자아내었다. 참가자의 수에 맞도록 적당히 준비



김중자 무용단의 '숨' 공연 모습

된 음식도 무척 맛이 좋았고 첫날의 행사가 성대하게 치러지니 이제 절반의 성공은 이룬 셈이다.

8월 23일 주최도시인 서울특별시의 시장이 특별히 리셉션을 베풀어 주었다. 장소는 역시 같은 COEX이지만 음식은 어제의 환영 리셉션만 못했다. 참가자들이 음식을 한창 먹고 있는 도중에 서울 시장이 도착하여 축사를 하였고 음료수 등 음식이 부족한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흥을 돋우기 위한 난타공연에서 새로운 예술의 세계를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난타공연은 우리 한국인에게도 그리 익숙치 않지만 특히 외국인들은 처음 대하는 난타 공연을 신기한 듯 바라보면서 가끔 웃기도 하였다. 소리가 거의 없이 장난치듯 행동으로만 보여주는 새로운 예술을 처음 본 것이다.

8월 24일 한강의 세모유람선에서 VIP 만찬을 가졌다. 이 행사는 사실 가장 고민이 많았던 부분이다. 잠실선착장에서 여의도를 돌아오는 유람선행사는 우선 날씨에서부터 음식, 공연 등을 미리 예상해야 하기 때문에 정말로 어려웠던 점이였다. 모든 걸 준비해 놓고 날씨가 흐리지 않을까? 무더운 여름철이라 운반해온 음식이 상하지나 않을까? 식사는 세트음식으로 할건지 아니면 부페식으로 할건지? 선상에서의 공연이 괜찮을까? 선상에서 놀다가 혹시 물에 빠지는 안전사고라도 생기지 않을까? 이에 대비하여 선상의 난간을 높여야 하나, 아니면 긴급 구조선을 뒤따르게 하나? 등등 수많은 고민을 거듭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날씨를 걱정하였다. 잘만 된다면 그야말로 환상의 극치를 맛볼 수 있지만 위의 걱정거리 중 한 가지라도 미흡하면 망치는 행사가 되기 때문에 큰 모험을 건 셈이다. 미리 알고 사전에 대비하는 난리는 없다고 하듯이 그 날은

날씨도 좋았으며 영광여상의 고적대가 뽕따래를 올리는 가운데 승선하였고 선상에서는 술과 노래가 흥겹게 어울렸다. 무더운 여름 밤 유람선에서의 파티가 이보다 더 즐거울 수 없었다. 어느덧 잠실 선착장에 도착하니 우리를 축하하기 위하여 불꽃놀이가 밤하늘을 수놓아 주었다. 모든 참가자를 만족시키면서 대회기간 중 가장 인상적인 밤이 되었다.

8월 25일 저녁 Freindship Dinner가 있었다. 외국 참가자들 중 그래도 저명하고 우리와 친분이 두터운 인사들을 초대하여 우정의 밤을 함께 한 것이다. 대회장에서 가까운 인터콘티넨탈호텔의 알레그로룸에서 만찬후 윗놀이를 즐겼다. 윗을 처음 본 외국인들에게 윗이 확률에 의한 통계적 게임이라는 것과 놀이방법을 설명하였다. 의외로 외국인들의 이해가 빨랐고 즐거워하였다. 그런데 그 때 참석했던 분들에게는 윗을 한 세트씩 선물했는데 이들 중 일부인사들이 귀국 후에도 윗놀이를 즐겼다는 소식을 들으니 무척 가슴이 뿌듯한 생각이 든다. 호주의 Dennis Trewin 통계청장이 친구 6가족과 함께 휴가를 즐기던 중 저녁마다 윗놀이를 즐겼다고 했고, 또 아이슬란드의 Snorrason 통계청장 역시 집에서 윗놀이를 자주 즐긴다고 한다. 우리의 민속문화가 그 곳까지 전파되고 있는 셈이다.

8월 27일 저녁에는 한국의 밤 행사를 가졌다. 리틀엔젤스 회관인데 이 때의 공연에 외국참가자들은 우리 문화의 진수를 맛볼 수 있었다. 감쪽하고 어린 천사들이 아름다운 춤과 노래를 하는 모습이 너무도 아름답고 귀여웠다. 북춤, 부채춤, 농악, 전통혼례 등 우리의 전통 민속공연을 볼 때에는 요란한 웃음과 우레와 같은 박수

가 끊이지 않았고 여기저기서 카메라의 플래시가 연발 터져 나오곤 했다. 그러나 나중에 전해들은 바에 의하면, 배경음악 중 일부가 찬송가였던가 보다. 따라서 회교국가에서 온 참가자들로부터 가벼운 항의를 받기도 하였다고 한다.

대회가 막판에 이른 8월 28일 Farewell Party를 워커힌의 제이드가든에서 가졌다. 달이 떠있는 저녁 푸른 잔디밭에서 한강을 바라보면서 행사를 가져 그야말로 환상적인 분위기를 살려 주었다. 뷔페식의 만찬을 겸한 공연인데 미동초등학교 학생들의 태권도시범과 퓨전음악의 공연이 있었다.

태권도 시범에는 어린이들의 행동이 귀엽기도 하지만 이들의 용맹하고 기백넘친 격파시범, 돌려차기 등 동작 하나 하나가 외국인들을 감동시켰다. 그러나 다음에 진행된 퓨전음악의 공연은 국악과 재즈의 만남인데 처음에는 신비롭기도 하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지겹다는 생각이 들었고 외국인들의 반응이 어떨까 초조하였는데 그리 밝은 표정은 아닌 것 같았다. 서양악기에 한국노래만 부르고 있으니 지루할 수밖에. 이 때 분위기를 북돋우기 위하여 사무국장인 최봉호 과장이 무대에 나서면서 분위기를 띄우려고 하였다. 이에 여러 외국인들이 함세하였고 좀 더 흥겨운 분위기로 이어갈 즈음 공연은 끝나버렸다. 약간의 아쉬움은 남지만 그런대로 의미있는 밤이 되었다. 사실 대회의 모든 행사를 미리 일일이 점검한다고 하지만 송별연에 관해서는 장소만 확인했을 뿐 공연내용에 대해서는 '인터컴'의 얘기만을 듣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막상 공연을 보니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미리 확인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였다. 이런 행사에는 미리 확인하면 할수록 내용이 좋아진다는 것

을 다시 한 번 뼈저리게 느끼게 하였다.

9. 논문발표와 위성회의

이번 행사를 학술적으로 본다면 지난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시카고대학의 James Heckman교수와 버클리대학의 Daniel McFadden교수가 참가하여 나름대로 통계적으로 분석한 경제문제를 발표하였던 것을 백미로 꼽을 수 있다. 두 분의 노벨상 수상자들은 청와대로 金大中대통령을 예방하였고, 한국은행, 서울대, 고려대 등에서 특강도 하였다. 또 언론사와 인터뷰를 갖기도 하였는데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의 통역이 잘못되어 오해를 사기도 하였던 일이 있었다. 큰 행사일수록 통역이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이번 대회에는 총 938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외국인의 논문이 787편이고 한국인은 151편을 냈다. 총 938편 중 250편의 초청 논문은 어느 정도 지명도를 가진 학자들의 수준높은 논문인데 반하여, 기고논문의 경우 논문의 내용이나 발표자의 표현력에 대하여 별다른 검증절차 없이 쉽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일부 발표자의 경우 기대수준에 미달하여 해외참석자들의 불만을 들은 경우도 있었다. 어느 아프리카 참가자는 발표시 아무 것도 준비를 안 하고 오직 말로만 발표를 하면서 자기의 발표 모습을 사진찍어 달라는 부탁도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통계청을 비롯한 국내학계의 노력도 대

단하였다. 본 대회에서 운영대 통계청장은 두 개의 세션을 조직하면서 직접 사회를 맡아 주었다. 전주대 국장 등 일부 직원들은 토론자로 나섰고, 허진호 과장을 비롯한 25명의 직원들이 발표자로 활약하였다. 그뿐 아니라 국내학계에서도 6개의 회의를 주관하였다. 이를 위하여 고려대의 이재창 교수, 한양대의 이영작 교수, 숭실대의 이정진 교수, 연세대의 김병수 교수, 방송통신대의 이태림 교수, 연세대의 이승철 교수가 각각 한 세션씩을 조직하여 진행하였다. 이외에도 한국통계의 발전상을 소개하기 위하여 서울대의 송문섭 교수와 고려대의 허명화 교수가 Statistics in Korea라는 책자를 발간·배부하고 이를 바탕으로 발표·토론하였다.

외부행사로는 한양대 이영작 교수가 주도한 '생물통계의 발전 방향 세미나'를 대전에서, 그리고 중앙대 이용구 교수가 주도한 '통계교육 위성회의'를 서울에서 각각 개최하였다.

이와 같은 학술행사 외에도, 대회 참가자들에게 각종 뉴스를 전하기 위하여 데일리 불리틴을 발간하였다. 대회 기간 중 매일, 7회에 걸쳐 발간한 소식지인데, 회의와 관련한 공지사항, 주요 행사, 동정 등을 생동감있게 게재하기 위하여 밤에 원고작성을 마치는 동시에 인쇄를 하여 아침이면 2,000부를 행사장의 요소 요소에서 배부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10. 관광행사

ISI대회가 통계의 전반에 관한 학술대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만 외국에서 온 행사참
 가자들로 하여금 한국
 의 아름다운 문화와 전
 통을 소개한다는 것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
 다고 느껴진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관광프
 로그램을 마련하였다.
 김치, 태권도, 이천 도
 예지, 판문점, 강화도,
 종묘... 관광행사를 진
 행하기 위하여 '테마투



유림선 관광

어'라는 영세업체가 선정되었다. 왜냐하면 8월에는 관광 비수기
 인 데다 다른 국제행사의 예를 보더라도 대회참가자 중 소수의 사
 람들만 관광행사에 참가하였기 때문에 큰 비중을 두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관광 참가자 수를 접수하는 걸 보니 예상은 빗나갔
 다. 대회의 등록장에는 각 업체가 마련한 부스가 있는데 관광부스
 가 가장 붐볐던 것이다. 관광 비수기인데도 무려 1,300여명이 관
 광에 참가하여 소규모인 '테마투어'에서는 속으론 즐거우면서도
 바빠서 어찌할 줄 몰랐다. 관광 비수기에 가장 많은 손님을 치러
 관광업계에서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으며, 이로 인하여 무명의 '테
 마투어'가 관광업계 중에서 중견업체로 성장하였다고 한다. 그뿐
 아니라 관광에 참가한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

를 처음 대하고는 크게 만족해하였다.

그러나 큰 일을 하다보면 어쩌다 작은 실수는 따르게 마련이다. 그 중에서도 국기원의 태권도프로그램에 참가했던 카메룬의 통계청장 Mr. Joseph Tedou는 태권도 시범을 본 후 실제로 대련준비를 하다가 발목의 아킬레스가 끊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축구를 잘하기로 유명한 카메룬에서 온 참가자는 혼자뿐인지라 청량리 위생병원에 입원해서도 우리 행사요원이 교대로 밤낮 간호를 해야 했다. 그런데 병문안을 위하여 입원실에 가 보니 아프리카의 다른 나라에서 온 흑인 2명이 병실을 지키고 있었다. 자기네들은 같은 나라에서 온 건 아니지만 같은 대륙에서 왔기에 서로를 위로하면서 의지하곤 하였다. 돌이켜 보건대, 남미권·태평양 섬나라·아프리카 사람들은 외국에서도 서로 자기들끼리는 아주 친하게 지내는 것을 많이 보아 왔던 기억이 난다.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남모른 사람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같은 피부의 같은 대륙에서 왔다고 병실까지 지키고 있으니 이들의 의리도 대단한 셈이다. 수술 후 카메룬 통계청장은 앰블런스로 인천공항까지 가서 에어프랑스편으로 파리로 향하였고 처가인 프랑스에서 요양후 카메룬에 귀국한다니 처복(?)도 많은가 보다. 또 이천 도자기축제에 참가했던 일행 중 한 명이 현지에서 실종되어 행사요원들을 애타게 하였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서울로 돌아갔다고 하였다. 그뿐 아니라, 판문점을 관광할 외국인들이 여권을 소지하지 아니하여 몇 시간을 지체한 끝에 관광을 담당할 김진기씨가 현지 관할 군부대와 연락하여 겨우 관광할 수 있었던 해프닝도 있었다.

11. PCO의 도움

솔직히 우리 통계청은 이번 대회를 유치하고서 걱정이 앞섰던 것이 사실이었다. 큰 행사의 경험이 없어 세밀한 사항들까지 철저하게 준비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는가? 다행히도 이처럼 큰 행사를 도와 줄 행사전문업체가 상당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인적 구성과 기술 및 경험을 참조하여 '인터컴'을 선정하였다. 당시 PCO(국제회의개최전문업체)를 선정할 때 아무런 사심없이 능력과 기량면에서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업체의 인적구성, 기술력, 행사경력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교수 및 청내 간부들의 의견과 심사를 거쳐 아주 떼떽하게 선정하였다. 그러나 심사에서 탈락한 업체는 불평을 하기 마련인데 이 중 한 업체가 탈락에 불만을 품고 청와대 등 요소에 진정을 접수하였고 내사결과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고 가장 공정하였다는 판정을 들으니 통계청으로서는 오히려 크게 칭찬을 받은 셈이다.

이렇게 엄선된 '인터컴'은 역시 우리를 흡족하게 도와 주었다. 최태영 사장과 권영돈 부장은 물론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몸을 아끼지 않고 적극적으로 일해 준 임현주 차장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통계청에서는 행사에 필요한 자재 및 인력의 동원 등에 관하여 인터컴에 의뢰를 한 상태이지만 그래도 노파심에서 국제통계과의 직원들이 하나 하나 확인하면서 수정할 것을 지시하곤 하였다. 여러 행사의 경험이 많은 인터컴으로서는 자존심이 여간 상하는 일이 아니었다. 인터컴의 내부에서는 회의까지 하면서 통계청의 간섭을 이렇게까지 받아야 할지에 대하여 의논하였다고 한

다. 사실 다른 기관 같으면 PCO에 의뢰를 한 다음에는 별로 간섭이 없이 대충 행사를 마친다고 하는데 숫자를 다루는 통계인들이 아주 세밀한 것까지 일일이 체크를 하였기 때문에 인터컴에서도 더욱 세밀하게 주의를 기울였던 것이다.

그 결과 이번 세계통계대회는 국내에서 개최된 어느 행사보다도 가장 훌륭하게 마쳤으며 참가자 모두로부터 찬사를 받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PCO업계에서는 이번 세계통계대회가 우리나라의 국제행사 개최능력과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자부하고 있단다. 즉, 앞으로 국제행사를 논하려면 인터컴이 도와 준 세계통계대회가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면서 인터컴은 자부심이 대단해졌다. 인터컴에서도 통계청과 함께 일을 하면서 미처 자기네들도 예상치 못한 것들까지 하나 하나 점검을 하였기 때문에 인터컴 직원들의 실력이 부쩍 향상된 것이다. 어찌 보면, 이번 대회로 인하여 가장 많은 득을 본 기관이 인터컴인 것이다. 직원들의 실력이 크게 향상되었고 업계 내에서의 명성이 더욱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대회장소를 제공한 COEX에서도 통계청의 ISI대회를 가장 모범적인 행사로 여기고 앞으로 대규모 행사의 FM으로 삼고자 한다니 가슴이 뿌듯한 생각이 든다.

12. 이번 행사의 성과

세계통계대회라는 큰 행사를 치루고 나서 전체적인 성과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으나, 크게 보면 국내외 통계의 발전

에 기여한 것 외에도 기대이상의 경제적인 성과를 이룩하였다.

우선 대회 규모를 보면 전 세계 115개 국가와 15개 국제기구에서 2,603명이 참가하여 역대 대회사상 가장 많은 참가국 수와 참가자 수 기록을 남겼으며, 대회에서 발표된 논문만도 938편으로 가장 많았다.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학술대회 중 가장 많은 기록을 남겼다. 발표된 논문의 내용중에는 전자상거래통계, 데이터마이닝, 소지역통계, 통계품질관리, 지식기반산업통계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많은 발표가 있어 실무적·학술적으로 국내외의 통계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본다. 또, 정보화통계, 생활시간통계 등 한국이 앞서가는 분야를 발표함으로써 한국의 통계활동수준을 국제무대에 선양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통계와 언론, 스포츠와 통계, 어린이 통계교실강좌 등을 개최하여 일반국민의 통계인식을 제고하여 통계환경의 개선에도 노력하였다.

한편, 통계외적인 측면에서의 성과로는, 수 차례의 리셉션, 간담회, 한국의 밤, 유적지탐방 등 문화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토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대회등록비, 전시참가비 등으로 5억여원의 직접 수입을 거두었으며, 해외참가자의 숙박, 관광, 쇼핑 등을 추산하면 60억원 이상의 외화수입 효과를 창출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가적으로 보면, 이번 행사에 든 정부의 예산은 모두 국내에 소비되고 외국인의 방한으로 인한 국내 지출만큼 외화획득이 되어 우리 경제에 기여하였다고 본다.

그 외에도 PCO업계의 수준이 향상되고 대회를 준비한 우리 청직원들의 역량이 강화되는 등 계량화할 수 없는 부분도 많이 있으

리라 본다.

13. 대회를 마치고

우선, 우리가 그동안 가장 우려했던 것은 참가자 수의 문제였다. 운영대 청장의 공언대로 과연 2,001명의 참가자가 될 수 있을까 하며 날마다 초조하게 점검하면서 독려한 결과 최종 등록자수는 2,603명(외국인 1,506명, 내국인 1,097명)으로 당초의 목표를 훨씬 초과하는 성황을 이루었다. 이는 역대 ISI대회 사상 가장 많은 참가자 수를 기록하였으며 어느 누구도 서울대회가 이렇게까지 대 성공하리라고 예상을 못했던 것이다. 따라서 차기 개최지인 베를린과 시드니에서는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고 한다. 왜냐하면 서울대회의 참가자 수가 예상을 훨씬 초과하였고 모든 행사가 너무 완벽하게 끝남에 따라 다음 개최국에선 어지간히 부담스러워한다고 하였다. 그래서인지 특히, 독일에서 온 팀은 서울대회의 모든 기록물을 모조리 챙기면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등 차기 대회의 준비를 철저히 하는 모습도 보였다.

반면에 서울대회 마지막날 COEX내의 ISI 사무국 관계자들은 한국 통계청의 노고에 감사한다는 말을 되풀이하였다. 왜냐하면 ISI관계자들은 그동안 다른 나라에서 개최된 ISI대회를 계속 지켜보았는데 그때마다 외국인 참가자들로부터 헤아릴 수 없는 불평과 불만을 들어왔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 서울대회만큼은 그러한 불평이 전혀 없고 많은 찬사와 감사의 말만 들어왔으며 이를 통계청

의 직원들에게 전할 따름이라고 하였다.

또, 한 가지 무척 다행인 것은 이번 대회기간중 날씨가 하루도 흐린 날이 없이 참으로 좋았다는 것이다. 사실 대회기간중 태풍이 발생해 우리는 내심 크게 긴장을 하고 있었으나 다행히 한국을 피해 일본지역으로 방향이 바뀌어 무사히 우리의 행사를 마칠 수 있었다. 마음을 졸이면서 대회를 성공리에 마치고 난 8월 29일 저녁에 비가 내렸다. 하늘이 세계통계대회의 진행을 도와 준 셈이다. 또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우리가 8월 29일 행사를 모두 마쳤는데 며칠 후 미국 뉴욕에서 무역센터가 무너지는 9·11테러사건이 발생하여 전 세계가 경악하였다. 이로 인하여 세계적으로 여행객의 숫자가 크게 줄어 들었는데, 다행히도 우리 행사는 그 전에 마쳤으며 테러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아 1,500여명의 외국인이 대회에 참석할 수 있었다. 만일 대회 전에 테러사건이 발생하였다면 행사 참가자 수는 크게 줄었을 것이다.

이렇게 하여 우리 세대에는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역사적인 '통계올림픽'의 막을 내린 것이다. 세계통계대회는 2년마다 열리는 데다 대륙을 순회하면서 개최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다시 보기 힘든 행사인 것이다. 아마도 다음 세계통계대회를 한국에서 다시 개최하기까지는 적어도 한 두 세대는 지나야 할 텐데 이처럼 귀한 행사가 나의 재직중에 열렸다는 것이 무척 다행스럽게 여겨진다.

우리는 이 행사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노력과 긴장을 하여 왔는가? 정부행사이기 때문에 많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아끼고 아껴서 행사를 치러야 했다. 또, 이 대회의 집행위원장인 본인은 물론 국제

통계과의 모든 직원들은 휴가도 잊은 채 휴일에도 사무실에 나와 열심히 일하였다. 심지어 나는 직원들에게 “아플 사람 있으면 대회가 끝난 후에 아파라”고까지 얘기하면서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그만큼 우리는 행사준비에 정성을 다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치밀한 준비 끝에 당초의 목표를 훨씬 초과하는 대성공을 이루었던 것이다. 이제는 이 대회의 준비를 위하여 공휴일도 반납하고 묵묵히 땀 흘려 일하였던 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과 함께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고, 특히 밤에도 행사장에서 종이박스를 깔고 잠을 청했던 행사 진행요원들의 정성이 눈물겹도록 고맙게 느껴진다. 또한 대회의 종합적인 실무를 담당했던 류종준 사무관이 대회 직전부터 목소리가 조금씩 변하더니 대회 둘째 날 도저히 몸을 가누지 못하고 삼성의료원에 입원을 하였다. 다행히 과로로 인한 몸살로 밝혀져 이틀 후에 퇴원하였지만, 대회준비를 위하여 불안과 초조감에 온갖 정성을 다하고 막상 대회가 순조롭게 진행되니 몸살이 난 것이다.

이러한 고생을 겪고 난 직후 9월 1일 통계의 날에 청와대에서는 이번 대회를 위해 크게 노력해준 통계청의 국제통계과 직원들에게 金大中대통령 명의의 감사서한을 보내주었다. 그동안 너무 고생을 시킨 직원들에 대하여는 작은 보답에 불과하지만 일생의 큰 명예로 알고 길이 간직하기를 바란다.

또한, 서울대회가 끝난 후 우리 청 직원이 통계관련 국제회의에 가면 ISI 서울대회에 참가했던 해외참가자들로부터 서울대회의 찬사를 들었으며 국제회의 도중에도 이와 관련한 멘트가 가끔 나오곤 하여 우리의 가슴을 뿌듯하게 하였단다.

그러나 한편으론 약간의 아쉬운 마음도 떨쳐 버릴 수 없다. 왜

나하면 통계청이 주도적으로 행사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 본의 아니게 공동주관기관인 한국통계학회와 대한통계협회에 대해 별로 신경을 기울이지 못했다. 따라서 전에 통계청에서 근무했던 OB들과 통계학회 회원들에게 일일이 신경을 쓰지 못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혹시라도 섭섭하게 생각하신 분이 계신다면 양해를 구하고 나중에 될 기회가 있다면 그 간의 회포를 풀어보고 싶다.

이번 행사를 마치고 나서 생각해보니 그동안 걱정도 많고 말도 많았던 세계통계대회를 성공리에 마치게 된 점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행복하게 느껴진다. 나는 이 모든 것들을 한국통계학회와 대한통계협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그리고 우리 청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이루어냈다고 생각하며 그동안 수고하였던 학회와 협회 및 청내 직원들에게 거듭 감사하면서 통계를 사랑하는 모든 통계인들의 성공과 발전을 기원하면서 이 글을 맺는다.

IV. 파리대회부터 서울대회까지

— **최병호** 서울대회 사무국장, 전통계청 국제통계과장
OECD과전

1. 아무 것도 몰랐던 시절

1989년 8월 파리에서 개최되었던 제47차 대회는 필자로서는 처음 참가한 대회였습니다. 지금 기억나는 것으로서는 개막식과 환영리셉션에 사람이 많았구나 하는 점, 개최장소가 시내에서 다소 떨어져 번두리에 위치한 과학관이었던 점, 서울대회에서 ISI회장으로 역할을 한 장 루이 보댕씨가 당시 대회 사무국장으로 바쁘게 활동했던 점들뿐입니다. 당시 우리 청(조사통계국이었음)에서는 이강우 통계국장님과 신현균 기준과장이 학계에서는 고려대 이재창 교수가 참가를 하였습니다. 필자도 인구통계과의 사무관으로서 참가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동 참석자들이 우연히 파리 노천카

페에서 맥주를 같이하면서, 우리나라도 한 번은 ISI대회를 개최해야 하지 않나 하고 논의 아닌 논의를 한 것이 서울대회를 개최하게 된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자리에 우연히 있었다는 사실이 필자를 오늘날까지 있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해서 한 발을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1991년 카이로에서 개최되었던 제48차 대회에는 필자가 1980년대 초 3년 동안 공부했던 곳이라는 이유 하나로 배려를 해주어 우리청 참가대표단에 끼게 되는 행운을 가졌습니다. 당시 참가했던 분들로는 당시 민태형 청장님, 임성곤 기준과장, 이경의 전산담당관, 윤기중 연세대 교수, 이재창 고려대 교수, 오홍근 박사님, 이영작 박사님 등이 기억납니다. 이 카이로 대회는 참가자 수가 적었고, 조직과 운영도 다소 엉성했던 대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운영을 여행사에다 맡겨 놓아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면에서 너무 상업적이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필자는 동 대회에 그냥 역할 없이 참가하기가 뭣하여 우리 통계청의 도시가계통계조사를 소개하는 기고논문(CP)을 준비하여 발표를 하였습니다.

1993년 이태리 피렌체에서 개최된 제 49차 대회의 경우는 직접 참석치를 못했고, 참가 뒷바라지 업무를 기준과 사무관으로서 수행하였습니다. 우리 청에서는 당시 민태형 청장님, 전신애 사무관, 정규남 사무관, 방윤화 사무관 등이 참가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피렌체 대회와 관련하여 한 가지 어려웠던 점은 참가 대표단의 숙소예약이 말썽을 일으켰던 점입니다. 지금 같으면 신용카드로 하

루치 Deposit을 미리 내 예약하면 되는데, 당시 Deposit을 내지 않고 주최측에 무조건 호텔을 잡아달라고 떼를 쓰다보니, 대표단이 출국하는 날까지 예약확인이 안되어 혼났던 일입니다. 당시 Deposit이란 개념을 몰랐기 때문에 있었던 해프닝으로 볼 수 있겠지요.

이 단계에서 조치되었던 주요한 사항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1989. 8. : 한국통계학회장이 ISI회장에게 대회유치 의사표명
- 1991. 8. : 한국통계학회장 명의 대회유치 요청서한 발송
- 1993. 8. : 대한통계협회장 명의 대회유치 요청서한 발송
- 1994. 7. : 국무총리실로부터 대회 유치 승인획득
- 1994. 10. : ISI 사무국장 방한협의
- 1995. 5. : ISI대회유치준비위원회 발족 및 대회유치 요청서한 발송(통계청장, 학회장, 협회장 공동명의)

2. 배우는 단계

1995년 북경에서 개최되었던 제50차 대회는 벤치마킹을 많이 했던 대회였습니다. 북경대회에의 참가지회는 당시 김민경 기준과장이 주도를 하였습니다. 북경과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점과 2001년 대회가 점차 현실로 닥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국측에서의 참가자 수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통계청에서 10명, 타기관에

서 9명, 시·도공무원 26명, 협회주관 10명, 학계참석자들 모두해서 78명이나 되었습니다. 대회장소로는 당초 시설이 잘 갖추어진 북경 국제컨벤션센터로 잡혀 있었는데, 불과 대회개최 한 달 전에 China World Hotel로 바뀌게 되어 주최측을 곤혹스럽게 만들기도 한 대회이기도 합니다. 바뀌게 된 이유는 세계여성대회가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동 대회에서는 우연찮게도 상당히 바쁜 Feng Nailin 대회사무국장과 3번 점심을 같이하면서 운영의 어려움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Feng 사무국장의 허탈한 모습을 보면서 6년 후의 제 모습을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동 대회에서 필자는 부여받은 역할 수행 이외에 농업센서스 주제 초청논문(IP) 회의에서 토론자로 그리고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 대한 기고논문(CP)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1997년 8월에는 터어키 이스탄불에서 제51차 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터어키 통계청은 앙카라에 있고, 대회는 비행기로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이스탄불에서 개최되어 터어키 통계청 관련 직원들의 고생이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스탄불대회의 경우 같은 이슬람문화권이라서 그런지 1991년의 카이로대회와 마찬가지로 운영하는 면이 다소 영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회의장 시설이나 풍부한 관광유적지 등 하드웨어적 측면에서는 꽤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ISI총회에서는 당시 유병우 주터키 한국대사님과 김병일 청장님이 2001년 서울대회 초청연설을 하였습니다. 동 대회 참가시 필자는 불행하게도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거금이 들어있는 지갑을 털리는 바람에 김이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1999년 8월의 헬싱키대회는 서울대회의 직전대회라 그런지 할



제 52차 헬싱키 대회때의 서울대회 홍보 부스



헬싱키 시장 환영 리셉션에서
좌로부터 창상첸 대만 통계청장 폴청 싱가포르
통계청장과 함께

일도 많았고 우리 참가 직
원들의 자세도 비장하였다
고 할 수 있습니다. 운영대
청장님께서도 바짝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홍보부스 설
치 및 운영, ISI총회에서의
초청연설 및 홍보영화 상
영, ISI회장단·헬싱키대
회 주최측·차기대회 주최
측(독일) 등과의 간담회
실시, 조직 및 운영에 대한
벤치마킹, 각종 Social
Program에의 참가 등등
열흘이 어떻게 시간이 갔
는지 후딱 지나갔습니다.

헬싱키대회에서의 특이
할 만한 점으로는 몇 가지
를 들 수 있습니다. 사무국
에의 인력은 Full-time으

로 7명이, Part-time으로 10명이 배치되었습니다. 헬싱키대회의
사무국장은 Ilkka Mellin이라는 핀란드기술대학 교수였는데 사무
국 일뿐만 아니라 학술프로그램에도 깊이 관여하여 수행한 것이 종
전대회와는 달랐습니다. 국제회의 전문진행업체로는 여행사가 아

년 국제적 명성이 있는 업체(www.congrex.com)를 선정하였습니다. 종전대회에서는 참가등록전산프로그램을 모두 주최측 자체적으로 개발하려다가 매끄럽게 하지 못했습니다만, 헬싱키대회에서의 참가등록전산프로그램은 상당히 괜찮았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관광프로그램도 상당히 성의를 갖고 짠 프로그램이었다고 여겨집니다. 이외 조그마한 사항입니다만, 헬싱키대회에서는 종이컵을 준비하더라도 종이컵에 붙잡기 좋게끔 손잡이를 부착한다든지, 음식 접시에 와인잔을 접시모서리에 같이 놓을 수 있도록 플라스틱으로 걸이대를 제공하는 치밀함도 보여주었습니다. 하여튼 서울대회 직전에 헬싱키대회가 있었던 것이 바로 행운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많은 것을 모방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단계에서 조치되었던 주요한 사항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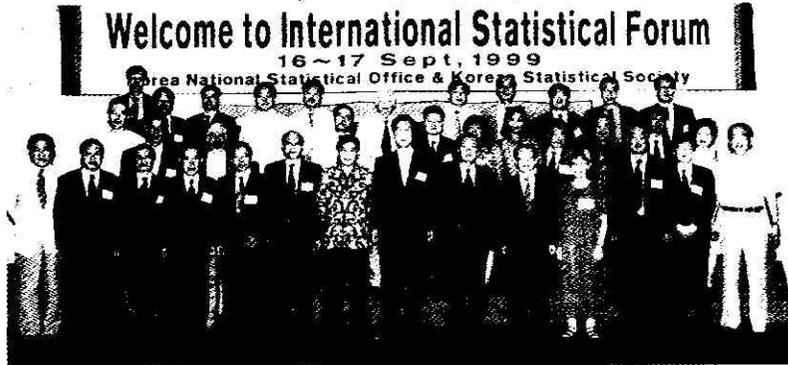
- 1995. 8. : ISI북경대회의 위성회의(통계품질)를 서울에서 개최
- 1996. 3. : ISI이사회에서 2001년 서울대회 개최승인
- 1996. 9. : ISI이사회 및 경제통계특별회의의 참석(미국 워싱턴 D.C)
- 1997. 3. : ISI특별회의(인구학적 과제)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개최
- 1997. 8. : ISI이스탄불대회에서 한국 통계청장 및 주터키 한국대사가 서울대회 공식 초청연설

3. 본격적인 서울대회 준비

헬싱키대회를 다녀와서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필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운영대 청장님, 남변 기획국장님, 관련직원들 모두가 그러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각종 조직(명예위원회, 이사회, 학술프로그램위원회, 집행위원회, 사무국 등)의 구성 및 가동, 국제회의 전문진행업체의 선정, 예산의 확보 및 각종 홍보물의 제작 등 할 일이 많았습니다.

또한 국제회의에 대한 경험을 쌓고자 1998년 12월에는 대전에서 ESCAP과 공동으로 정보기술활용국제세미나를, 1999년 9월에는 대전에서 국제통계포럼을, 2000년 12월에는 IMF와 공동으로 통계품질관리국제세미나를 제주도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외 아태지역 통계연수기관인 SIAP와는 세 차례(1999.11, 2000.9, 2001.8)에 걸쳐 통계연수부와 함께 외국인을 대상으로 통계훈련 과정을 개설한 것도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연차적인 국제회의 개최는 한건 한건 추진함에 있어 쉽지는 않았습디다만, 이를 통하여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봅니다.

이외에 관심을 많이 쏟아 부었던 분야는 참가자 확대라 볼 수 있습니다. 잔치집에 손님이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ISI대회는 자비참가가 원칙이기 때문에 준비내용이 좋지 않으면 참가자 수가 적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카이로대회, 이스탄불대회, 북경대회에서의 참가자 수가 이런 점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의 경우는 참가자 수가 당초의 목표치(2001명)를 상회하는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우리가 마련했던 내용들이 좋았기 때문이 아



1999년 9월 대전에서 개최한 국제통계포럼

닝가 싶습니다.

한편 대회조직 위원장이신 운영태통계청장님의 역할도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ECE회의, UN통계회의 등의 참석을 통해 각국 통계청장들과 유대관계를 가짐으로써 많은 국가들이 참가하게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 중국, 홍콩, 호주, 뉴질랜드를 방문하는 기회를 만들어 이들 국가에서 참석자를 많이 보내주는 역할도 수행하였습니다. 국제회의라는 것은 친분관계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친하지 않으면 참가자를 형식적으로 1~2명만 보내지 많이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상기 국가들과 국제회의를 통해 그리고 방문을 통해 통계기관장간 상호 신뢰를 쌓은 점이 상당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단계에서 조치되었던 주요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각종 조직구성 및 발족

- 1999. 6. : 학술프로그램위원회 발족
- 2000. 6. : 집행위원회 발족
- 2000. 9. : 이사회 발족
- 2001. 3. : 명예위원회 발족

■ ISI관계자와의 각종회의

- 1998. 11. : ISI집행위원회 및 이사회 참석(네덜란드)
- 1999. 1. : ISI회장단 방한 및 업무협의
- 1999. 4. : ISI회장단과 서울대회 점검회의 참석(네덜란드)
- 2000. 9. : ISI학술프로그램위원장 방한 및 업무협의
- 2000. 10. : ISI회장단 방한 및 업무협의
- 2001. 3. : ISI집행위원회 참석(뉴욕)

■ Information Bulletins 제작 및 발송

- 2000. 4. : 최종 초청브로셔 제작 및 발송
- 2000.10. : Information Bulletin 1 제작 및 발송
- 2001. 4. : Information Bulletin 2 제작 및 발송
- 2001. 7. : Information Bulletin 3 제작 및 발송

■ 대회관계조직과의 각종회의 개최

- PCO와의 회의 : 16회
- 기타 관련회의 : 38회 등 개최

■ 각종 홍보 실시

- 국내외 각종 학회에의 참가독려 광고 등 홍보
- 통계학회 개인회원 1인이 외국인 1인 모셔오기 운동전개 등
- 2001. 3. 12. : 일본방문(통계국장, 학회장, 통계수리연구소장, 통계연구회장 면담)
- 2001. 4. 25.~28. : 중국 및 홍콩방문 홍보활동 전개
- 2001. 5. : 주한중국대사와의 면담

4. 준비과정에서 노심초사했던 것들

1) 2000년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초청

2000년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두 분은 마침 미국통계학회(ASA)의 회원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입수한 ISI회장이 이 두 분(시카고대 James Heckman교수와 버클리대 Daniel McFadden교수)을 초청하면 어떤가 하는 의사를 물어왔을 때, 주최측(청장님 등)에서는 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초청업무를 진행시켜야 하는데, 얼마나 사례금을 주어야 할지 그리고 그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해야할지 등등이 어려웠습니다. E-mail을 보내면 답장은 왜 그리 늦게나 오는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두 분이 참석한 것이 ISI 서울대회를 보다 성황리에 치러지도록 함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2) 호텔 예약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의 호텔들은 고급호텔 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참가자들이 많이 원하는 중저가호텔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해외출장을 갈 때 고급호텔보다는 중저가호텔을 선호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주최측에서는 참가자들에게 조금이라도 가격을 줄여주고자, PCO에게는 호텔에서 한 푼이라도 마진을 붙이지 못하도록 부탁을 하였습니다. 결국 외국인등록자 1,342명중 872명이 우리측을 통해 호텔을 잡았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숙소를 정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대회 참가자들의 등록 장면

3) 참가자 등록수와의 전투

웹을 이용한 참가자 등록시스템을 4월초부터 가동시켰습니다. 그 동안 홍보도 많이 했고 하니 참가자 등록이 많이 들어오리라 잔뜩 기대를 하

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말 기준으로 살펴보니(외국인 313명, 내국인 79명)만이 등록을 하였습니다. 본 대회는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은 그렇게 실감이 안됩니다만 그때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 이 수치는 5월말에는 1,207명(외국인 822명, 내국인 385명)으로, 6월말에는 1,538명(외국인 994명, 내국인 544명), 7월말에는 1,824명(외국인 1,112명, 내국인 712명) 그리고 최종적으로 2,603명(외국인 1,506명, 내국인 1,097명)이 되었습니다.

4) 인력 총원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인력이 물리적으로 필요한 만큼은 있어야 합니다. 한두 사람만으로 치를 수는 없습니다. 요소 요소에 인력이 배치되어 있어야 하고, 관련직원들간에는 손발이 척척 맞아야 합니다. 종종 손발이 안 맞아 의전이 잘못되어 곤욕을 치른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국제통계과의 전직원이 인원 수는 얼마 안됩니다만 ISI업무에 사활을 걸고 매달렸습니다. 또한 다행스럽게도 2001년 초에는 타과에서 인력지원(기획과의 김태준 씨, 조정과의 김정섭씨)도 받고, 일용직 직원도 계속 채용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본 대회의 운영요원으로는 타과에서 지원(60명)을 받고 별도로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임시요원(142명)도 뽑아 잘 치러 냈습니다. 다른 대회나 전례로 볼 때 상당히 소수의 인력으로 일을 마무리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들 고생

했습니다. 차제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셨던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5) 북한통계인사 초청

서울ISI대회에 북한통계인사를 참여시키고자 여러 가지로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그 이전에도 각종 국제통계행사를 개최할 때마다 국제기구(ESCAP, SIAP)의 대표명의로 북한 중앙통계국장 및 평양 주재 UNDP대표에게 초청장을 보내곤 했지만 아무런 응답은 없었습니다.

ISI측에서도 북한통계인사의 초청에 관심을 가져 회장명의로 또는 ISI사무국장 명의로 수 차례 초청서한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 통의 회신도 받지 못했습니다. 남북한의 통계인사들이 만나 허심탄회하게 통계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빨리 왔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6) 명예위원회 구성

ISI대회를 준비하는 관련조직중 LPC, 이사회, 집행위원회, 사무국 등의 조직은 일정에 맞추어 그리 큰 문제없이 발족되었습니다. 반면, 명예위원회의 경우는 고위층(장관님 등)을 모셔야 하는 관계로 구성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고위층의 통계에

대한 관심과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순조로이 명예위원회 조직구성을 2001년 3월에는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5. ISI서울대회 행사 후기

1) 본대회기간 중 어려웠던 10개 장면

(1) 개막식 전날의 심야 미팅

8월 21일(화) 밤 11시. 아직까지도 개막식 일정이 명료하게 되어있지 않다. 개막식은 바로 내일인데, 사회자 멘트 등 진행시나리오 오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등등에 대해 청장님께서도 안쓰러운 표정을 보인다. 높은 분들이 관여되어 있는 의전관계업무는 매우 까



ISI서울대회 전시회 테일 커팅 행사

다로운 것 같다. 하여튼 내일 오후 2시경에 올 예정인 총리실 관계자(정충구 사무관 등)와 직접 둘러보면서 시간계획을 결정키로 하고 심야 미팅이 끝났다. 바로 내일이 D-day인데, 숙소로 가는 발걸음이 가볍지가 않다.

결과론적으로 개막식은 잘 진행되었다. 순서는 홍보비디오 상영—대회엠블럼 점등—개회선언 및 대북타고—총리님 입장 및 연단착석—조직위원장(통계청장) 개회사—대통령님 축사(영상메시지)—ISI회장 축사—총리님 축사후 퇴장—부총리님 입장 및 기조연설—성악(임웅균 외)—무용(김중자 무용단)—폐회선언 등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2) 조직위원장 환영리셉션

8월 22일(수) 저녁 6시. 청장님 인사말, ISI회장 인사말이 나가고 있지만, 웅성웅성거리 잘 들리지 않는다. 참가자들은 음식들기에만 신경을 쓰는 것 같다. Attention하도록 하는 것을 미처 생각치 못했다. 리셉션 중반쯤에는 마실 것이 부족하다고 야단이다. 음료수를 사람숫자에 한잔씩 맞추다 보니 두 잔 이상 마실 수 있다는 점이 간과되었다.

(3) 서울시장 리셉션

8월 23일(목) 오후 6시 30분. 이때부터 리셉션장 입구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당초 시작시간을 7시로 하였는데, 잘못

전달된 것 같다. 6시 40분 경에는 왜 문을 안여는냐고 입구에서 소리 없는 항의를 나타낸다. 하여튼 출입문을 개방토록 하고, 호텔직원들에게는 서울시장님께서 오기 전에는 음식물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비닐개봉을 하지 말라고 부탁을 하였다. 하지만 역부족이다. 참가자들은 비닐을 하나하나 벗기면서 음식물에 손을 대기 시작한다. 시장님께서는 음식물이 많이 소진된 상태인 19:15분 경에나 도착하였다. 시장님의 연설, 한국방문의 해 도영심 위원장님의 연설, ISI사무국장과 ISI학술프로그램위원장의 답사 등이 이어졌다. 결국 이 행사는 난타공연이 없었으면 굉장히 어려웠을 뻔했던 행사로 평가되었다.

(4) VIP 만찬

8월 24일(금) 저녁 6시. VIP디너행사 참가를 위해 200여명이 COEX남문입구에서 승차해야 한다. 참가자의 안전을 위해 누가 어느 차에 탑승했는지 Check하다보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다. 각 버스마다 누가 탔는지 확인하라는 지시는 받았는데, 확인은 쉽지 않고 출발시간은 닥쳐오고 어려운 상황이다. 에라 모르겠다 하고 신분확인엔 생략토록 하고 탑승자 수만 계산토록 한후 출발시켰다. 다행스럽게도 이 행사는 아무 탈없이 잘 끝났다.

(5) 궁궐투어

8월 25일(토) 오후. 토요일관광을 지원키 위해 궁궐투어에 합류하

였다. 궁궐투어는 참가자수가 가장 많아 동원된 차량이 7대나 되었다. 일정은 경복궁—민속박물관—조계사—이태원으로 되어있다. 경복궁에서는 운영요원 유니폼을 입고 왔다갔다하는데, 길을 물어오는 아줌마들이 참 많았다. 제복의 위력을 실감하였다. 일부 투어 가이드들은 더위 때문인지 건성건성 하는 것 같았다. 한 마디 하고 싶었지만 참았다. 만약 내가 투어가이드라면 내가 데리고 다니는 팀은 확실히 장악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었다. 그렇다고 아주 못한 것은 아니고, 참가자들도 Good!이라고 얘기를 하였다

(6) Friendship Dinner

8월 25일(토) 저녁 7시. 궁궐투어 참가후 부랴부랴 Friendship Dinner가 있을 COEX인터컨티넨탈호텔 지하 1층 알레그로룸으로 갔다. 참가숫자는 50여명이지만, 각국의 통계기관장들이라 소홀히 할 수 없는 행사이다. 참석여부를 정확히 파악하느라 직원들이 고생 많았다. 초청장도 각 호텔로 직접 배부하고 한사람 한사람씩 일일이 참석여부를 Check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N통계국장이 보이지 않았다. 하베르만 국장께서는 배탈이 나서 참석치 못했음을 사후에 전해들었다. 마술쇼와 율놀이 프로그램은 모두들 좋아했다.

(7) 일요일 관광프로그램

8월 26일(일) 아침 7시. 전화벨이 울린다. 남변 국장님과 선주

대 국장님께서 어제 저녁 일본팀과 과음하였다고 관광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연락이다. 5개 관광프로그램 중 이천도예지 방문일정에 합류하였다. 도자기를 만드는 실습을 하고 이천도예엑스포를 관람하는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은 도자기 실습이 처음이라면서 상당히 진지하게 만들고 있다. 점심도 맛있게 들면서 만족감을 표시한다. 그런데 도자기엑스포장은 왜 그리 인파가 많은지 도저히 안내가 되지 않는다. 서울로 출발할 시간이 다 되었는데 한명이 행방불명이다. 잃어버린 사람이 누군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명단이 없다. 간신히 추적하여 Missing된 사람이 누군인지를 알아냈다. 테마투어 직원을 현지에 대기시켜 놓고 서울로 되돌아왔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알리지 않고 혼자 서울로 왔음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지금도 알밋게 생각하고 있다. 서울로 되돌아오는 도중에는 태권도투어 참가자중 한명이 다쳤다는 소식도 들어오고, 강화도프로그램에서는 청장님이 탑승한 버스가 지리를 몰라 헤맸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등등 일진이 다소 좋지 않았던 것 같다. 서울로 되돌아와서는 고려정에서 있는 ISI회장 초청 Guest Society Dinner에 참가후 숙소로 돌아왔다.

(8) 총회

8월 27일(월) 오후 3시 45분. 총회 시작시간이다. 총회 직전 2000년도 노벨경제학상수상자분들을 위한 기자간담회가 개최되었다. 기자들은 한국어로 질문하고 답은 영어로 해야하기 때문에 통역을 하는데, 통역이 전문통역사가 아니어서 그런지 서투르게



▲한국의 밤 참석자들(2001.8.27.)

◀리틀엔젤스의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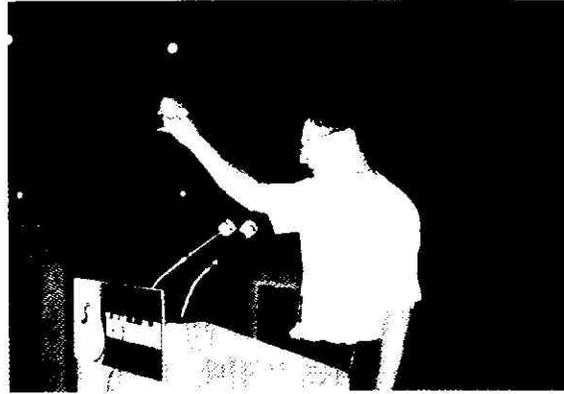
보인다. 아나나다를까 총회장에 앉아있는데 남번 국장님께서 찾는다. 연락이 왔다. 부랴부랴 가보니까 연합뉴스기자와 한창 실랑이를 하고 계신다. 헉크만 교수가 한국의 노동정책이 일관성이 없다고 얘기를 했느니 안했느니 어려운 상황이다. 녹취록은 없고, 잘못 기사화 되면 큰일인데 걱정이 든다. 1층까지 기자를 쫓아가서 설명해서 그런지 크게 문제되지는 않았다.

(9) Korean Night

8월 27일(월) 저녁 6시. 차량이 28대나 동원되어서인지 탑승자 수 집계에 시간이 걸린다. 중곡동 소재 리틀엔젤스회관까지 우리가 탄 버스들을 위해 경찰차량이 에스코트를 해주었다. 외국 참가자들이 참 좋아하는 것 같다. 리틀엔젤스회관에 도착해 보니 VIP 좌석을 1층에 만들어야 하느냐 2층에 만들어야 하느냐를 놓고 갑론을박을 하고 있다. 무조건 1층에 준비하라고 지시하였다. 동선 거리가 짧은 게 좋다는 판단으로 밀어 부쳤다.

(10) Farewell Party

8월 28일(화) 저녁 7시. 어디에다 자리를 잡을까 고민이다. 오늘 프로그램내용에 대해서는 Check를 깊이 못했다. PCO측에서 잘 마련했으려니 믿었다. 그래서 자리를 뒤쪽에 위치한 LPC소속 교수님들이 있는 곳을 택하여 앉



환송만찬에서 건배제의를 하는 Richard Gill
학술프로그램위원장

았다. 그동안 서로 고생을 많이 한 교수님들과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그런데 교수님들의 태도가 다소 냉랭하게 느껴져 어색함을 느꼈다. 뿐만 아니라 재즈밴드에 맞추어 댄스할 기회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 기대와는 다르게 무대에서는 한국노래가 계속 나오고 있다. 다소의 웅성거림이 들린다. 안되겠다 싶어 약간 신나는 노래(옹헤야)가 나오길래 무대로 나가 춤을 추도록 유도하였다. 그러나 이것도 오래가지 못하고 그걸로 끝나고 말았다. 진작 점검해야 하는 건데!

2) 다소 아쉬웠던 몇 가지 사항

국제회의에의 참가자들은 한사람 한사람이 자기 것(일정 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 가장 많은 질문중의 하나는 ISI대회에 참

가하고 싶은데, 참가경비를 어떻게 지원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그리고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를 토픽에 넣어달라고 하는 문의도 많은데 그 이면에는 모두 참가경비문제와 관련이 되어있다. 또한 모처럼 외국으로의 출장이니까 날씨는 어떠한지, 숙소시설은 괜찮은지, 공항에서 시내까지는 어떻게 가는지, 제출한 논문은 제대로 접수가 되었는지 등등 알고 싶은 사항들이 너무 많다. 또한 필자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일정을 변경하는 경우도 최소한 40%는 되는 것 같다. 결국 주최측에서는 일정변경조치를 취해주어야 되고, 물음에 대해서는 답을 즉각즉각 해주어야 하는데 일이 너무 많게 된다. 이러한 업무만을 정리하고 전달할 수 있는 인력이 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다소 아쉽다.

참가자들이 언제 도착하는지, 어느 호텔에 예약했는지 등이 수록된 참가자 마스터파일과 논문제목이 수록된 논문마스터파일은 상당히 중요하다. 이 마스터파일의 내용입력은 참가자들이 Web을 통해서 직접 하게 되어 있는데, 오류가 없을 수 없다. 통계조사에서도 입력오차를 살펴보기 위해서 내용검토 과정을 수차례 수행하게 되는데, 이번 ISI대회에서는 이를 다소 간과한 것 같다. 그러다 보니 대회가 임박해서야 잘못된 사항을 부랴부랴 정정하는 사태를 빚게 되었다. 또한 참가자 마스터파일과 논문마스터파일을 연계하는 시스템이 개발되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 점도 뒤늦게 지적되어 개발치 못했다. 다소 아쉬운 점이라 하겠다.

참가자 등록비를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승인이 나자마자 등록 확인서와 호텔예약확인을 보냈어야 하는데, 통장에 입금이 확인된 후(2주후)에나 등록확인서를 보내 다소의 불편을 초래하였다. 대

회가 임박해서는 승인이 떨어지자마자 등록확인서를 보내도록 조치가 되었다.

다른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Information Bulletin을 세 번만 들게 되어 있는데, 세 번 다 제작기한이 일주일에서 많게는 한 달이나 지체된 점이다. 대세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은,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제시간에 만들 수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

이번 행사를 수행함에 있어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 통계청장님, 남번 국장님, 국제통계과 직원들, 타과에서 파견나온 직원들(박원란, 김태준, 김정섭씨 등), 운영요원으로 일한 Green Guider들, LPC, 학회 임원진, PCO, PCO협력업체 직원들, COEX직원들 등등 너무나 할 것 없이 모두 자기 일처럼 열심히 몸을 던지고 마음을 바쳐 일했다. 표창이라도 많이 주고 싶다. 그러나 현실은 여의치가 않아 이 점 마음에 걸린다.

3) ISI대회 성공의 첫 번째 공신

ISI대회성공의 첫 번째 공신은 뭐니뭐니해도 발달된 IT기술이 아닐까 생각된다. 참가자 등록중 83%를 Web을 통해서 받았고, 논문의 62.5%도 Web을 통해 받았다. 우편(52편)이나 Fax(9편)로 보낸 경우는 매우 적었습니다. 무척 손을 덜어주었다.

그리고 인터넷 E-mail이란 것도 매우 막강한 역할을 하였다. 2001년 들어 E-mail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많은 날은 하루에 100건 이상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평균 30건씩은 되었다. E-mail

시스템이 없었으면 모두 이를 우체국을 통해 보내야 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여튼 E-mail시스템 덕을 많이 보았다. 그러나 단점이라면 상당히 많은 경우는 답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직접 처리에 꽤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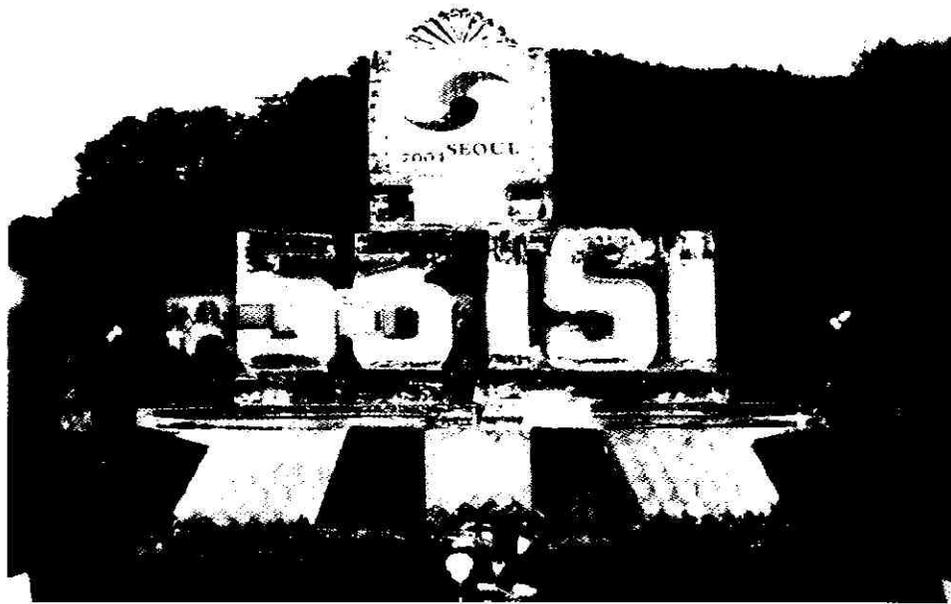
홈페이지도 마찬가지로 많은 도움을 주었다. 우리 홈페이지가 잘 만들어져서 그런지는 몰라도 차기 대회 개최국인 독일에서는 우리 홈페이지 내용을 모두 CD-Rom에 담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대회가 끝나고 나서는 인터넷서베이라는 IT기술을 이용하여 평가조사를 실시하였다. 비록 응답률은 낮았지만 이 시스템도 잘만 활용하면 많은 일손을 덜 수 있는 시스템이라 생각한다. 컴퓨터관련 업무를 맡은 휴로닉스회사와 쉘트로회사 그리고 우리청의 전산팀 모두 뒷전에서 많은 고생을 했다.

한 가지 덧붙일 사항은 ISI대회 PCO인 인터컴도 돈을 받고 일한다고 하지만은, 마치 통계청 직원들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적극적으로 일했다고 생각한다. IT기술 못지 않은 공신이라 할 수 있다. 사무국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욱박질러 너무 무리한 일을 시킨 것은 없는지 하는 생각도 든다. 혹시 그러한 일이 있었다면, 일을 보다 더 잘하려고 했던 것이지 절대 쓸데없이 괴롭히려고 하였던 것이 아님을 이 자리를 빌어 밝힌다.

6. 맺음말

하여튼 ISI 서울대회는 무사히 잘 치러 졌다는 평가를 받았습니



워크힐 제이드 가든에서의 환송 만찬!

다. 참가자 수, 논문발표 수, 관광프로그램 참가자 수 등등에서 종전대회 기록을 모두 깼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은 혹시나 하는 생각에서 한국기네스북에 등재코자 신청을 하였습니다만, 진행은 잘 안되었습니다. 하여튼 본대회 기간(2001.8.22~29)이 꿈만 같이 흘러갔습니다. 참가예정현황을 2000년 말 기준으로 파악했을 때 잠정적으로 참가등록예정자가 불과 268명에 불과할 때에는 심각한 고민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2,000명 이상을 등록시키나 하는 생각만이 머리속을 짝 채웠습니다. 다행히도 2월말에는 이 숫자가 1,106명이나 되어 다소 한숨을 돌렸습니다만, 이 숫자 역시 기대치에는 훨씬 못 미치는 숫자였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후 3월초부터는 본등록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는 하루하루가 참가등록자 숫자와의 처절한 투쟁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참가자수가 115개국에서 총 2,603명이라고 집계되었을 때에는 정말 감회가 깊었습니다. 참가자수를 한 명이라도

더 늘리고자 대회직전에 ESCAP과 국제세미나를 삼정호텔에서, SIAP와는 대전 연수부에서 통계훈련워크샵, 생물통계위성회의를 대전 KAIST에서, 통계교육연구회에서는 통계교육위성회의를 COEX에서, 조사통계연구회에서는 5개 과정에 대한 Short Course를 COEX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실시한 것도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하나 감사드리고 싶은 사항은 본회의 기간 내내 날씨가 좋았던 점과 본회의 전에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테러사건이 없었다는 점이다. 만약 이와 같은 사건이 7~8월에 발생했다라면,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대회준비에 관련했던 모든 분들이 정성스라이 기도했던 덕분이 아닌가 합니다.

대회가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었던 근본은 참여했던 모든 분들의 노력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청의 간부님들, 사무국 요원, 운영요원(청직원, 대학생요원 모두), 학계 교수님들, 첩회 임원진, PCO직원들께서 모두 자기 일처럼 나섰습니다. 일을 추진하다가 때로는 우격다짐으로 한 일, 티격태격 한 일, 목소리를 높인 일 등등에 대해서는 이 지면을 빌려 사과 드립니다. 혹 마음에 상처를 입은 분들이 있으시면 모두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향후에는 ISI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승화시키는 일이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실상부한 선진통계국이 되도록 우리 구성원들은 자기 개발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부 록」

I. 대회 조직위원회 명단

이사회 위원명단

번호	기 관	성 명	비 고
1	통계청장	윤영대	의장
2	통계청 통계기획국장	남 번	집행위원회 위원장
3	국내 학술프로그램위원장	이재창	LPC 위원장
4	한국통계학회회장	안운기	공동개최기관
5	대한통계협회장	민태형	"
6	농림부 농업정보통계관	김재수	통계작성기관
7	정통부 정보통신정책국장	손 홍	"
8	서울시 정보화기획단장	배경을	개최도시
9	한국개발연구원장	강봉균	연구기관
10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정경배	"
11	한국은행 경제통계 부총재보	이성태	통계작성기관
12	한국산업은행 조사담당이사	이경득	"
13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조사 본부장	김석중	후원기관
14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정책팀장	이현석	"
15	한국관광공사 해외본부장	최달용	행사지원
16	한국인구학회 대표	박상태	통계관련단체
17	한국사회학회 대표	안계춘	"
18	명지대교수	연하청	학계
19	한양대 명예교수	이영작	"

통계학 인접 학회 및 연구기관

20	서울대 교수, ISI이사	박성현	ISI관련자
21	성균관대 교수(한국경제학회)	김인철	통계학 인접 학회
22	연세대 교수(한국경제학회)	윤석범	통계학 인접 학회
23	여론조사협회장	박영준	여론조사기관
24	갤럽 코리아 대표	박무익	여론조사기관
25	매일경제 수석 논설위원	강응선	언론기관
26	한국경제 수석 논설위원	신상민	"
27	서울경제 수석 논설위원	임종건	"
28	동아일보 수석 논설위원	권순직	"
29	조선일보 수석 논설위원	김영하	"
30	한국일보 수석 논설위원	이상호	"
31	중앙일보 수석 논설위원	김왕기	"
32	KBS 해설주간	고수용	"
33	MBC 해설주간	정병운	"
34	SBS 해설주간	권오승	"

집행위원회 위원명단

1	통계청 통계기획국장	남 변	위원장
2	국내학술프로그램위원회 (LPC)위원장	이재창	LPC와 업무연락
3	농림부 통계기획담당관	심상인	통계작성기관
4	보건복지부 정보화담당관	이태한	통계작성기관
5	노동부 노동경제담당관	장의성	통계작성기관
6	서울특별시 정보화기획담당관	위정복	개최도시
7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	정정호	통계작성기관
8	한국관광공사 컨벤션뷰로팀장	황용구	홍보활동 지원기관
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장영식	연구기관
10	KDI 연구위원	이재형	연구기관
11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조사팀장	유재준	후원기관
12	한국통계학회 부회장	남궁평	공동주관기관
13	공군사관학교 교수	이계오	학계
14	고려대 교수	최중후	학계
15	대한통계협회 부회장	신현균	공동주관기관
16	국가조직위원회 사무국장	최봉호	사무국과 업무연락

국내 학술 프로그램 위원회

번호	성명	소속	경력사항	비고
1	이재창	고려대	전 ISI 이사	위원장
2	손중권	경북대	JKSS편집위원장	당연직위원
3	허명희	고려대	응용통계학 편집위원장	"
4	김혜중	동국대	학회총무이사	"
5	이재준	인하대	학회학술이사	"
6	최봉호	통계청	사무국장	"
7	조신섭	서울대	학회사업이사	개인위원
8	이용구	중앙대	통계교육상담연구회장	"
9	이태림	방송통신대	통계교육상담연구회	"
10	박동호	한림대	공업통계연구회장	"
11	백재욱	방송통신대	공업통계연구회간사	"
12	김병수	연세대	생물통계연구회장	"
13	이관재	동국대	생물통계연구회간사	"
14	이승욱	서울대보건대학원	생물통계연구회(전회장)	"
15	이정진	충실대	계산통계연구회장	"
16	이계오	공사	학회부회장	"
17	전명식	고려대	공식통계연구회간사	"
18	남궁평	성균관대		"
19	이석훈	충남대		"
20	우정수	영남대		"
21	안윤기	연세대	한국통계학회회장	업서버
22	허문열	성균관대	한국통계학(전회장)	"
23	박성현	서울대	ISI 이사	"
24	이도성	서강대	계량경제학회장	"
25	박상태	서강대	인구학회장	"

1. 학술실무위원(Task Force 팀) 명단

김삼용 (중앙대 교수)	김영원 (숙명여대 교수)
김영일 (중앙대 교수)	이용구 (중앙대 교수)
이정진 (숭실대 교수)	전명식 (고려대 교수)
이영미 (LPC 사무실)	김연주 (LPC 사무실)

2. 사무국 요원

최봉호 (사무국장)	류종준 (사무부국장)			
김경태	최한경	정인숙	손영태	서재호
김태준	김정섭	김부곤	박원란	최갑락
김진기	김희중	전광우	권정아	정명주
최은영	김진희	송한미	김용민	

3. 통계청 운영요원

전준우	김신호	강대형	강유경	강은진
김경희	김미애	김설희	김영란	김영수
김윤성	김인식	김정란	김혜련	문승태
박기봉	박상진	박소현	박영옥	박원환
박윤영	박은영	박진호	박현정	서경숙
서찬일	손애리	송필여	안병건	안성남
오삼규	유기형	유수덕	윤종호	이명호
이병식	이호석	조성일	진영	최경순
최종희	최지영	홍병석		

「부록」

Ⅱ. 국외 참가자 감사 서한

Seoul, August 28, 2001



The President

President Kim Dae-Jung
Blue House
1, Sejongno, Jongno-Gu
Seoul 110-050

Dear President Kim,

First, we would like to thank you for the time you spent with us last Monday. It was a great honour for us and an experience we will cherish very much.

Second, we would like to pass on our congratulations to all those involved in the organization of the 53rd Session of the International Statistical Institute (ISI). The arrangements have exceeded our expectations in all respects. They have clearly demonstrated the excellent planning and organisational skills of Korean statistics to the rest of the statistical world. We would like to especially mention the efforts of the Commissioner of Statistics, Young-Dae Yoon, the Executive Director of the National Organising Committee, Bong-Ho Choi, and the local Director of the Scientific Programme, Jae Chang Lee. They can take great pride in their efforts and those of their support teams. The ISI will be forever grateful.

Yours sincerely,

Jean-Louis Bodin
President

Dennis Trewin
President-Elect

cc. Young-Dae Yoon
Bong-Ho Choi
Jae Chang Lee

Seoul, August 29, 2001



The President

Prime Minister Lee Han-Dong

Dear Prime Minister Lee:

First, we would like to thank you for participating in the Opening Ceremony of the 53rd Session of the International Statistical Institute (ISI). It was a great honour for us and we appreciate it very much.

Second, we would like to pass on our congratulations to all those involved in the organization of the 53rd Session of the International Statistical Institute (ISI). The arrangements have exceeded our expectations in all respects. They have clearly demonstrated the excellent planning and organisational skills of Korean statistics to the rest of the statistical world. We would like to especially mention the efforts of the Commissioner of Statistics, Young-Dae Yoon, the Executive Director of the National Organising Committee, Bong-Ho Choi, and the local Director of the Scientific Programme, Jae Chang Lee. They can take great pride in their efforts and those of their support teams. The ISI will be forever grateful.

Yours sincerely,

Dennis Trewin
President

cc. Young-Dae Yoon
Bong-Ho Choi
Jae Chang Lee



The President

Statistisches Bundesamt · D-65180 Wiesbaden · GERMANY

Commissioner Young-Dae Yoon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Government Complex III
#920, Dunsan-dong

So-gu, Taejon 302-701
Korea

WIESBADEN, 31 August 2001

Phone (+49-611) 75-2100

Fax (+49-611) 75-31 83

E-Mail: johann.bahlen@statistik-bund.de

Internet: <http://www.statistik-bund.de>

Dear Commissioner, dear Y.-D.,

After a very agreeable return flight from the modern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I would like to thank you very much - also on behalf of my colleagues and of German official statistics - for the impressive days we spent at the 53rd ISI Session in Seoul. Furthermore, please accept my warmest thanks for your generous present that my colleagues handed over to me after their return.

The 53rd ISI Session was perfectly organised by you and the staff of the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making it a great success for international statistics. The scientific programme, the support given to the nearly 2,500 participants from so many countries, and your hospitality have become an unforgettable experience for my colleagues and me. We were deeply impressed by the perfect service and the almost unsurpassable friendliness of your staff. The various evening events and the cultural programme of the Session were just marvellous. Thank you very much again for your extraordinary hospitality.

During the 53rd ISI Session, your country, the Republic of Korea, has presented itself as a very modern country with a dynamic economy and a scientific community of a very high standing. Your country has every reason to be proud of its centuries-old culture, and the friendliness, cosmopolitan attitude and diligence of your people have made a profound impression on my colleagues and me.

With a view to the 54th ISI Session in Berlin, we were able to gain a host of impressions and important suggestions in Seoul. We will have to considerably increase our efforts in order to come close to the standards you and Korea have set for ISI Sess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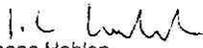
You may contact us from Monday through Thursday from 8 a.m. to 5 p.m. and on Friday from 8 a.m. to 3 p.m.
Postal address: 65180 Wiesbaden · GERMANY · Local address: Gustav-Stresemann-Ring 11, 65189 Wiesbaden · GERMANY

I would be delighted if you - and your wife, if possible - could come to Germany, that is to Wiesbaden and Berlin next year within the framework of the German-Korean Statistical Cooperation, even before the ISI Session will be held in Berlin. Please accept my most cordial invitation to that visit.

The ISI Session in Seoul has been a great success for Korean statistics and for you personally - a success on which I would like to congratulate you. During the Session, you managed to unite several hundred statisticians from many different countries in a great statistical community. This community will be of permanent benefit to statisticians from all over the world. Many thanks for this, too.

With best wishes for your work.

Yours sincerely


Johann Hahien



September 4, 2001

The Past President

C/O ADETEF, Ministry of Economy,
Finance and Industry
Télédoc 335
139, rue de Berzy
75572 PARIS CEDEX 12, France
Tel. + 33 1 53 17 95 43
Fax + 33 1 53 17 87 98
e-mail: jean-louis.bodin@adefef.finances.gouv.fr

Mr. Young-Dae Yoon
Commissioner, National Statistical Office
Government Complex III
#920, Dunsan-Dong
So-gu, TAEJON 302-701
Corée

Dear YD

Dear Commissioner Yoon,

On my return in Paris, I would like to express once again all my thanks for the splendid dedicated work you did for the preparation of the 53rd ISI Session and congratulate you for its splendid success. Being ISI President on the occasion of such a splendid meeting was really very pleasant.

All participants in this session will remember it as one of the most successful, not only because of the very large and fascinating collection of invited and contributed papers prepared with the help of the Local Programme Committee, but also for your so friendly welcome and the quality of the social and cultural programme. The 53rd Session was a great success thanks to the number of both registered participants and of invited and contributed papers, the highest ever recorded. It has also demonstrated the vitality of statistics in your country and in Far-East Asia.

Looking forward to meeting you again in the next future.

Yours sincerely, *Best regards,*

Jean-Louis Bodin
ISI Past President

Mr, Young-Dae Yoon
Commissioner
National Statistical Office
920 Dunsan-dong, So-gu
Taejon 302-701, Korea

13 September 2001

Dear Mr. Yoon,

I wish to express my sincere and heartfelt thanks to you and your staff for generous hospitality and assistance extended to us during the 53rd session of the I.S.I in Seoul. I enjoyed my stay in Seoul and various social events organized by the National Organizing Committee, as well as learnt a lot from deliberations and discussions in the scientific programmes.

I found that the Seoul session was a great success and one of the best sessions ever. I commend you for your leadership that led the session successful and congratulate you and your staff on the great accomplishment.

I look forward to your continued support and co-operation in the development of statistics in the world, and in the Asian region in particular.

Thank you again, and my wife joins me in thanking you and your staff.

With our warmest regards,

Yours sincerely,



Yuki Miura

Professor emeritus, Surugadai University

2-43-12, Kichijoji Higashi-cho, Musashino-shi
Tokyo, 180-0002 Japan



Office fédéral de la statistique
Bundesamt für Statistik
Ufficio federale di statistica
Swiss Federal Statistical Office

Le Directeur
Der Direktor
Il Direttore
Director-General

Statistique suisse

Statistik Schweiz

Statistica svizzera

Swiss statistics

Mr. Young-Dae Yoon
Commissioner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Dunsan-dong, So-gu
KR - 302-701 Taejon

Neuchâtel, September 20, 2001

Dear Young-Dae,

I have just come back from my trip to Far Asia, and I would like to express to you my heartiest thanks for all you did during the Seoul session of the ISI.

The stay was marvelous, and all the events you have so excellently organized are – and will remain – very lively in my memory. I enormously appreciated your generosity, your humanity and your friendship. Everything was perfect, and we enjoyed staying in Seoul very much. I also really appreciated getting to know your country, being in contact with many Korean colleagues and sharing experiences with people in Seoul.

Dear Young-Dae, let me thank you once again and transmit to you the best wishes for you, your family and your Office. I hope to meet you soon again.

Warm regards,

Carlo

Espace de l'Europe 10
CH-2010 Neuchâtel

Australian Statistician

PO Box 10
Belconnen ACT 2616
Fax: (02) 6252 8080
Tel. (02) 6252 6705

Mr Young-Dae Yoon
Commissioner
National Statistical Office
Building III, Government Complex - Taejeon
#920, Dunsan-dong
So-gu
TAEJEON 302-701
REPUBLIC OF KOREA

Dear Young-Dae

I am now back in Australia after my long holiday. I wanted to write formally to congratulate you, Bong-ho Choi and your support staff for the outstanding job you did in hosting the 53rd ISI Session. It was beyond everyone's expectations and will be a hard act to follow when we host the 55th Session in 2005.

Of course, a very special highlight for me was meeting the President of Korea. That is something I will remember for the rest of my life. I thank you most sincerely for the opportunity.

With my very best wishes.

Yours sincerely



Dennis Trewin

8 October 2001

명예위원회 위원명단

번호	기관	성명	비고
1	국무총리	이한동	위원장
2	재정경제부장관	진 념	대회개최 승인기관
3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한완상	학술회의 관련
4	외교통상부장관	이정빈	대회개최 승인기관
5	행정자치부장관	최인기	참가자 안전보호
6	법무부장관	김정길	입국업무
7	문화관광부장관	김한길	홍보지원
8	농림부장관	한갑수	통계작성기관
9	보건복지부장관	김원길	"
10	정보통신부장관	안병엽	"
11	노동부장관	김호진	"
12	기획예산처장관	전윤철	예산
13	국회재경위원장	최돈웅	국회대표
14	서울시장	고 건	개최도시
15	한국은행 총재	전철환	통계작성기관
16	전국경제인연합회장	김각중	"
17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	"
18	한국무역협회장	김재철	대회장소관련
19	대한민국학술원회장	이호왕	원로학자 대표
20	한국관광공사사장	조홍규	홍보지원

통계올림픽,
서울에서 열린다

글쓴이 | 운영대외
발행처 | 통계청
인쇄 | 2002년 7월 20일
발행 | 2002년 7월 30일
편집·제작 | 모아드림

ISBN 89-5664-007-6

非賣品
